

IBREA SUSTAINABILITY REPORT

국제뇌교육협회 지속가능성보고서 2019

인간의 내적 역량 계발을 통한 휴머니티 회복

지속가능성보고서 2019 개요

발간 목적	본 보고서는 국제뇌교육협회(IBREA)가 발간하는 두 번째 지속가능성 보고서입니다. 국제뇌교육협회는 유엔공보국(United States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UN-DPI) 정식 지위 NGO이자 유엔글로벌콤팩트(United Nation Global Compact, UNGC) 참여 기관으로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이행과 관련된 협회의 활동과 성과를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2년마다 발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작성 기준	보고서는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국제적 기준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가이드라인을 시민 사회단체의 특징에 맞춰 구성된 'NPO 지속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하되, 유엔글로벌콤팩트 참여 보고서(Communication on Engagement, COE)를 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보고 기간	2017년 1월~ 2018년 12월 (일부 주요 정성적 성과에 대해서는 2019년 2월까지의 내용 포함)
보고 범위	국제뇌교육협회 정관에 명시된 목적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 및 지속가능성 이슈를 보고합니다. 국제뇌교육협회 해외 지부인 일본뇌교육협회 파트는 본 협회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업만 보고 범위에 포함합니다.
보고서 검증	제3자 검토 의견(alt.lab)
보고 주기	2년
공개 원칙	기관 웹사이트 상시 공개 www.ibrea.org
추가 정보	 전화 +82-2-3452-9046  이메일 prmir@ibrea.org  웹사이트 www.ibrea.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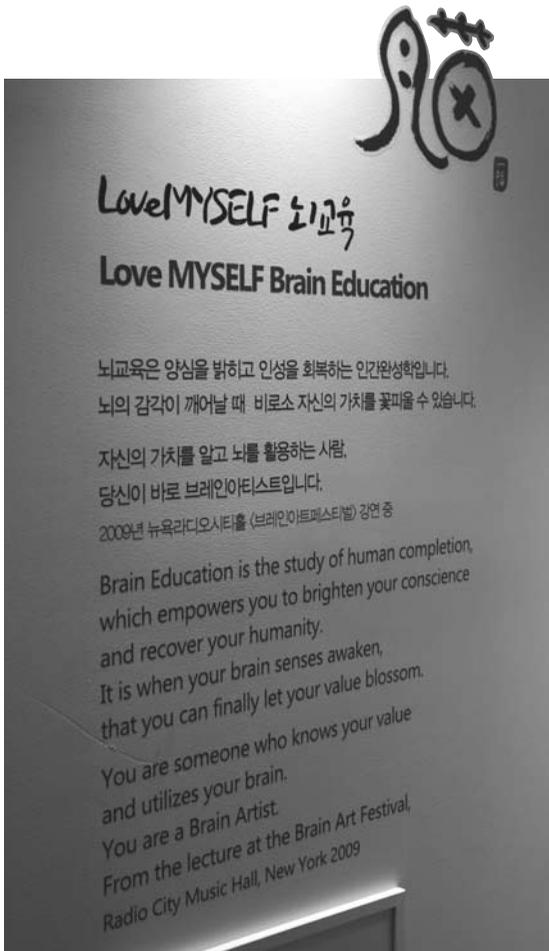


IBREA SUSTAINABILITY REPORT

국제뇌교육협회 지속가능성보고서 2019

인간의 내적 역량 계발을 통한 휴머니티 회복

발간사



국제뇌교육협회는 유엔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에서 제시된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3번째 건강과 웰빙, 4번째 양질의 교육 분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뇌교육을 통한 멘탈헬스의 증진과 인간 고유역량 계발을 통한 자기주도성 회복에 관하여, 뇌교육의 확산이 미치는 영향과 성과에 대한 활동을 담은 《지속가능성보고서》를 2017년 4월 처음 발행한 바 있습니다.

2017-2018년 2년의 활동을 담고 있는 이번 두 번째 《지속가능성보고서》는 그 연장선상에서 현재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운영 중인 미국, 일본, 중국, 영국을 포함한 유럽 6개국, 그리고 중동의 카타르까지 포함한 커뮤니케이션 활동 및 파트너십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여년간 지속되어 온 뇌교육 세계화 보급의 진전과 국제교류의 증진이 국내외 파트너기관들로부터 뇌교육 표준화에 대한 필요성을 높이는 결과를 만들어 낸 바, 이번 보고서에는 이를 위한 글로벌 프로세스 협의과정까지 담겨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별 기관들의 전문성 협력과 사회적 융합 사례들을 제시하는 글로벌 협의체의 특징을 갖는 국제뇌교육협회는 ‘인간의 내적 역량 계발을 통한 휴머니티 회복’이라는 슬로건으로 발행한 《지속가능성보고서 2019》를 계기로 뇌교육 확산의 공동 목표를 갖고 있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시너지를 이끌어 나가는 방식을 체계화하고,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행해나갈 것입니다.

국제뇌교육협회는 오늘날 발달된 과학기술 문명이 인간 뇌의 창조성에서 비롯되었듯이, 인류의 정신적 가치 하락과 지구 생태계 위협이라는 당면한 위기를 해결할 열쇠 또한 인간 뇌 속에 답이 있다는 인식으로 평화적인 뇌를 만드는 철학, 원리, 방법론을 갖춘 ‘뇌교육’의 필요성과 가치를 국제사회에 알리므로써 지속 가능한 지구와 인류 생태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 국제뇌교육협회 사무국 일동

2006

사단법인 창립 기념 제1회 국제 뇌교육 심포지엄 개최



2009-2010



(왼쪽)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가입
(오른쪽) 유엔공보국(UN DPI) NGO 정식 지위 승인

2004~2007 ' IBREA 태동과 성장

- 2004 11 국제뇌교육협회 설립
- 2005 1~4차 뇌교육 학술대회 개최
- 2006 09 서울시교육청 사단법인 인가
- 2006 10 사단법인 창립 기념 제1회 국제 뇌교육 심포지엄 개최(장소: 한국 고려대)
- 2007 12 뇌교육 매거진 <브레인> 한국뇌과학연구원 공동 발행 참여
- 2007 01 해외 지부 일본뇌교육협회(IBREA-Japan) 비영리 법인 NPO 등록

2008~2010 ' UN 국제 협력 구축

- 2008 06 유엔본부 국제 뇌교육 콘퍼런스 개최(장소: 뉴욕 UN본부)
- 2008 08 뇌교육 올림피아드 IHSP0 4회 국제대회 개최(장소: 뉴욕 UN본부)
- 2009 01 유엔본부 정신건강 뇌교육 세미나 개최(장소: 제네바 UN본부)
- 2009 02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가입
- 2009 02 UN CONGO Board 회의 참석(장소: 태국)
- 2009 03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UNGC-Korea) 가입
- 2009 06 유엔환경계획(UNEP) Billion Tree Campaign Partners 지정
- 2009 07 유엔연례각료급회의의 정신건강 뇌교육 세미나(장소: 제네바 UN본부)

2007

한국뇌과학연구원,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자문기관 지정



2008

유엔본부 국제 뇌교육 콘퍼런스 개최



국제뇌교육협회 주요 연혁

(왼쪽→오른쪽)

대한민국 제1회 브레인 엑스포 개최

교육부 글로벌 교육 지원 사업 파트너 참가_엘살바도르

KOICA 민간단체 사업 발굴 지원 지역 조사 시행_라이베리아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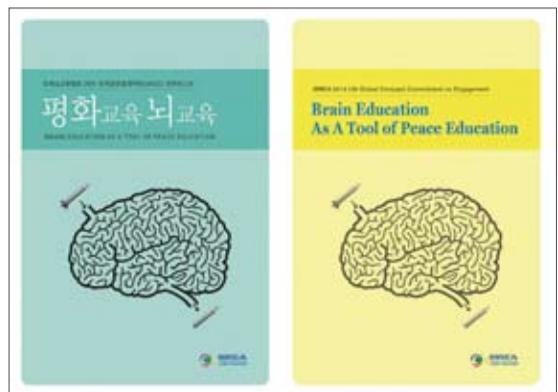
2011~2014 ' 학습 연구· 해외 원조· 국제 네트워크 강화

- 2009 08 브레인 아트 페스티벌 개최(장소: 뉴욕 라디오시티)
- 2009 10 유엔환경계획(UNEP) '70억 그루 나무 심기' 감사장 수신
- 2009 11 한중일 유엔글로벌콤팩트 라운드테이블 콘퍼런스 참가
- 2009 12 유엔 기후변화 캠페인 'Seal the Deal' 참여
- 2010 01 뉴욕·서울 '뉴욕시 뇌교육의 날' 1주년 기념 동시 세미나 개최
- 2010 01 자구시민운동, UNEP 유엔 기후변화 캠페인 참가 감사 레터 수신
- 2010 05 뇌교육 올림피아드 IHSP0 2010 기념 전국 14개 도시 세미나 개최
- 2010 05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반부패 심포지엄 참석
- 2010 06 유엔공보국(UN DPI) NGO 정식 지위 승인

- 2011 06 교육과학기술부 뇌과학: 교육 융합 정책 과제 참여(글로벌사이버대학교)
- 2011 12 KOICA(한국국제협력단) 민간단체 사업 발굴 지원 단체 선정
- 2012 04 대한민국 제1회 브레인 엑스포 개최(장소: 서울 코엑스)
- 2012 06 KOICA 민간단체 사업 발굴 지원 지역 조사 선정
- 2012 07 교육부 글로벌 교육 지원 사업 파트너 참가_엘살바도르
- 2012 10 KOICA 민간단체 사업 발굴 지원 지역 조사 시행(라이베리아)
- 2013 01 전국 9개 도시 멘탈헬스 강연회 개최
- 2013 08 중남미 뇌교육 홍보대사 위촉(글로벌리아 물러 학교장, 엘살바도르)
- 2013 08 청소년 멘탈헬스 심포지엄 개최 - '뇌, 행복교육을 말한다'
- 2013 10 일본뇌교육협회, 일본유니세프협회 기부(시리아 아동 구호)
- 2013 12 기획재정부 지정 기부금 단체 지정 승인
- 2014 04 파라과이 교사 한국 방문단 뇌교육 국제 연수 실시_충북도교육청
- 2014 05 교육부 후원 '2014 청소년 멘탈헬스 심포지엄' 개최
- 2014 10 뇌교육 올림피아드 IHSP0 제9회 본선 대회 개최

2014

유엔글로벌콤팩트 참여 보고서 첫 발행



2015

(아래) 한중일 지구경영 워크숍 개최
(오른쪽) 뇌교육 기반 세계시민교육 세미나 개최



- 2015 03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중일 개발 협력과 글로벌 CSR 포럼' 참가
- 2015 03 '지속가능발전교육(ESD)과 뇌교육' 뇌교육 전문가 포럼 개최
- 2015 05 '유엔글로벌콤팩트 Korea Leaders Summit 2015' 참가
- 2015 07 국제뇌교육협회 산하 '지구시민교육연구회' 발족
- 2015 11 뇌교육 기반 세계시민교육 세미나 개최 (장소: 한국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 2015 12 韓-日 글로벌 인성영재캠프 및 韓-日 청소년 미래 교육포럼 개최(장소: 한국 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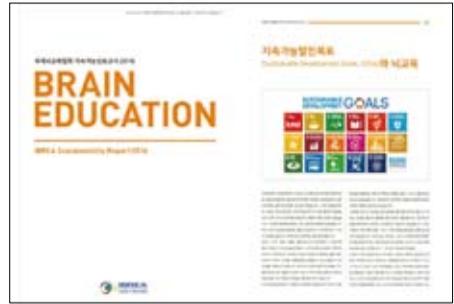
2015~2016 ' 세계시민교육 실시, 한중일 네트워크 강화

- 2016 02 한중일 지구경영 워크숍 및 한중일 지구시민 청년포럼 개최 (장소: 한국 제주)
- 2016 03 세계 뇌주간 기념 전국 18개 도시 뇌교육 세미나
- 2016 03 16개국 참가 세계지구시민운동연합 대회 공동 개최(장소: 한국 서울)
- 2016 04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의 이해와 참여 포럼' 참석 (주최: UNGC-Korea)
- 2016 04 '2016 COE 워크숍' 참여(주최: UNGC-Korea)
- 2016 05 '제66차 유엔 NGO 콘퍼런스 : 세계시민교육' 참가(장소: 한국 경북 경주)
- 2016 05 서울시NPO지원센터 '2016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지원 사업' 선정
- 2016 06 청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지원 사업 실시
- 2016 06 '뇌교육 기반 세계시민교육 포럼' 개최 (장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대회의실)
- 2016 06 한중일 지구시민 청년워크숍 개최(장소: 한국 경남 통영 세자트라 숲)
- 2016 08 뇌교육 올림피아드 IHSPO 11회 국제대회 개최(장소: 미국 뉴욕)
- 2016 08 유엔 'Youth Mental Wellbeing Conference' 참가 (장소: 뉴욕 UN본부)
- 2016 08 한중일 지구시민 청소년 리더십 캠프 개최(장소: 미국 뉴욕)
- 2016 09 해외 석학 초청 국제 교류 사업, 장노 전문가 에머런 메이어 교수 초청
- 2016 10 '세계시민교육 실천과 페다고지를 위한 국제회의' 참가
- 2016 10 지구시민 청년 아카데미 '유엔SDGs, 청년의 눈으로 바라보다' 개최
- 2016 12 '뇌교육 기반 세계시민교육 라운드테이블' 개최(장소: 한국 천안 국제학원)

2016

(왼쪽) 한중일 지구시민 청년클럽
(오른쪽) 6차 유엔 NGO 콘퍼런스 참가





(시계 방향)
 글로벌 정보네트워크 구축
 뉴질랜드 뇌교육 국제 심포지엄
 국제뇌교육협회 <지속가능성보고서> 첫 발행



2017

2017

- 2017 01 제1회 지구시민 평화 페스티벌 및 뇌교육 국제 심포지엄 개최(장소: 뉴질랜드)
- 2017 03 세계 뇌주간 기념 전국 9개 뇌교육 세미나 공동 개최
- 2017 04 국제뇌교육협회 <지속가능성보고서> 첫 발행
- 2017 04 국제뇌교육융합센터 출범
- 2017 08 일본 뇌교육 국제연수(장소: 일본 교토·오사카)
- 2017 08 일본뇌교육협회 '제4회 글로벌 멘탈헬스 세미나' 개최(장소: 일본 교토)
- 2017 09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10주년 서밋(UNGC Korea Leaders Summit 2017) 참가

2018

- 2018 01 韓-中 뇌교육 전문가 워크숍 개최(장소: 중국 상하이)
- 2018 02 <2018 韓-中 뇌교육 협력방안 보고서> 발행
- 2018 03 '뇌교육 국제 콘퍼런스' 참가(장소: 영국 런던)
- 2018 03 <2018 유럽 뇌교육 현황 보고서> 발행
- 2018 06 뇌교육 전문가 포럼 '뇌활용 시대, 어떻게 할 것인가' 개최(장소: 한국 서울)
- 2018 08 일본뇌교육협회 '제5회 글로벌 멘탈헬스 세미나' 개최(장소: 일본 후쿠오카)
- 2018 10 '2018 뇌교육 국제포럼' 개최, 5개국 참가(장소: 한국 서울)
- 2018 12 뇌교육 글로벌 표준화 위원회 출범

2018

(왼쪽) 뇌교육 전문가포럼
 (오른쪽) 2018 뇌교육 국제포럼 개최



뇌교육 월드와이드



EUROPE
 영국, 벨기에, 스페인
 프랑스, 폴란드,
 슬로바키아

RUSSIA
 러시아

ASIA
 한국, 일본
 중국

MIDDLE EAST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멘탈헬스 및 웰빙 증진



미래 교육인간 내적역량 계발

**국제뇌교육협회
 자문기관 &
 협력 파트너**

01) 연구·학술기관

- (재) 한국뇌과학연구원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 글로벌사이버대학교
- 국제뇌교육학회
- (사) 국학원

02) 자격 관리 기관

- (유)국제뇌교육협회인증원
- 브레인트레이너검정사무국



NORTH AMERICA
미국, 캐나다



유엔공보국(UN-DPI) NGO 활동



국제 교류 및 협력

CENTRAL AMERICA
엘살바도르

NEW ZEALAND
뉴질랜드

03) 비영리단체

- Earth Citizens Organization
- Change Your Energy Foundation
- 벤자민인성영재학교
- (사)청소년멘탈헬스인성교육협회
- 각 지역 뇌교육협회
- 브레인트레이너협회
- 지구시민운동연합
- (사) 한국뇌교육원
- (사) 대한국학기공협회

04) 뇌교육 전문 교육 기업

- Body & Brain Centers
- Brain Power Wellness
- Power Brain Education
- U-DAP Solution China
- HSP Body & Brain Training Center
- Ilchi Brain Yoga
- Ilchi Brain Up
- Brain Education Middle East
- ChangeYourEnergy.com

- (주) HSP컨설팅유답
- (주) BR뇌교육
- (주) 키즈뇌교육
- (주) 단월드
- 브레인트레이닝상담센터
- (주) 브레인월드코리아
- (주) 한문화멀티미디어
- (주) 명상여행사



협회장 메시지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반갑습니다'라는 인사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반'은 '신', '하느님'과 같은 뜻으로 '반갑다'는 '반과 같다' 즉 '당신은 신과 같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한민족 정신문화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하늘, 땅, 사람이 하나라는 천지인(天地人) 정신이 깃든 인사말이기도 합니다.

21세기 들어 한국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인식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 이후 비극적인 전쟁의 폐허 더미에서 20세기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룩한 나라,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유일한 나라에서 태권도와 드라마, 비보이와 한식, K-POP까지 한국의 문화역사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뇌교육(Brain Education)'은 21세기 코리아가 지구와 인류사회에 기여할 한국적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과 답을 찾고자 했던 간절한 소망으로 탄생하였습니다. 2008년 유엔본부에서 처음 개최한 국제뇌교육컨퍼런스에서 "뇌교육은 평화를 실천할 수 있는 도구와 방법"이라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뇌교육의 평화철학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다'라는 단군 조선의 건국이념이자 인류 보편적 정신을 내포한 '홍익인간(弘益人間)' 사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하늘, 땅, 사람이 하나라는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몸과 마음, '심신(心身)'을 함께 단련하고 체득화 했던 전통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고대 한국의 조상들은 몸과 마음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다스렸던 '심신쌍수(心身雙修)', 인간 의식성장의 원리와 방법론인 '수승화강(水昇火降)', '심기혈정(心氣血精)', '정충기장신명(精充氣壯神明)' 등을 생활문화로 체득해 왔습니다.

한국의 고대문헌인 《삼일신고-신훈 편》에는 '자성구자 강재이뇌(自性求子 降在爾腦)'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를 풀이하면 '본성에서 찾으라. 이미 너희 뇌 속에 내려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수련체계와 원리가 오늘날 뇌철학의 원형적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전 세계 선진국들은 1990년대 들어 '뇌'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기체의 총 사령탑으로 밝혀진 '뇌'를 선점하기 위해 뇌과학을 통한 뇌 기능 및 구조적 탐구, 뇌 질환 연구 등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인간 뇌에 대한 과학적, 의학적 탐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지식보다 지속가능 발전 차원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인간 뇌에 대한 올바른 활용과 계발을 통한 삶의 변화일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선상에서 뇌교육은 누구나 가진 뇌를 생물학적 대상이 아닌 활용과 계발의 대상으로서의 인식 전환에서 출발했습니다.

물질과 정신의 만남, 지금 인류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된 세상에서 '정보'가 새로운 문명의 키워드가 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고유역량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체성과 '휴머니즘'의 가치를 되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돼 가는 21세기 정보화 사회 속에서 정보를 인식하고, 처리하고, 활용하는 정보처리기술이 그 중심에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뇌교육은 이러한 뇌 속 정보체계를 공존과 평화의 상태로 전환시키는 새로운 '정보기술'이며, 그래서 뇌교육을 '5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국제뇌교육협회는 오늘날의 인류 문명이 인간 뇌의 창조성에서 비롯되었듯이, 인류의 정신적 가치 하락과 지구 생태계 위협이라는 당면 위기를 해결할 열쇠 또한 인간 뇌 속에 답이 있다는 인식으로 평화적인 뇌를 만드는 철학, 원리, 방법론을 갖춘 '뇌교육'의 필요성과 인간 내적 역량 계발을 이끄는 새로운 인적자원 방법론을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2004년 한국에서 설립된 비영리 국제단체입니다.

나아가, 국경과 인종, 종교를 초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위해 2009년 2월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했으며, 2010년에는 유엔글로벌콤팩트(UN-DPI) 정식지위 NGO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제뇌교육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 국제협약을 적극 지지하고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에 관한 10대 원칙 준수를 통해 각 분야 이해관계자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국제사회의 기준에 발맞추어 가고자 합니다.

인간의 뇌가 가진 '창조성'과 '평화성'이라는 두 수레바퀴의 균형점을 회복함으로써, 인류의 의식과 문명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과 신념으로 뇌교육을 평화기술로서 국제사회에 알려가는 길에 함께 해주실 것을 고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2019년 9월

일지 이승헌 국제뇌교육협회장



CONTENTS

I. 국제뇌교육협회 소개

- 14 1. 기관 소개
- 16 2. 미션과 전략
- 17 3. 조직 구조
- 19 4. 의사 결정 구조

II. 지속가능발전과 뇌교육

- 24 1.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 의제의 전개와 뇌교육
- 29 2.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뇌교육의 방향
- 34 3. 뇌교육 기반 미래형 고교, 벤자민인성영재학교

III.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 38 1. 국제뇌교육협회 이해관계자
- 40 2. 보고 이슈 선정을 위한 중요성 분석

IV. 인간 내적 역량 계발을 위한

글로벌 액션

- 47 1. 일본: 인간력 향상을 통한 멘탈헬스 케어
글로벌 멘탈헬스 세미나
- 52 2. 유럽: 뇌 활용을 통한 통합적 건강 관리
2018 뇌교육 국제 콘퍼런스
- 59 3. 뇌교육 미디어 액션

V. 국가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및

파트너십 모델 발굴

- 65 1. 韓-美 아동·청소년 분야 기관 교류
- 70 2. 韓-中 뇌교육 전문가 교류
- 73 3. 중동 뇌교육 컨설팅
- 75 4. 2018 뇌교육 국제 포럼: 한국식 명상(K-Meditation)

VI. 뇌교육 표준화를 위한 협력 체제 구축

- 85 1. 국제뇌교육융합센터 발족:
뇌교육 표준화의 필요성과 과제 검토
- 87 2. 뇌교육 표준화 위원회 가동

VII. 운영의 지속가능성

- 90 1. 회계 투명성
- 94 2.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모금
- 95 3. 후원자 관리

부록

- 98 유엔글로벌콤팩트 참여
- 99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 100 제3자 검토 의견
- 102 지속가능성보고서 보고 지표
- 103 References

국제뇌교육협회 소개

기관 소개

비전과 미션

조직 구조

의사 결정 구조

COLUMN

뇌교육과 지구경영_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교수



국제뇌교육협회 소개

1. 기관 소개

단체명	(한글) 국제뇌교육협회 (영문) International Brain Education Association(IBREA)
협회장	이승헌
단체 지위	비영리 사단법인 (서울시교육청 인가), 2006년 유엔글로벌콤팩트 (UNGC) 참여 기관, 2009년 유엔공보국 (UN-DPI) 정식지위 NGO, 2010년
설립 년도	2004년, 국제뇌교육협회 (IBREA) 2007년, IBREA-Japan
소재지	(한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2길 11 캐럴라인타워 8층 (일본) NPO法人 IBREA-Japan 名古屋市北区大曾根四丁目16番15号 IS大曾根 3C号
홈페이지	(한국) www.ibrea.org (일본) jp.ibrea.org

국제뇌교육협회(IBREA)는 대한민국 건국이념인 홍익인간 철학을 바탕으로 인간 뇌의 올바른 활용과 계발을 위한 뇌교육 관련 학계 간 학술 활동 및 교육학 발전에 앞장서며, 지속 가능한 인류와 지구촌 문명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국제단체입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32조 및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2004년 한국 법인을 설립했으며, 2006년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습니다.

인류의 미래 자산인 ‘뇌’의 올바른 활용과 계발을 위한 뇌교육의 국제사회 보급을 위해 2007년 1월 일본 해외 지부인 IBREA-Japan을 설립했으며, 2008년 6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첫 국제 뇌교육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2009년 2월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가입, 2010년 6월 유엔공보국(UN-DPI) 정식지위 NGO로 등록했습니다. 현재 국제뇌교육 협회는 전 세계 파트너 기관 간 협력 및 국제 교류, 글로벌 전문가 네트워크, 뇌교육 인증 체계 및 표준화 심의 등 뇌교육 분야의 글로벌 중추기구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 뇌교육 교수-학습법 연구 개발
- 뇌교육 관련 교육정책 개발 및 교육 현장 개선을 위한 활동
- 연구 발표회, 학술대회, 국제 포럼 개최
- 협회지 및 기타 출판물 간행
-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교류 활동
- 뇌교육 인증 체계 및 글로벌 표준화 심의
- 뇌교육적 가치에 부합하는 홍보 및 후원 활동

WE SUP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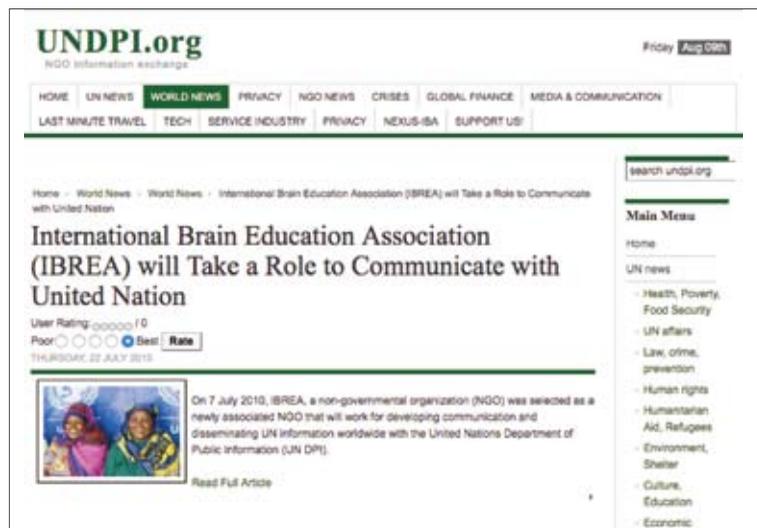


유엔글로벌콤팩트(UNGC)란?

유엔새천년개발목표(UN-MDGs)와 같은 유엔 아젠다 이행과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에서 기업, 단체의 사회윤리와 국제환경 개선을 위한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설립된 유엔 내 자발적 이니셔티브 기구. 코피 아난 전 유엔사무총장이 1999년 1월 31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한 제안으로 촉발되어, 전 세계적으로 100여 개국에 국가별 네트워크가 결성돼 있으며 한국에서도 250여 개 기업과 단체가 참여 기관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유엔공보국(UN-DPI)이란?

유엔공보국은 UN 활동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1947년 설립됐으며, 전 세계의 대표적인 NGO들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함께 일해오고 있습니다. 유엔공보국에 공식적으로 가입된 NGO 대표들은 유엔본부 출입 자격을 부여 받으며, 매주 유엔에서 열리는 NGO 브리핑과 커뮤니케이션 워크숍, 연례 NGO 콘퍼런스,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유엔의 활동 및 세계 이슈와 접하고 논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또한, 유엔본부의 NGO 자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고, 유엔 자료 검색 교육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뇌교육협회는 2009년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가입에 이어, 2010년 상반기 심사에서 유엔공보국(UN-DPI)의 공식 협력 NGO로 승인받아 다양한 국제 세미나와 콘퍼런스 정기간행물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유엔의 목표와 당면 이슈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2. 미션과 전략

국제뇌교육협회(IBREA)는 과학 기술 발전을 통한 오늘날의 인류 문명이 인간 뇌의 창조성에서 비롯됐듯, 인류의 정신적 가치 하락과 지구 생태계 위협이라는 당면 위기를 해결할 열쇠 또한 인간 뇌 속에 답이 있다는 인식으로 평화적인 뇌를 만드는 철학, 원리, 방법론을 갖춘 '뇌교육'의 필요성과 인간 내적 역량 계발을 이끄는 체계화된 교육 방법을 국제사회에 알림으로써 지속가능한 지구와 인류 생태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미션 MISSION

“국제뇌교육협회는 인류의 미래 자산인 ‘뇌’의 창조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알고, 활용하는 뇌교육의 가치를 높이고 국제사회에 알림으로써, 지속가능한 인류와 지구촌 문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략 STRATEGIES

[글로벌 협력] 뇌교육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표준화

-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국제 세미나, 포럼 및 워크숍 개최
- 뇌교육 인증 체계 구축 및 글로벌 표준화 심의

[정보 확산] 뇌교육 가치 확산을 위한 글로벌 의제 형성 및 이슈화

- 뇌교육 매거진 발행, 소셜미디어 기반 정보 확산
- 글로벌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한 뇌교육의 가치 확산

[융합 컨설팅] 뇌교육 접목을 통한 사회 영역별 융합 시너지 창출

- 뇌교육 기반 미래 교육 모델 구축 및 학교 교육 혁신
- 뇌교육 기반 직무 스트레스 관리, 멘탈헬스 증진 방법론 확대

핵심 가치 CORE VALUE

- 수평적 정보 네트워크 확산을 통한 정보 연결성 강화
- 지속가능한 인류와 지구 생태계를 위한 공동체 문화 확대
- 융합 시너지 창출을 위한 사회 영역별 참여 문화 확산

3. 조직 구조

국제뇌교육협회 설립과 운영 목적에 따라 학술 연구 및 과학기술 자문기관과 국내외 파트너 기관들이 참여하는 '자문 협력 위원회'를 두고 의견 수렴과 의사 결정 전체 과정에 폭넓게 참여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사무국을 중심으로 국제협력팀, 대외협력팀, 행정팀을 두고 있으며,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유엔공보국(UN-DPI) 등 국제사회 활동 추진과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에 중점을 두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사회		이사 11명, 감사 2명(주요 구성: 자문기관, 협력 파트너 대표) 운영 및 사업에 대한 심의·의결·자문, 사업 정기·비정기 협의
자문 협력 위원회		자문기관, 협력 파트너 대표 및 실무 책임자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 - 자문기관: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학문적 전문성, 컨설팅 제공 - 협력 파트너: 영역별 뇌교육 전문 기관으로 구성, 융합 시너지 창출
사업별 연구회		사업별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산하 연구회를 설립, 운영함
사무국	국제협력팀	유엔 기구, 해외 협력 파트너 기관 협력 글로벌 프로젝트 추진 관리 유엔글로벌콤팩트, 유엔공보국 국제 지위 활동 추진
	대외협력팀	자문 협력 기관, 후원자 그룹 관리 언론 홍보, 소셜미디어 관리
	행정팀	법인 운영 관리, 회계 관리 지정 기부금 단체 관리

국제뇌교육협회 자문기관

국제뇌교육협회는 ‘뇌교육(Brain Education)’이 인간 뇌의 올바른 활용과 계발을 다루는 새로운 융합 학문인 동시에 인간 내적 역량을 계발함으로써 의식의 실제적 변화를 일으키는 특성에 비추어, [과학 기술, 학문화/인재 양성, 뇌철학] 분야별 자문기관을 두고 과학적 체계와 학문적 바탕을 두고 국제사회 보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



한국뇌과학연구원

KIBS, Korea Institute of Brain Science

- 인간 뇌 활용 분야 대표 연구 기관 (1990년 설립)
-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ECOSOC) 협의 지위 기관 승인 (2007)
- 뇌교육 원천기술 B.O.S 개발, 뇌교육 중점 연구

학문화/인재 양성 분야



국제뇌교육학회

IRABE, International Research Association for Brain Education

- 뇌교육 분야 국제 학회
- 뇌교육학의 학문적 발전 도모, 뇌 관련 제반 학문의 융·복합 탐구



글로벌사이버대학교

GCU, Global Cyber University

- 4년제 학위 과정 뇌교육 융합학부 최초 개설 (2011)
- 뇌교육 특성화 대학, 감정노동 교육 전문 기관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UBE, University of Brain Education

- 뇌교육 석·박사 학위 과정
- 뇌교육 학문화의 산실

뇌철학/문화 분야



국학원

- 한민족 고유의 역사 문화 철학 연구, 교육기관 (2002년 설립)
- 뇌철학 연구 및 정립

4. 의사 결정 구조



국제뇌교육협회는 뇌교육을 통해 국제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인류 사회 구현을 위한 ‘글로벌 협의체’의 특징을 가진 바, 의사 결정 구조에서도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의견 수렴 및 의사 결정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글로벌 협의체’의 특성상 ‘자문 협력 위원회’가 대표적 의사 결정 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이사회는 자문 협력 위원회의 의사 결정 결과에 관해 행정적·법적 검토 절차를 갖는 기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의사 결정은 총 3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안건 상정 및 의견 수렴 단위는 국제뇌교육협회의 자문기관, 국내 협력 파트너, 해외 협력 파트너, 사업별 연구회 누구나 가능하며, 필요한 해당 안건을 협회 사무국에 제안합니다. 2017년 4월에는 해외 파트너 기관 간의 보다 적극적인 정보 교류를 위해 ‘뇌교육 글로벌 정보 네트워크’라는 실무자 그룹이 만들어져 상시적인 정보 수집 및 교류를 갖는 체계가 갖춰졌습니다.

2단계로 평균 월 1회 열리는 자문 협력 위원회에서 사무국에 상정된 안건들을 협의하게 되며, 안건 성격에 따라 회의는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형태로 진행됩니다. 자문 협력 위원회의 의사 결정 안건과 내용은 최종 단계인 이사회에 보고돼, 행정 및 법적 검토를 거쳐 사무국에서 시행을 맡아 진행하게 됩니다.

단계	내용	담당 기관 및 기구	진행 방식
1단계	안건 상정 및 의견 수렴	자문기관 → 사무국	필요 시 안건 개선
		국내 협력 파트너 → 사무국	필요 시 안건 개선
		해외 협력 파트너 → 사무국	필요 시 안건 개선
		사업별 연구회 → 사무국	사업 보고서
	글로벌 정보 수집	뇌교육 글로벌 정보 네트워크	실무자 그룹 상시 운영
2단계	의사 결정 글로벌 협의	자문 협력 위원회	온라인·오프라인 개최
3단계	행정적·법적 의사 결정 시행	이사회	오프라인 개최

COLUMN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교수가
일본뇌교육협회가 주최한

'2018 글로벌 멘탈헬스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Emanuel Pastreich, 한국명 이만열) 교수

이만열 교수는 1964년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출생했고 예일대에서 중문학 학사 학위(1987),

도쿄대에서 비교문화학 석사 학위(1992), 하버드대에서 동아시아 언어문화학 박사 학위를 취득(1997)하고

미국의 일리노이대 교수, 조지 워싱턴대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한국 외교통상부가 운영하는 정책 싱크탱크인 주미한국대사관 홍보원 이사를 역임했다.

아시아인스티튜트 이사장이며, 2018년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부총장 겸 지구경영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한국어, 중국어, 영어로 된 저서 가운데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에서는 한국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한국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승현 국제뇌교육협회장과 《지구경영, 흥익에서 답을 찾다》를 공저했다.

뇌교육과 지구경영

저는 동아시아학을 오랫동안 연구했지만 23년 전에 뇌 수술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간질에 대한 고민도 많았고 항상 뇌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뇌와 동양학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와서 그 관계를 알게 됐습니다.

서양 사람으로서 이 역사적인 순간에서 왜 앞으로 특히 동양 문명이 세계적으로 핵심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많은 동양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잘사는 미국의 모습을 보고 빨리 서양화, 현대화하고 큰 자동차 갖고, 큰 집을 갖고 산업화를 빨리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거의 상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는 경제문제, 환경문제, 여러 가지 갈등이나 전쟁을 보면 분명히 서양의 문명이 상당한 한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국, 일본을 거쳐 한국에서 10여 년을 체류했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이란 책을 출간하면서, 한국 전통문화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한국의 과거와 미래를 자주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속가능성과 인간다움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의 전통문화는 한옥, 한복, 한식, 한의학이나 여러 가지 좋은 예술, 역사 문화 콘텐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신념이나 원리, 원칙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효, 덕, 선 이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성의 핵심이고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고유 명상을 체험하면서 저는 다시 인식하게 됐습니다.

현대사회는 이렇게 돼버렸지만, 우리의 미래는 계속 이렇게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한문을 전공해서 중국 고전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천지인(天地人) 사상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했습니다. 한국의 아주 위대한 전통은 사람과 주변 환경의 상호 호흡을 인생의 핵심으로 생각해왔다는 것입니다. 자연과 사람, 천(天)은 하늘 위에 있는 하늘이지만 대자연, 그런 이면에는 원리 원칙이라는 뜻이 있고 지(地)는 땅이나 자연이 있고 사람은 그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 안에서 자기 몸에 대한 의식도 필요하고, 명상을 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자기의 마음과 몸의 관계, 자신의 마음과 몸을 생태계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과 호흡을 통해 몸과 마음이 상호 순환이 잘되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새롭게 알 수 있고, 자기는 누구인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또 깊이 세상을 관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명상을 통해 자기의 몸과 뇌의 관계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추상적인 것만 생각했고 자기 몸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건강관리는 그냥 이기적인 게 아니고 제대로 사고를 하려면 몸이 건강해야 되고, 몸과 마음의 서로의 순환이 일어나야 제대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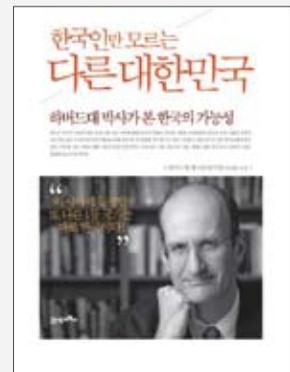
‘지구경영’은 지구의 모든 시민을 위한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습관의 창출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취하는 모든 행동이 윤리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생태계 전체와의 관계에서 인지되는 문화만이 인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화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자연과의 조화를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가치로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의 핵심은 근본적으로 미래 지향적인 개념이 아니라 전통문화의 재발견입니다. 우리는 한때 우리가 생태계와 얼마나 긴밀하게 연관돼 있는지를 알고 있었고, 우리가 그것을 찾으면 깊은 진실을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기후변화 위기는 인류 역사에서 전례가 없지만 우리 자신의 생애에서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해결책은 근본적이고 초현대적인 전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전통을 재해석해 오늘날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방법에서 오는 것입니다.

인간과 자연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를 주장하는 움직임은 우리 사회를 구하고 소중한 지구를 위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데 필수적인 열쇠입니다. 보다 나은 세상을 통해 우리 손으로, 우리 마음으로 평화로운 뇌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만열 교수 대표 저서



뇌 선언문

2001년 6월 15일 '인간, 지구, 뇌'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에서 열린 제1회 휴머니티 콘퍼런스에 전 세계의 석학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이승현 협회장을 비롯해 엘 고어, 헤나 스트롱 등 세계의 석학들은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의 해결책으로 '지구인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인간 뇌의 올바른 활용을 위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을 전제하는 이 지구인 선언문을 통해 뇌교육의 철학적 바탕이 공식화됐고, 이 선언문은 나중에 뇌 선언문으로 발전했습니다.

'뇌 선언문'은 뇌교육의 현장으로서, 국제뇌교육협회가 추구하는 인간과 사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내외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기본적으로 채택하여 뇌교육 보급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뇌의 주인임을 선언합니다.

I declare that I am the master of my brain.

나는 나의 뇌가 무한한 가능성과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선언합니다.

I declare that my brain has infinite possibilities and creative potential.

나의 뇌는 정보와 지식을 선택하는 주체임을 선언합니다.

I declare that my brain has the right to accept or refuse any information and knowledge that it is offered.

나의 뇌는 인간과 지구를 사랑함을 선언합니다.

I declare that my brain loves humanity and the earth.

나의 뇌는 본질적으로 평화를 추구함을 선언합니다.

I declare that my brain desires peace.

Take Back Your Brain!



지속가능발전과 뇌교육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 의제의 전개와 뇌교육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뇌교육의 방향

뇌교육 기반 미래형 고교,
벤자민인성영재학교



지속가능발전과 뇌교육

1.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 의제의 전개와 뇌교육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국제사회는 8개의 밀레니엄 개발목표를 중심으로 전 세계 빈곤 퇴치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15년간 1억 명의 사람이 극심한 빈곤과 기아에서 해방되고 문해율이 83%에서 91%로 증가하는 등 밀레니엄개발목표는 인간의 기본권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¹ 그러나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경제개발 위주의 발전 모델로는 인류의 미래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반성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전 세계의 경제적 부의 증가를 가져온 기술의 진보와 세계화로 지역 간, 계층 간 소득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밀레니엄개발목표에 이어 2015년 10월, 70회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국제사회가 추구할 새로운 미래의 모습과 이를 성취하기 위한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발전에 초점을 맞춘 밀레니엄 개발목표와는 달리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모든 지역과 연령층, 계층의 포용적 성장과 지구 생태계 안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성취하기 위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차원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통합적 목표들로 이뤄져 있습니다.

국제뇌교육협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추구하는 가치의 관점에서 뇌교육을 이해하고, 뇌교육의 확산이 미치는 영향과 성과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을 높이고자 2017년 첫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2017년, 2018년 2년의 활동을 담고 있는 이번 두 번째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그 연장선에서 특히 뇌교육 관계 기관들의 글로벌 협의체로서의 국제뇌교육협회의 핵심역량을 활용해 건강과 웰빙,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뇌교육이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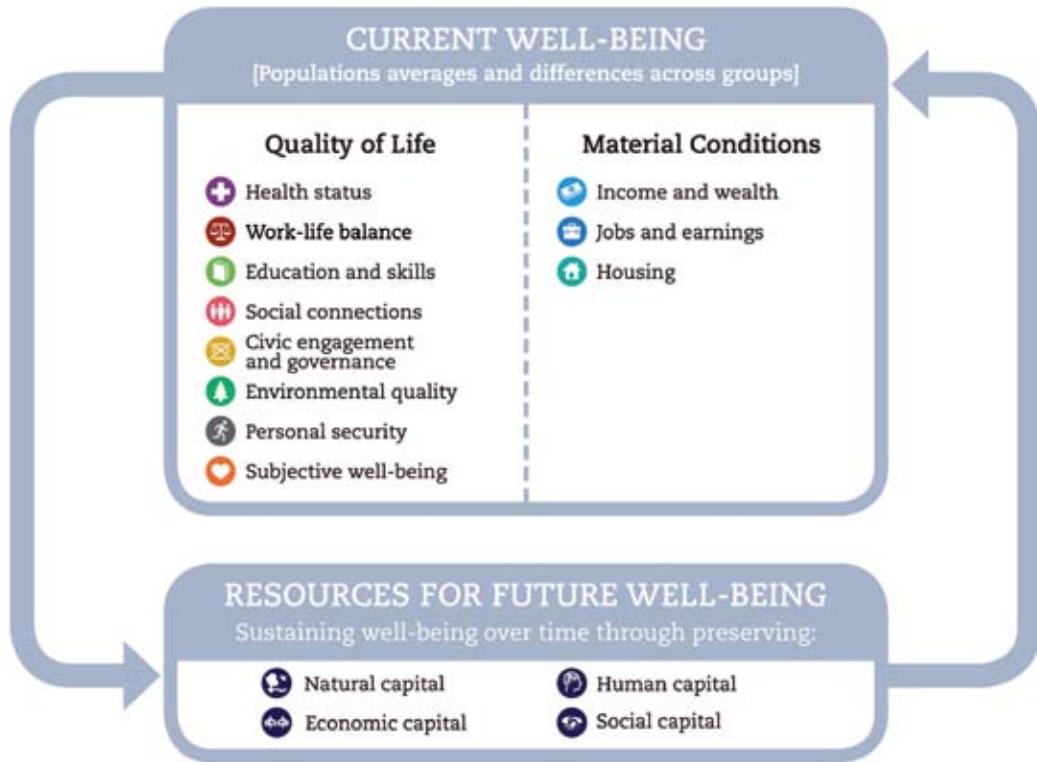


SDG 3 건강과 웰빙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한다.

☞ 경제발전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의 변화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지향하는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적 발전의 비전은 최근 10년 사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웰빙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심화되는 불평등과 갈등, 급격한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인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경제발전을 넘어 ‘좋은 삶’을 성취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접근 가능해야 하는 핵심 요소들을 검토해 ‘OECD 웰빙 프레임워크’를 내놓았습니다. OECD는 2011년에 발표된 이 웰빙 프레임워크를 근간으로 매년 《How’s Life?-Measuring Well-being》 보고서를 발행하고 OECD 회원국의 웰빙 현황을 분석·진단하고 있습니다.



〈OECD 웰빙 프레임워크〉

☞ 멘탈헬스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 자원

OECD 웰빙 프레임워크는 소득과 직업, 주거 등과 같은 ‘물질적 조건’에 건강, 일과 삶의 균형, 교육, 환경의 질, 주관적 웰빙과 같이 ‘삶의 질’을 결정짓는 지표들을 선정해 웰빙의 현황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삶의 질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자원들을 분석해 자연 자본, 인간 자본, 경제 자본, 사회 자본을 추가했습니다. 이 중 인간 자본을 이루는 하위 요소들은 크게 기술과 역량을 기르는 교육과 육체적·정신적 건강으로 나뉩니다. 이 요소들은 사회·경제적으로는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며 개인적으로는 기본적인 경제적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 속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함으로써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칩니다.

《How's Life? 2017-Measuring Well-being》 보고서는 유엔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채택한 후 발간됐는데, OECD는 이 보고서에서 '웰빙 프레임워크와 2030 아젠다의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대부분의 지표가 중첩돼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² 특히 인간 자본은 지속가능발전 목표 3번 '건강'과 지속가능발전 목표 4번 '교육' 관련 목표에 상응하는 지표입니다. 건강한 삶과 양질의 교육은 개인적·사회적 차원에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누구나 평등하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2017년 제니퍼 쉬히 스케핑톤(Jennifer Sheehy-Skeffington) 박사팀의 연구를 인용해 저소득층의 육체적 건강이 하락하고 장기 실업 문제로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이러한 불평등이 소외계층의 멘탈헬스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³ 왜냐하면 불평등은 사람들로 하여금 긍정적 변화의 원동력인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사회의 허리를 떠받치고 있는 중산층이 점점 몰락하면서 저소득층의 멘탈헬스 하락은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2017년 발행된 《How poverty affects people's decision-making processes(빈곤이 어떻게 사람들의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에서 쉬히 스케핑톤 박사팀은 빈곤과 불평등이 빈곤층에게 미치는 사회·심리적 영향을 분석하고 나아가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재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⁴ 개인적 차원에서는 집중력과 자기 조절력을 높이고, 스트레스와 분노를 조절하는 기술을 익힐 수 있는 명상과 마인드풀니스 훈련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합니다.

☒ 멘탈헬스와 비전염성 질환의 통합적 관리

밀레니엄개발목표가 에이즈, 말라리아, 폐결핵 등 특정 전염성 질병 퇴치에 중점을 두었던 반면 2016년 시작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소위 생활습관병이라고 불리는 비전염성 질환, 약물 남용,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환 등 멘탈헬스 증진과 웰빙을 위한 포괄적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 목표로는 전 세계 국가들에게 '2030년까지, 비전염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통해 조기 사망률을 3분의 1로 낮추고 멘탈헬스와 웰빙을 향상시킬'⁵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2016년을 기준으로 연간 5700만 명이 사망한 걸로 집계되는데 이 중 4100만 명의 사망 원인이 비전염성 질환으로, 전체 사망률의 71%를 차지합니다.⁶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흡연과 대기오염,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 신체 활동 저하, 그리고 지나친 음주 등 주요 위험 요소를 감소시키는 행동이 요구됩니다.

멘탈헬스 저하로 나타나는 질병들은 암이나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과 같은 비전염성 질환과 상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합적 관리와 예방이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면, 우울증 환자는 심근경색이나 당뇨병에 취약한데 또한 반대로 심근경색이나 당뇨병은 우울증의 발병 확률을 높입니다. 사회경제적 지위나 알코올 남용, 스트레스와 같은 많은 위험 요소가 정신 질환과 비전염성 질환의 공통된 위험 요소들입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비전염성 질환과 멘탈헬스 관련 목표가 채택된 것은 세계보건기구 WHO의 '글로벌 멘탈헬스 액션플랜 2013-2020'으로부터 이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 발표 당시 WHO의 사무총장인 마거릿 찬(Margaret Chan) 박사는 “건강 관련 개발 목표에 비전염성 질환이 포함된 것은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마침내 이 질병들이 필요한 관심을 받게 됐다”⁷라며 환영했습니다.

2020년 완료를 앞두고 있는 글로벌 멘탈헬스 액션플랜에서는 멘탈헬스 증진을 위해 4개의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 중 세 번째는 ‘멘탈헬스의 증진과 예방을 위한 전략의 수행’⁸으로, 아동·청소년을 위한 학교 기반 예방과 증진 프로그램 개발,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관리나 웰니스 프로그램 지원, 요가나 명상과 같이 멘탈헬스 증진을 위한 실증적 전통 훈련법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점점 경제발전에서 삶의 질적 향상에 관심을 돌리면서 건강에 대한 정의도 질병의 부재에서 육체적·정신적·사회적·영적 건강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삶을 관리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전통적 훈련법의 가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법에 대한 실증적 연구와 함께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과 콘텐츠의 확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SDG 4 양질의 교육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평생 학습 기회 증진

📖 기술 혁명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1차 산업혁명 이래 20세기에 이르기까지 교육은 경제성장에 요구되는 정해진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도구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4차 산업혁명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그동안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 여겼던 정보 습득이나 활용과 같은 전형적인 자연지능 프로세스들이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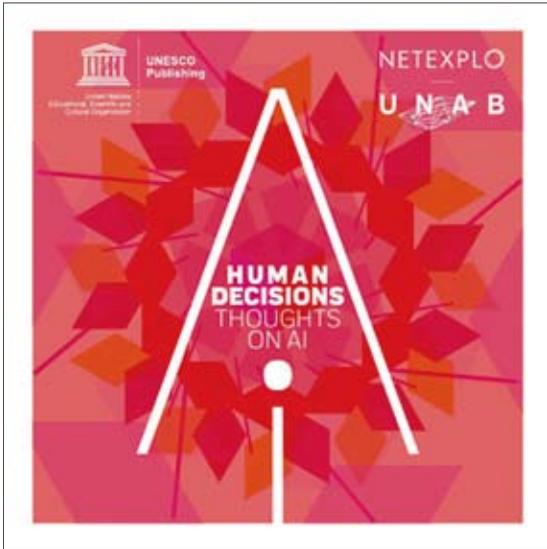
전통적으로 자연지능이 해왔던 과정을 보면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정보와 데이터를 기억하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분석하고 의미를 찾는 과정입니다. 지금,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은 사물인터넷과 연결된 빅데이터를 통해 방대한 양의 정보들이 지속적으로 수집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정은 언제 어디에서나 인터넷 연결만 있으면 정보를 불러올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의해 대체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과정은 딥러닝 기술의 발달로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을 통해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⁹

그렇다면 인간의 자연지능이 키워야 할 고유한 역량은 무엇일까요? 전무후무한 과학 기술의 혁신으로 변화의 방향이나 속도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미래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21세기의 교육은 인간 계발과 완성이라는 인본주의적 목적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유네스코 21세기 세계교육위원회가 1996년 발간한 《21세기 교육을 위한 새로운 관점과 전망(Learning: the treasure within)》 보고서는 이러한 인본주의적 교육으로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본 위원회는 21세기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목적과 기대치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반드시 다루야 한다는 필요를 인식해왔다. 학습을 넓게 그리고 확대된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적 잠재력을 발견하고 계발하여 확장시키는 일, 곧 각자에게 숨겨진 보물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은 기술, 능력, 경제적 잠재력과 같은 특수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도구적 관점을 넘어서서 자신을 완전한 사람으로 개발하는 과정, 곧 존재하기 위한 학습으로 간주돼야 한다.”¹⁰

따라서 기후변화와 자연 고갈로 인한 환경의 끊임없는 위협, 그리고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과 경쟁 혹은 협력하면서 살아가야 할 미래 세대에게 필요한 양질의 교육은 인간다움과 윤리, 스스로 방향을 찾고 창조하는 주체성과 같은 인간 고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인간 고유의 내적 역량, 자기 주도성



디지털 기술이 사회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온 프랑스의 네텍스플로(NetexPlo) 연구소가 2018년 초 유네스코와 함께 《Human Decisions Thoughts on AI》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가속화가 공공 부문과 민간 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을 종합해 놓은 것입니다. 이 책은 인공지능이 인간과 공존할 것인가, 경쟁할 것인가, 인간을 지배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의 밑바닥을 흐르는 근본적인 질문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어디까지 인공지능에게 의사 결정권을 넘겨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¹¹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저 앞에 보행자가 길을 건너는 데 나는 차의 속도를 줄여야 할까?’와 같은 개인적인 선택부터 ‘이 회사에 적합한 인재는 누구일까?’, ‘노사 간의 합의 속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 무엇인가?’와 같은 인사 관리와 정책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점점 우리의 느낌이나 직관, 꿈과 이상보다는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알고리즘 분석과 합리적 선택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자연스럽게 인공지능이 우리의 개인적 삶뿐만 아니라 국가,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율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 삶에 대한 결정권을 상실하고 기계나 혹은 기술 자본을 소유한 극소수의 계층이 인류를 지배하는 미래 사회를 우리는 디스토피아로 그립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 인공지능, 증강현실, 지구공학(Geoengineering)과 같이 아직 개발 단계에 있거나 시장 도입 초기 단계에 있는 기술들이 인류와 지구에 되돌아킬 수 없는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그 과정에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2018년 ‘가치, 윤리 그리고 혁신(Values, Ethics and Innovation)’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론칭하고 2018년 8월 그 첫 번째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과 인간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기술의 개발과 활용의 협의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가치와 윤리의 문제를 검토하는 인간 중심의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¹² 이 보고서는 기술 개발이 개인의 자아실현과 인류의 웰빙을 위해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술이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술이 인류를 이롭게 하는 올바른 트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할 인간 중심적 접근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OECD가 미래 교육의 혁신을 위해 제시한 ‘OECD 학습 개념틀 2030(OECD Learning Framework 2030)’의 핵심인 학생 에이전시(student agency)의 개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 에이전시는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와 자기 주도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사회에서 20세기 교육의 틀은 더 이상 학생들이 미래에 직면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¹³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갖고 스스로 계획을 세우며,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으며, 자신이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믿음과 책임감을 갖고 헌신할 수 있는 주체성과 자기 주도성이 필요합니다.



2.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뇌교육의 방향

2004년 설립된 국제뇌교육협회가 2008년 유엔본부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국제뇌교육콘퍼런스에서 이승헌 협회장은 “뇌교육은 평화를 실천하는 도구와 방법”이라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뇌교육(Brain Education)’은 인간 뇌의 올바른 활용과 계발을 다루는 새로운 융합 학문이자 인간 내적 역량 계발을 통해 의식의 실제적 변화를 일으키는 실천적 영역으로서 과학적 체계화와 학문적 정립이 핵심입니다.

뇌교육 연구기관인 한국뇌과학연구원은 2000년 한국에서 설립 후, 2007년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ECOSOC) 협의지위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3년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2009년 글로벌사이버대학교가 한국 교육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설립되면서 뇌교육 분야의 학사·석사·박사 학위 과정을 처음으로 갖추며 학문화의 체계를 본격화했습니다.

국제뇌교육협회는 이러한 과학적, 학문적 기반을 바탕으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3번째 건강과 웰빙, 4번째 양질의 교육 분야에서 뇌교육을 통한 실질적인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이루는 대안적 모델과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제뇌교육협회의 ‘지속가능발전과 뇌교육’에 관한 자문기관의 전문가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뇌교육의 과학적 배경과 미래 가치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국제뇌교육협회 과학·교육 분야 자문기관	과학 기술	한국뇌과학연구원 Korea Institute of Brain Science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ECOSOC) 협의지위기관 1990년 설립, 한국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가 민간 연구 기관
	교육 학문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University of Brain Education 2003년 설립, 한국 교육부 석·박사 대학원, 뇌교육 학문화 산실 국가 공인 브레인트레이너 발급 기관 글로벌사이버대학교 Global Cyber University 2009년 설립, 한국 교육부 4년제 원격 대학교 뇌교육 특성화 대학

국제뇌교육협회 과학 기술 분야 자문기관

한국뇌과학연구원 Korea Institute of Brain Science

1990년 설립

한국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가 민간 연구기관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ECOSOC) 협의지위기관

양현정 박사는

신경과학 측면에서 명상의 효과, 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일본 도쿄공업대학 생명공학과에서

생명정보(Biological Information)를 전공한 후
학사·석사 과정을 마치고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2010년부터 기초과학 분야의 세계적인 연구소인
이스라엘 와이즈만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다,

2017년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융합생명과학과 교수로 부임했으며,

2018년부터 한국뇌과학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다.



“뇌 활용 연구의 목적은
개인과 사회의 건강 실현에 기여하는 것”

인간의 뇌는 무엇으로 구성될까요? 우리 뇌에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존재합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특별한 구조를 갖고 있고, 미엘린이라 불리는 것으로 신경세포 사이의 전달 구간을 감싸는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게 변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장하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 변화하며, 완전히 어른이 된 이후에도 죽을 때까지 우리가 새로운 것을 학습하게 되면 이 미엘린 구조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자기 계발이 뇌 건강에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엘린 연구는 저에게 중요 연구 분야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이스라엘의 와이즈만연구소에서 이 연구를 주로 했는데, 제가 있던 이스라엘에이란 곳의 특이성은 저에게 다른 것들도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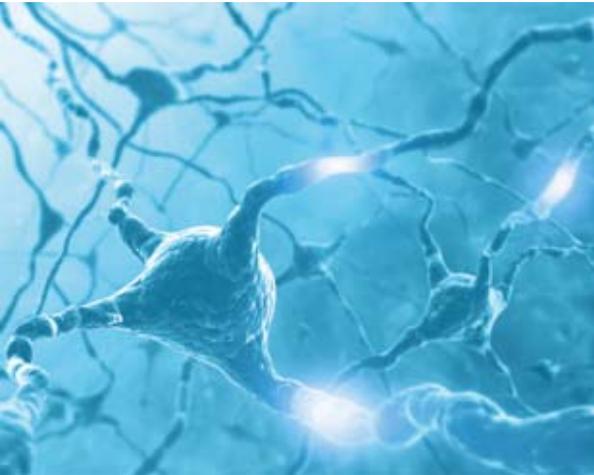
와이즈만이란 곳은 전 세계에서 과학자들이 모여드는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섬나라에서 온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에게 환경오염, 지구환경, 해수면 상승은 자신의 나라에게는 생존의 위기, 생존의 위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우리는 정말 가장 오래 살 수 있는 이 수명 연장 꿈을 이뤄냈음에도 그 연장된 수명이 살 수 있는 지구환경은 점점 악화하고, 사회적인 환경도 악화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대수명이 연장된 동시에 질병 유병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점은 온종일 미엘린만 생각했던 제가 조금 다른 방향의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이 연구를 계속 지속하다 보면 평생 미엘린 연구를 하다가 이 지구를 떠나게 될 텐데, 이 같은 연구를 ‘좀 더 개인을 건강하고 하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연구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말하고 또는 생각한 것을 행동하고, 그것의 산물이 바로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은 바로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뇌를 조금 더 잘 조절하고,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 개인의 건강 그리고 사회의 건강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뇌를 활용하는 연구를 하고, 그런 뇌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곳이 없을까를 고민하며 그런 연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곳이 바로 한국뇌과학연구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뇌를 단순히 생물학적 대상 또는 공학적 대상



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뇌를 활용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듯 뇌를 활용해서 더 건강한 개인과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1990년 한국인체과학연구원으로 출발한 이래 2002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했으며, 2007년 유엔경제사회이사회 협의지위기관을 받은 국제적 기관입니다.

한국뇌과학연구원은 인간 뇌에 대한 근본적인 탐구를 바탕으로 인간의 뇌 기능 회복과 계발이 이뤄질 수 있는 뇌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 심신 수련법과 현대 뇌과학을 융합해 체계화한 뇌파진동명상인 이른바 'K-명상'을 개발했으며, 뇌교육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와 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우리 뇌에서 찾는 방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 결과들이 국제 학술지에 게재됐는데, 그 중 2018년 한국뇌과학연구원이 공동 연구에 참여해 《Mindfulness》란 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일반 사람들과 장기간 명상을 수행한 사람들의 뇌를 조사했는데, 우리가 뇌섬엽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배고픈지, 행복한지 나의 주관적 상태를 자신에게 제시하고 알려주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뇌섬엽이란 부분이 이런 정보를 제시하려면 뇌섬엽은 다른 뇌의 영역과 긴밀하게 연결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에서 명상군에서 컨트롤군보다 이 뇌섬엽의 기능적 연결성이 더 증가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시사하는 바는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명상을 하면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뇌파진동명상을 포함한 모든 뇌교육적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메커니즘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한 가지는 의식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뇌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렇게 신경계가 먼저 변화한 다음에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상향(Top down)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원리는 우리 신경계가 면역계, 순환계, 근골격계 모든 몸의 시스템과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먼저 신체 움직임을 통해서 몸 시스템의 변화를 일으킨 다음에 그것이 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향(Bottom up)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몸 시스템에 선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브레인 명상에 의해 몸과 마음의 양방향 단련을 통한 심신이 건강한 장생 시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평균수명과 기대수명이 점점 연장되고 있는데 그것과 같이 따라오는 별로 반갑지 않은 친구인 질병 유병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뇌과학연구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 뇌에 대한 근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뇌 활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뇌 활용 프로그램은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또는 인공지능 기반 헬스 케어로, 뉴로피드백으로, 인지 치료로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뇌에 관한 생물학적 기전을 연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질병을 예방하고 현재적 증상을 개선하고 치료해서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개인 및 국가의 의료비 감소, 그리고 뇌의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개인을 만들고 또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한국뇌과학연구원의 비전과 미션입니다.

국제뇌교육협회 교육 학문 분야 자문기관

글로벌사이버대학교 Global Cyber University

2009년 설립

한국 교육부 4년제 원격 대학교

뇌교육 특성화 대학

장래혁 교수는 KIST-한양대학원

학연 협동 과정으로 석사, 박사 학위를 수료했다.

2002년 생명공학 분야 벤처기업에서 유전자 추출 장비 연구 개발에 참여했고,

2004년부터 한국뇌과학연구원에서

11년간 선임·수석연구원으로 재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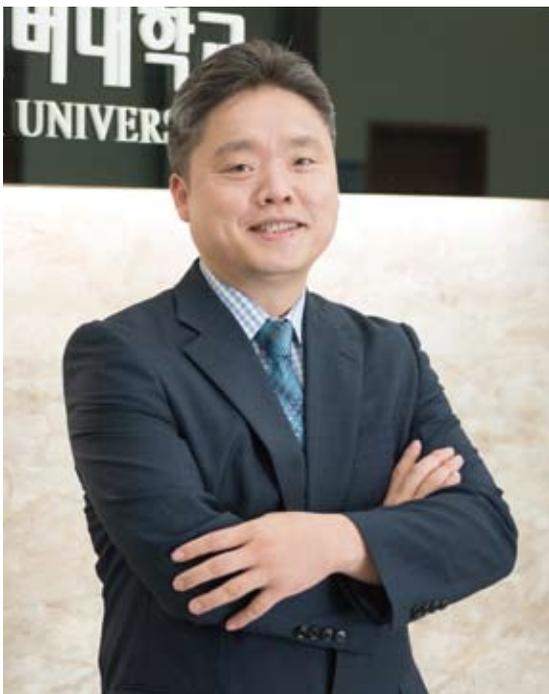
2016년부터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뇌교육융합학과 교수 및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06년 창간된 한국에서 유일한

뇌교육 전문지 《브레인》의 편집장을 맡고 있다.



“뇌교육은 자신의 뇌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내적 역량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휴먼테크놀러지”

인간의 뇌는 유전적 설계도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변화하는 고등 생명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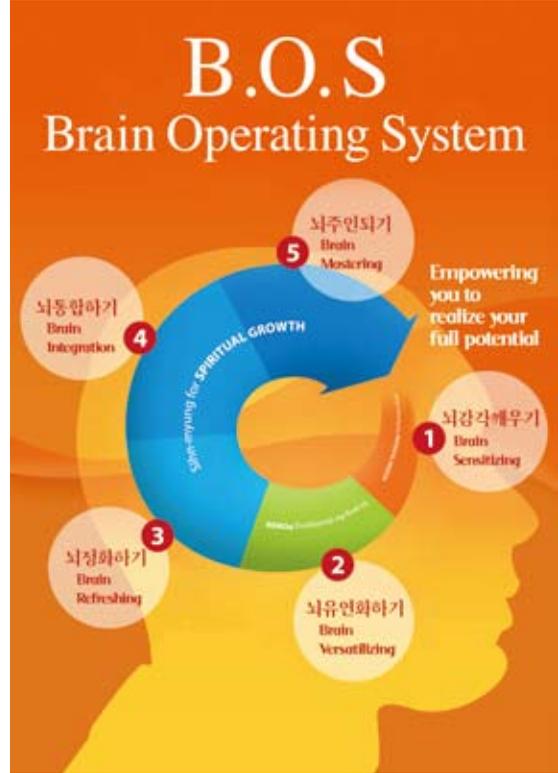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걷고, 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먹이를 찾아 다닐 만큼 성장하지만,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은 오랜 시간이 지나야 가능해집니다. 동물은 부모 뇌 기능의 대부분을 갖고 태어나지만, 인간은 태어난 이후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두뇌가 발달하는 특별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기체의 총 사령탑인 인간의 뇌는 지구상 그 어떤 생명체보다 ‘뇌는 훈련하면 변화한다’라는 ‘신경가소성(neuroplasticity)’의 원리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존재입니다. 태어나는 순간 300~400g에 불과한 태아의 뇌는 약 12세가 되면 3~4배까지 증가하는 지구상 생명체 중에 인간이 가진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뇌를 가진 다른 척추동물들은 시간이 흘러도 주변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오진 않지만, 인간은 머릿속에 떠올린 상상을 현실로 이뤄내는 창조적 능력으로 인해 시간의 흐름 자체가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교육’이 중요합니다.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학습’은 인간 뇌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며, 과거와 미래를 넘나드는 상상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로 대표되는 내면 탐색 등 인간의 고등 정신 능력은 21세기 인류가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내적 역량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토록 놀라운 인간 뇌를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뇌를 제대로 운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핵심은 인간 ‘마음기체’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교육과 생활 속에서 적용 가능한 기술일 것입니다. ‘현재’는 인간 개개인의 의식이 투영돼 만들어진 결과이며, 누구나 가진 뇌의 잠재성을 창조하고자 하는 그 마음기체가 만들어내는 의식이 결국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육(Education)’이란 인간의 마음기체를 변화시키는 인류 사회의 보편적 체계로서 철학, 원리, 방법을 가져야 합니다. ‘뇌교육(Brain Education)’은 인간 의식의 확장과 진화라는 관점에서 글로벌 휴먼 정신인 고대 한국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弘益人間)’ 평화 철학이 갖는 ‘방향성’, 언어와 인종, 지식의 수준과 상관없이 뇌를 가진 누구나에게 적용되는 두뇌 발달 원리 체계의 ‘보편성’, 뇌의 실제적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하는 체험적 방법론이 갖는 ‘효과성’을 갖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정보를 입력 받아 처리해서, 출력하는 이른바 '정보처리 기관'인 뇌 차원에서 IT(정보기술)에 바탕을 둔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은 '정보' 자체가 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시대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적으로 뇌가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 자체가 과거에 비해 수백 배 증가했고, 어린 시절부터 스크린으로부터 정보를 뇌에 입력받는 것이 익숙해진 인류 첫 세대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뇌는 바깥으로부터 정보를 입력 받아 처리해서, 출력하는 일종의 정보처리 기관으로, 인간의 의식 상태에 따라 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처리 양상이 달라집니다. 반대하고 자극적인 정보 입력을 오랫동안, 수동적으로 받게 된다면 그 뇌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뇌를 계발하는 목적과 방향성을 상실한 뇌를 가진 시민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나'라는 정체성이 약화된 채 외부의 정보에 종속된 인간은 과연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정보는 뇌의 활동에 의해 형성되고 축적되고 활용됩니다. 정보의 양이 많고 커질수록 사람들은 정보에 종속되고 수동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기주도성은 약해집니다. 결국 뇌 속에 담긴 정보의 질과 양이 그 사람의 행동과 사고를 결정짓는 열쇠가 될 것이며, 좋은 뇌 상태를 만드는 훈련과 습관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뇌교육에서 뇌는 움직이는 핵심 기제를 '정보'로 개념화 합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뇌에 있는 정보의 질과 양에 따라 결정되며 뇌에 나쁜 정보가 많고 뇌가 부정적인 정보를 계속 만들어낼수록 멘탈헬스 상태는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인간의 가치 하락은 결국 뇌가 잘 작동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고, 인지, 감성, 신호 전달, 육체적 행동의 문제들이 생긴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고력 및 집중력 장애, 감정 기복, 수면 장애 등의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뇌교육(Brain Education)'은 신체와 뇌의 상호 관계 속에서 신체적 자신감, 감정 조절 향상을 바탕으로 의식의 확장성을 이끌어내는 훈련을 통해, 뇌를 움직이는 열쇠인 '정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이른바 '정보처리 기술'이자 인간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과정 혹은 방법이라는 교육의 본래 목적 달성을 위한 휴먼 테크놀로지(HT)입니다.

뇌교육은 개인이 자신의 뇌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내적 역량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융합 학문입니다.

3. 뇌교육 기반 미래형 학교, 벤자민인성영재학교

기후변화와 자원 고갈로 인한 지구생태계의 끊임없는 위협, 그리고 인공지능과 경쟁 혹은 협력하면서 살아가야 할 미래 세대에 게 필요한 양질의 교육은 지식 습득을 넘어 인간 고유의 역량인 능동성과 자기 주도성을 키울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을 바탕으로 사회와 인류에 기여하고자 하는 책임감을 키울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동안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곳이었던 대학에도 물리적 캠퍼스의 틀을 깨는 거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버드대학을 뛰어넘는 경쟁률과 캠퍼스 없는 미래형 대학으로 미네르바스쿨이 주목받고 있고, MOOC(무크)와 같은 온라인 무료 강의 플랫폼을 통해 강의를 제공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청소년들의 자기 주도성을 계발하기 위한 대안적 교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14년 이승헌 국제뇌교육협회장에 의해 한국 최초의 완전 자유학년제 고교인 벤자민인성영재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래 세대를 위한 양질의 교육이 계발해야 할 핵심인 자기 주도성 향상을 위해 벤자민인성영재학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뇌교육 기반의 혁신적 교육 환경과 교육 모델을 소개합니다.





❏ 5無 학교, 시간-공간 제약 없는 프로젝트형 교육 모델

벤자민인성영재학교는 미국의 존경 받는 정치가이자 인격 완성의 실천적 삶을 산 벤자민 프랭클린을 모델로 한 미래형 고교로 학교 건물, 시험, 성적표, 교과 담당 교사, 교과 수업이 없는 이른바 ‘5無 학교’라는 특별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온라인 스쿨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일반 교과를 배우지 않고, 미래 세대가 갖춰야 할 보편적 소양 과목들을 선정하고 사이버대학 수준의 LMS(학사 관리 시스템)를 통해 7개 과목, 100시간 온라인 교육과 화상 토론으로 이뤄집니다. 전국적으로 지역 학습관 체계로 운영하며, 기본적으로 각자 집에서 생활합니다. 1주일에 1회 지역 학습관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갖고, 1회는 온라인 모임을 갖습니다. 매달 1회, 1박 2일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1년간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하는 ‘벤자민프로젝트’가 핵심이며, 주체성과 자기 주도적 역량을 키우도록 도와주며 프로젝트에 적합한 멘토를 선정합니다. 또한 한 달에 1번씩, 1박 2일 워크숍을 통해 내적 역량을 높이는 체험형 훈련을 진행합니다.

‘5無 시스템’과 ‘벤자민프로젝트’는 개인이 가진 저마다의 두뇌 잠재성을 가능한 ‘스스로’ 이끌어내기 위한 훈련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가 원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의 핵심은 ‘문제 해결력’과 ‘자기 주도성’이며, 이 역량은 스스로 문제를 제시하고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길러지기 때문입니다.

이 학교의 혁신적인 교육 모델은 2014년 설립 첫해 27명으로 시작해, 현재는 수백 명 규모로 확대돼 한국에서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 일본에도 설립됐습니다.

❏ 뇌교육 B.O.S 법칙 적용, 인간 내재적 역량 개발에 초점

벤자민인성영재학교 학생들이 보여주는 놀라운 변화의 핵심은 ‘5無 학교’라는 파격적인 교육 환경에만 있지 않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이러한 환경이 주어졌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은 아니며, 많은 학생이 기존의 틀과 부정적 습관에서 실제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자유가 주어졌을 때 자율성과 창조성을 발휘하는 데에는 남다른 내재적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벤자민인성영재학교는 ‘뇌교육’을 기반으로 철학, 원리, 방법론에 기반한 교육 모델을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의 명칭에 설립 목적을 반영했습니다. 인격 완성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벤자민 프랭클린’을 성장 모델로 선정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성’과 저마다의 재능을 꽃피우도록 하는 ‘인성영재’라는 새로운 인재상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지구시민학교’가 학교의 방향성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실제 ‘인성영재’와 ‘지구시민학교’는 단순한 표어가 아닌 학교의 모든 과정에 녹아 들어가 지구시민리더 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의 커다란 방향 속에서 글로벌 교육 트렌드로 제시된 ‘세계시민교육’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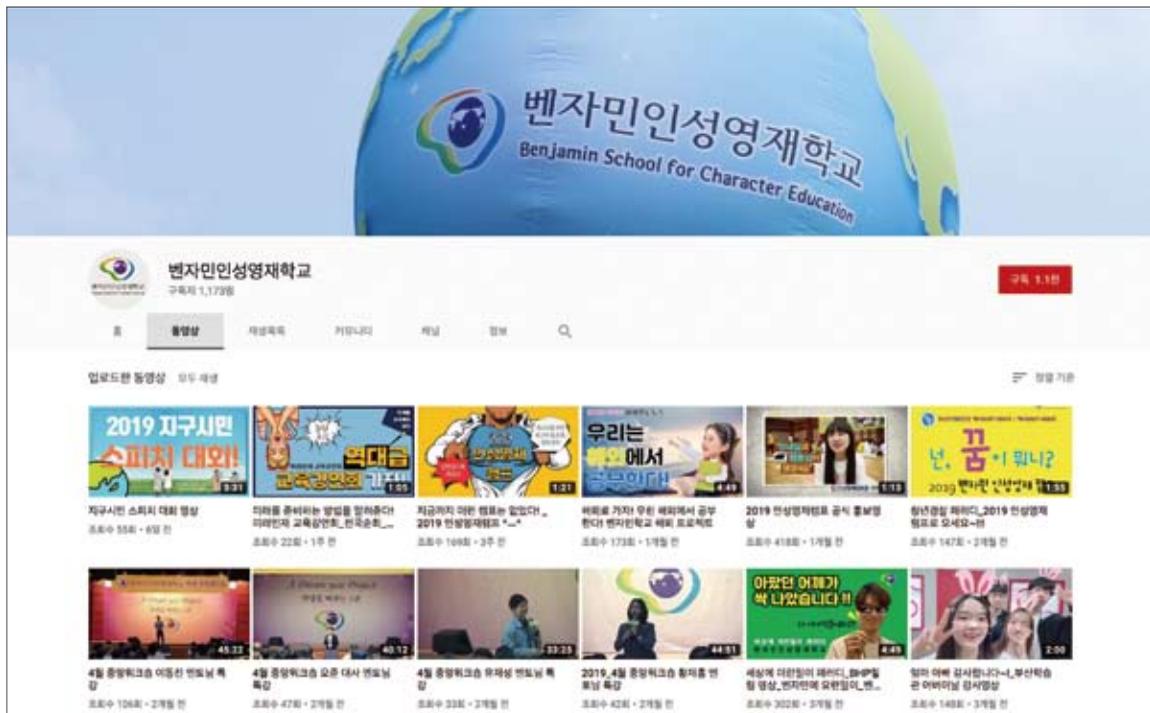




실천적 방법으로 체득화하고 있습니다.

‘벤자민프로젝트’를 위해 필요한 집중력, 인내력, 책임감, 포용력, 창의력 5가지를 학교의 핵심 덕목으로 선정하고 매주 1회, 월 1박 2일 워크숍을 통해 뇌교육의 핵심 원리인 B.O.S 법칙을 체득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1년간 자신의 신체를 최대한 조절할 수 있도록 졸업 때까지 12단 프로그램을 통해 물구나무 50걸음을 훈련하며, 고대 한국의 국가 인재 교육 방식이던 심신 단련과 호연지기를 전통의 국학기공과 명상 훈련을 통해 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벤자민 학생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유되고 있으며, 누적 조회수 30만 뷰에 달하는 인기 채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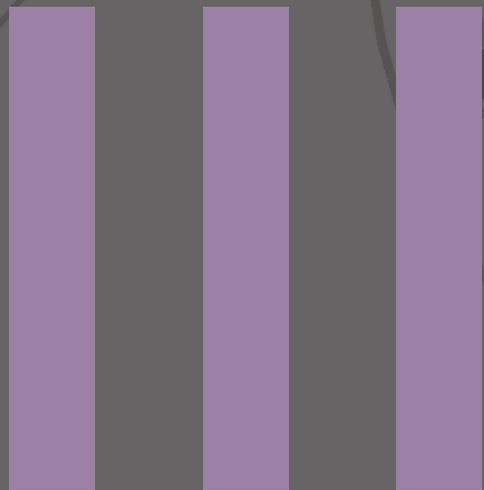
벤자민인성영재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국제뇌교육협회 이해관계자

보고 이슈 선정을 위한 중요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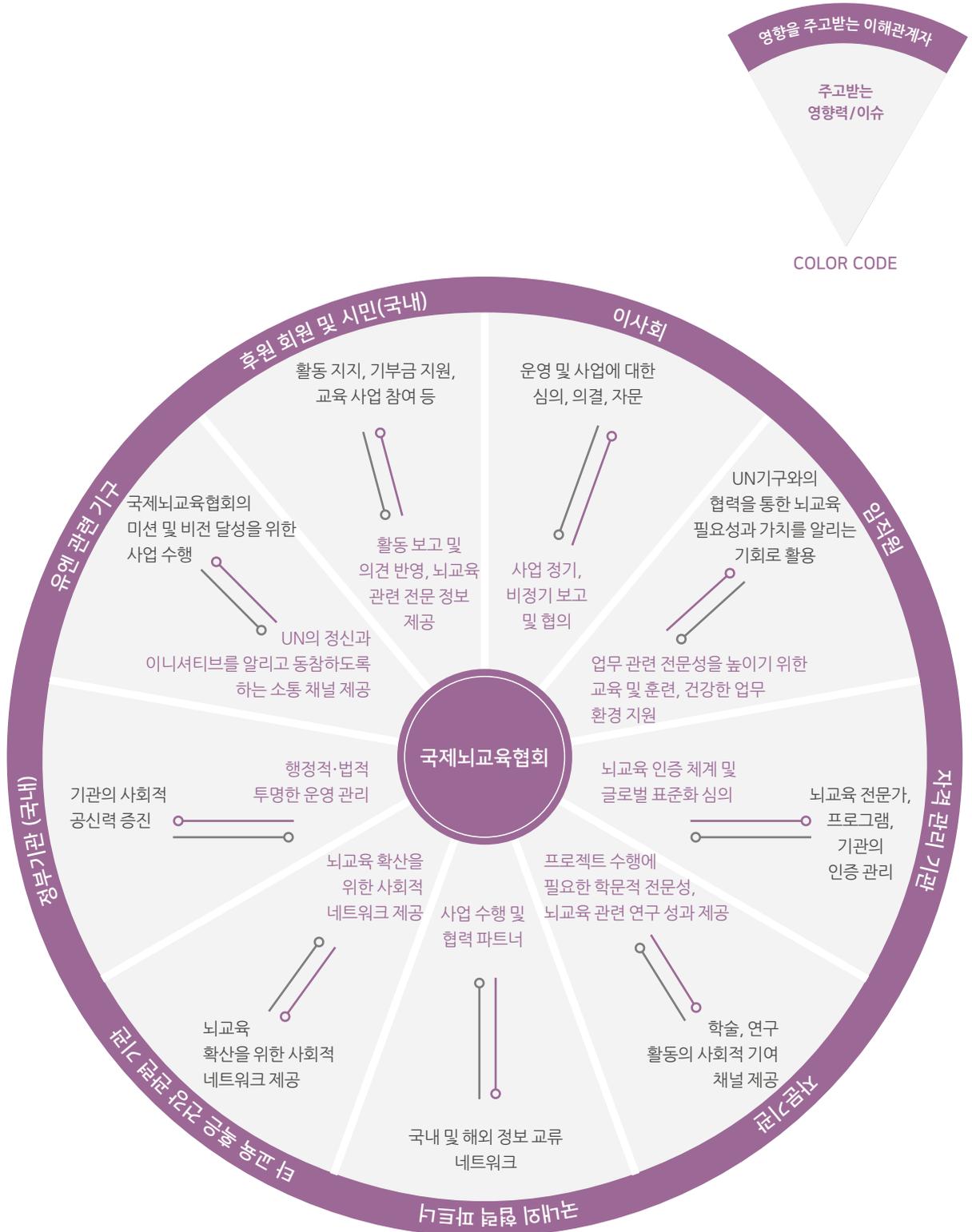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1. 국제뇌교육협회 이해관계자

국제뇌교육협회는 뇌교육과 관련해 다양한 영역별 기관들의 전문성 협력과 사회적 융합 사례들을 제시하는 글로벌 협의체입니다. 국제뇌교육협회의 핵심 이해관계자들은 뇌교육이 보급돼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으며,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한 기관들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영국을 포함한 유럽 6개국, 그리고 중동의 카타르에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 2년간의 변화를 업데이트해 타 교육 혹은 건강 관련 기관과 국내 정부기관을 추가했습니다. 뇌교육의 국제사회 인식 증대와 보급이 진전됨에 따라 타분야와의 융합 및 협력 기회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1> 국제뇌교육협회 외부 이해관계자 그룹

이해관계자 그룹		
후원 회원 및 시민 (국내)		
자격 관리 기관		(유)국제뇌교육협회인증원, 브레인트레이너검정사무국
자문기관	연구·학술 기관	(재)한국뇌과학연구원,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사)국학원, 국제뇌교육학회
국내 협력 파트너	교·강사 훈련 및 활동 지원 NGO	(사)청소년멘탈헬스인성교육협회, 각 지역 뇌교육협회, 브레인트레이너협회, 지구시민운동연합, (사)한국뇌교육원, (사)대한국학기공협회
	뇌교육 전문 교육 기업	(주)HSP컨설팅유답, (주)BR뇌교육, (주)키즈뇌교육, (주)단월드, 브레인트레이닝상담센터, (주)브레인월드코리아, (주)한문화멀티미디어, (주)명상여행사
해외 협력 파트너	교·강사 훈련 및 활동 지원 NGO	Earth Citizens Organization(ECO), Change Your Energy Foundation, IBREA Foundation
	뇌교육 전문 교육 기업	Body & Brain Centers, Brain Power Wellness, Power Brain Education, 유다(U-DAP Solution China), Ilchi Brain Yoga, Ilchi Brain Up, Brain Education Middle East, Power Brain Wellbeing, ChangeYourEnergy.com
타 교육 혹은 건강 관련 기관		
정부기관(국내)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유엔 관련 기구		유엔공보국(UN-DPI),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유네스코(UNESCO) 등



<표2> 국제뇌교육협회와 이해관계자 간 주고받는 영향력/이슈



2. 보고 이슈 선정을 위한 중요성 분석

한국의 뇌교육 이해관계자 기관들은 매월 자문 협력 위원회 정기회의를 통해, 해외 기관들과는 월 혹은 격월 1회로 화상 회의를 통해 각 기관들의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사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뇌교육이 처음 시작된 한국에서는 건강과 교육 영역을 중심으로 후원 회원 및 시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매체 운영도 활발합니다. 뇌교육 전문지 《브레인》의 온라인 웹사이트 <브레인미디어>에는 지난 2년간 1500여 건의 뇌교육 관련 기사들이 제공됐고 조회수가 500만 뷰에 이르렀습니다. 매체 기사는 한국의 공공·대학도서관 650개에 디지털 잡지로 제공되며, 포털사이트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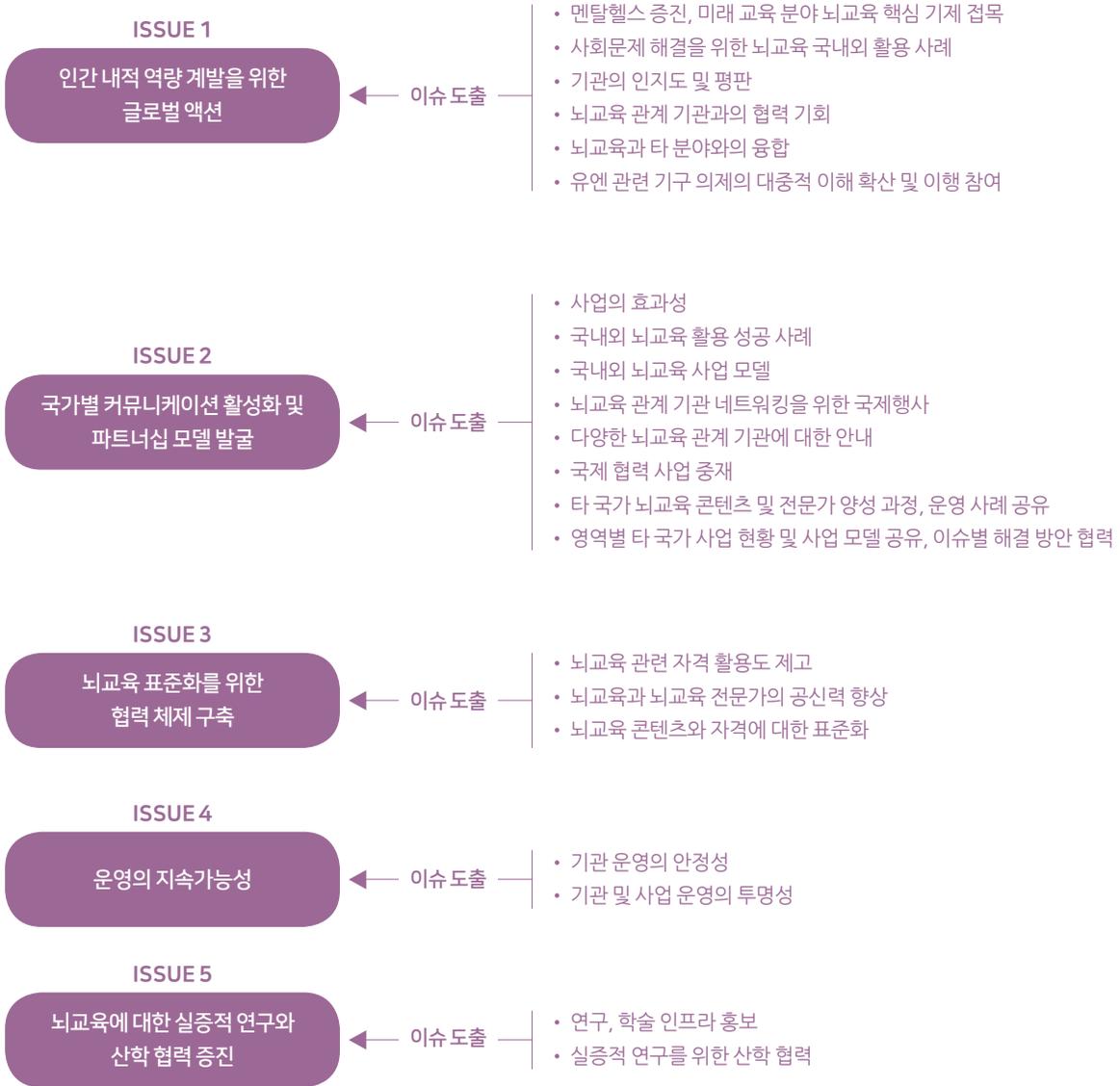
2017~2018년 2년간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난 이해관계자 그룹별 주요 관심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3> 이해관계자 그룹 별 주요 관심사

이해관계자 그룹		커뮤니케이션 채널	주요 관심사
후원 회원 및 시민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뇌교육 전문지 《브레인》 • 온라인 미디어 <브레인미디어> • 기관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뇌 건강 및 미래 교육의 방향, 트렌드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뇌교육 활용 사례
이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의 인지도 및 평판 • 사업의 효과성 • 기관 운영의 안정성
임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효과성 • 기관 운영의 안정성
자격 관리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뇌교육과 뇌교육 전문가의 공신력 향상 • 기관의 인지도 및 평판
자문기관	연구·학술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 뇌교육 전문지 《브레인》 • 온라인 미디어 <브레인미디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학술 인프라 홍보 • 실증적 연구를 위한 산학 협력

국내 협력 파트너	교·강사 훈련 및 활동 지원 NG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 뇌교육 전문지 《브레인》 • 온라인 미디어 <브레인미디어> • 기관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뇌교육과 뇌교육 전문가의 공신력 향상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뇌교육 활용 사례 • 뇌교육 관계 기관 네트워킹을 위한 국제 행사
	뇌교육 전문 교육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 뇌교육 전문지 《브레인》 • 온라인 미디어 <브레인미디어> • 기관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뇌교육 사업 모델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뇌교육 활용 사례 • 뇌교육 전문가의 공신력 향상 • 다양한 뇌교육 관계 기관에 대한 안내 • 뇌교육 콘텐츠와 자격에 대한 표준화 • 뇌교육에 대한 실증적 연구 산학 협력 • 국제 협력 사업 중재 • 뇌교육 관계 기관 네트워킹을 위한 국제행사
해외 협력 파트너	교·강사 훈련 및 활동 지원 NG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 이메일 • 국제 행사 • 소셜미디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국가 뇌교육 콘텐츠 및 전문가 양성 과정, 운영 사례 공유 • 뇌교육 콘텐츠 및 자격의 표준화 • 뇌교육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위한 국내 학술 연구 기관 협력 • 뇌교육 관계 기관 네트워킹을 위한 국제행사
	뇌교육 전문 교육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 이메일 • 국제 행사 • 소셜미디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역별 타 국가 사업 현황 및 사업 모델 공유, 이슈별 해결 방안 협력 • 뇌교육 관계 기관 네트워킹을 위한 국제행사 • 뇌교육 콘텐츠와 자격에 대한 표준화 • 뇌교육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위한 국내 학술 연구 기관 협력 • 국제협력 사업 중재
타 교육 혹은 건강 관련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뇌교육 전문지 《브레인》 • 온라인 미디어 <브레인미디어> •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뇌교육 관계 기관과의 협력 기회 • 뇌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기관에 대한 안내 • 뇌교육의 실증적 연구, 사례 • 뇌교육과 타 분야와의 융합
국내 정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결산 및 예산 보고 • 기부금 활용 실적 보고 • 기관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및 사업 운영의 투명성
유엔 관련 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 • 참여 보고서 • 뇌교육 전문지 《브레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 관련 기구 의제의 대중적 이해 확산 및 이행 참여

국제뇌교육협회는 이해관계자의 주요 관심사를 <표 4>와 같이 5개의 범주로 분류해 협회의 미션에 부합하는 용어에 맞게 주요 이슈로 재정리했습니다.



이러 주요 이슈들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인식하는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 핵심 이해관계자 기관의 대표 및 실무 책임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현장과 본사 간의 인식 차이를 고려해 국내 기관들의 경우 지역 거점의 책임자 인터뷰가 함께 이뤄졌습니다. 2015~2016년 보고서에서는 국제뇌교육협회 이해관계자 대상 비대면 설문조사를 통해 보고 이슈를 선정했으나, 국제뇌교육협회의 고유 미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에 맞게 관리가 필요한 이슈들을 도출하기 위해 대면 인터뷰를 선택했습니다.



인터뷰 기간
2019년 3월 11일 ~ 4월 5일



인터뷰 참가 기관
국내: 전국 19개 기관 본사 및 지역 거점 대표 혹은 실무 책임자
해외: 중국, 일본, 미국 3개국, 6개 기관 대표 혹은 실무 책임자

이해관계자별 주요 커뮤니케이션 채널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파악된 이해관계자 관심도, 그리고 기관의 미션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국제뇌교육협회에 미치는 영향의 관점에서 임직원이 평가한 우선순위,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 주요 이슈의 중요도를 다음 그림과 같이 도출했습니다.

<그림 1> 주요 이슈 중요도 매트릭스



기관 운영의 안정성이나 투명성 이슈는 이해관계자의 관심은 적으나 국제뇌교육협회 기관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독립적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한편, 뇌교육에 대한 실증적 연구와 산학 협력 증진 이슈는 2015~2016년 보고서 설문조사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이해관계자들의 관심도가 높은 이슈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슈는 별도로 관리하기보다 뇌교육 표준화의 관점에서 통합 관리가 필요해 우선순위에 있어 이번 보고서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2017~2018년 《국제뇌교육협회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최종 보고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ISSUE 1

인간 내적
역량 계발을 위한
글로벌 액션

ISSUE 2

국가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및 파트너십
모델 발굴

ISSUE 3

뇌교육 표준화를
위한
협력 체제 구축

ISSUE 4

운영의 지속가능성

INTERVIEW

《지속가능성보고서 2019》의 보고 이슈 선정을 위해 진행한 심층 인터뷰 중 국내외 뇌교육 기관 간 정보 교류와 국제 교류 행사의 방향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소개합니다. 2018년 10월 한국에서 열린 '2018 뇌교육 국제포럼'은 그 노력의 결실로, 이러한 국제 교류 행사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제안이 많았습니다.



“뇌교육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직접 들을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단지 각 나라가 처한 상황이 다르다 보니, 현실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주제를 세분화해서 당면한 공동의 이슈를 놓고 심도 있는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성적 위주의 교육 풍토에서 학부모들에게 뇌교육이 지향하는 인성교육으로 어떻게 끌어당길까 하는 문제는 한·중·일 모두 상황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 유다(U-DAP Solution China), 줄리 묘(Julie Miao) 대표



“IBREA-Japan에서 해마다 열었던 글로벌 멘탈헬스 세미나가 올해로 6회째입니다. 올해는 학교교육, 기업교육, 치매 예방 세 분야에서 뇌교육 전문 강사들의 활동 지원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그동안 축적해온 연구 성과나 교육 프로그램 공유, 교육 운영 컨설팅을 위해 좀 더 긴밀하게 협조해 나갔으면 합니다.”

- 일본뇌교육협회(IBREA-Japan), 다나카유카리(田中ゆかり) 협회장



“단월드는 뇌교육의 지난 35년 역사 속에서 뇌교육을 국제사회에 확산하기 위한 동력으로 인재 양성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동안 뇌교육 세계화 사례들이 주로 아동·청소년 교육 부문에 집중돼 있어 그 성과를 체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8 뇌교육 국제포럼'에 참석하면서 단월드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좀 더 명확하게 다가왔습니다.”

- (주)단월드, 박성현 홍보팀장



“2018 뇌교육 국제포럼'에 학부모님 몇 분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지방에 있다 보니 큰 시야를 갖기 힘든데 뇌교육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요즘은 학부모님들도 아이들을 위해 명상에 관심이 있어 지점을 방문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EBS 다큐멘터리에 나온 것처럼, 국내외에서 아동·청소년의 뇌교육 명상 사례들을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 (주)BR뇌교육, 이태연 국장



“2018 뇌교육 국제포럼'은 뇌교육 관계 기관의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첫 행사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온라인 소통 방식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교사들에게 있어 '국제 교류'는 매우 활발한 영역입니다. 한·미·일 간 교사 교류가 더욱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이 지향해야 할 철학, 교육자로서의 사명 등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교육운동'으로 발전해갔으면 합니다.”

- (사)한국뇌교육원, 김수정 수석팀장

인간 내적 역량 계발을 위한 글로벌 액션

일본: 인간력 향상을 통한 멘탈헬스 케어
글로벌 멘탈헬스 세미나

경과

2017년 제4회 글로벌 멘탈헬스 세미나

2018년 제5회 글로벌 멘탈헬스 세미나

유럽: 뇌 활용을 통한 통합적 건강 관리
2018 뇌교육 국제 콘퍼런스

유럽 국가별 건강 트렌드와 뇌교육

[COLUMN] 장-뇌 커넥션이 현대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

뇌교육 미디어 액션

뇌교육 다큐멘터리 제작 방영

뇌교육 전문 매체 기반 정보 확산

VIEW

인간 내적 역량 계발을 위한 글로벌 액션

📍 주요 이해관계자

- 국제뇌교육협회 혹은 일본 지부인 일본뇌교육협회에서 주최하는 행사 참가자
- 국제뇌교육협회가 지원 협력하는 행사 참가자와 행사 주최 기관
- 후원 회원 및 일반 시민

📍 국제뇌교육협회의 접근 방법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인권의 기준으로, 이후 여러 국가의 헌법과 법제도에 반영돼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제 25조 1항은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에는 음식, 입을 옷, 주거, 의료,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사회 서비스 등을 누릴 권리가 포함된다’고 선언하며 건강에 대한 권리 또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권으로서의 건강에 대한 권리는 기본적인 건강 서비스를 넘어 교육, 주거, 음식, 건강한 근무 환경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2030 의제’에는 육체적 건강과 더불어 멘탈헬스 증진과 웰빙을 위한 포괄적 관리까지 확장돼 있습니다.

그동안 멘탈헬스 증진을 위한 뇌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질한 치료법 개발과 사업화는 활발하게 이뤄져왔지만, 개개인이 외적인 약물과 도구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이 가진 내적 역량을 이끌어내는 실제적인 방법에 관한 사회적 담론 형성과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은 더딘 편입니다. 더구나 새로운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기 힘든 21세기를 살아갈 청소년들에게는 건강한 자아 정체성과 자기 효능감을 발달시킬 수 있는 학습 환경의 조성이 시급합니다.

국제뇌교육협회는 지난 2년간 일본뇌교육협회 및 유럽의 핵심 이해관계자 기관들과 함께 전 연령의 내적 역량을 계발하는 실제적인 방법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그 활용법을 통해 멘탈헬스 증진에 기여한 다양한 사례들을 확산해왔습니다.

📍 관리 프로세스

국제뇌교육협회는 국내외 핵심 이해관계 기관이 위치한 사회가 당연한 이슈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뇌교육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대중적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키워드를 선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는 사업을 독자적으로 혹은 협력 사업으로 수행하며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한 뇌교육의 활용도를 높이고 해당 지역에 뇌교육을 접할 수 있는 물리적 거점들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보고 이슈와 지속가능발전목표 연계



인간 내적 역량

원하는 변화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인간이 가진 다양한 능력 중에서 성공적 수행과 성과에 이르게 하는 내재적 특성으로 그러한 행동을 일으키는 동기, 태도, 가치관, 자아의식 등 개인의 행동적, 심리적 요인을 망라한다. '나는 누구인가'로 대표되는 내면탐색을 비롯해 정신적 회복탄력성, 인내와 용기, 자기주도성과 사명감, 영감과 통찰 등이 인간 내적 역량에 포함된다.

1. 일본: 인간력 향상을 통한 멘탈헬스케어 글로벌 멘탈헬스 세미나

일본뇌교육협회(IBREA-Japan)는 1997년부터 활동을 시작해 2007년 1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으로 등록된 후 학교, 기업, 관공서, 문화센터, 양로원, 공원 등에서 뇌교육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국제뇌교육협회 일본 지부로 지구촌 사람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목표로 뇌의 무한한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다양한 뇌 활용법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 대상 스트레스 검사를 의무화하는 ‘멘탈헬스법’ 시행 등 일본에서 멘탈헬스에 관심이 고조되던 2014년부터 해마다 ‘글로벌 멘탈헬스 세미나’를 개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과

2014년, 제1회 글로벌 멘탈헬스 세미나

“성인과 아동의 멘탈헬스 키워드는 뇌”

11월 8일 도쿄대학 11월 9일 교토대학 700명

시의원, 교육위원회 관계자, 기업 CEO 등 오피니언 리더 그룹을 비롯해 일반 시민까지 700여 명이 참석해 멘탈헬스에 대한 일본 사회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체 활동을 통한 멘탈헬스 관리 성공 사례 확산에 중점을 뒀습니다. 코난여자대학 간호 재활학부(甲南女子大学 看護リハビリテーション学部)의 세토 노리코(瀬藤乃理子) 교수는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명상을 활용한 사례를 발표했고, 신경정신심요내과(精神・神経・心療内科)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카야마 요시히로(中山義博) 씨는 ‘정신과 병원에서의 뇌체조 실천 보고: 신체심리학적 접근법으로’라는 주제로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2015년, 제2회 글로벌 멘탈헬스 세미나

“스트레스 케어에서부터 자기 가치 창조까지”

11월 21일 나고야대학 11월 23일 도쿄대학 1000명

직장 및 학교에서의 멘탈헬스 케어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내용을 다뤘습니다. 특히 청소년 멘탈헬스 분야에서는 뇌교육 기반 미래형 고등학교로 새로운 교육 모델을 성공시키고 있는 한국의 벤자민인성영재학교 김나옥 교장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김나옥 교장은 기존 학교의 틀을 없앤 교육 환경 속에서 자신의 꿈을 찾아 도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가치 실현을 위해 뇌를 활용하도록 하는 벤자민학교의 독특한 교육 시스템과 청소년들의 성장 스토리를 소개했습니다.



2016년, 제3회 글로벌 멘탈헬스 세미나

“뇌교육을 통한 성인과 아동의 멘탈헬스케어”

9월 11일 오사카대학 11월 12일 도쿄대학  650명

과학적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장과 뇌 건강 관계에 주목해 국립연구개발법인 이화학 연구소의 벤노 의기(辨野義己)박사와 후지타 고이치로(藤田 紘一郎) 도쿄의과치과대학 명예교수의 특별 강연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본에서 잘 알려진 장·뇌 분야의 전문가로 식습관 개선과 운동, 수면 등 생활 관리로 장 내 환경을 관리함으로써 뇌 건강과 멘탈헬스를 개선할 수 있다는 과학적인 연구들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에서는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뇌교육융합학부의 오창영 교수가 한국고용노동부 및 서울대학병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감정노동 분야 뇌교육 연구 프로젝트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2014년 한국 벤자민인성영재학교가 개교한 후 2015년 개교한 일본 벤자민인성영재학교의 시나가와 레이코 교장이 6개월간의 성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나가와 교장은 학생들의 자기 표현력과 소통 능력이 향상됐다면서 “벤자민학교가 목표로 하는 내면이나 인간성의 성장이 눈에 보이지 않고 간단하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실천하거나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는 것으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인간적으로도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2017년 제4회 글로벌 멘탈헬스 세미나

주제_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멘탈헬스 케어: 인간력을 높이는 뇌교육으로 미래를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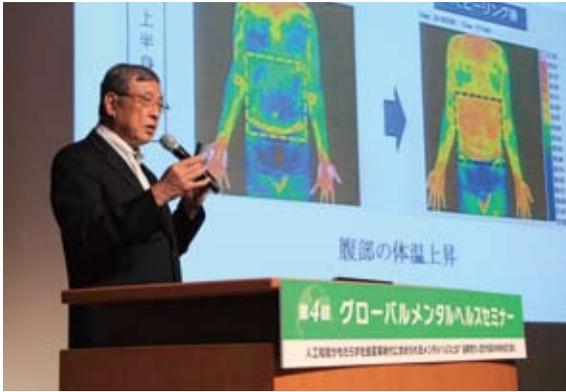
일시_ 8.5 1p.m~5p.m. | 장소_ 교토대학교

참가자_ 510명

 (명)
510

2017~2018년 2년간 세미나의 주제는 일본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 혁신에 의해 일하는 방식이나 직무 내용과 학교 교육이 바뀌고 있는 것을 반영했습니다. 자연과 연결된 존재로서의 인간이 인공지능과 대비되는 인간 고유의 지능과 멘탈헬스 증진을 위한 개발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강연과 사례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멘탈헬스 케어: 인간력을 높이는 뇌교육으로 미래를 연다’는 슬로건 아래 열린 제4회 글로벌 멘탈헬스 세미나에서 한국 초청 강연자로 나선 장래혁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뇌교육융합학부 교수는 ‘인공지능 vs. 자연지능: 인간 뇌의 특별함을 깨우다’를 주제로 정보 과잉의 시대에 멘탈헬스 증진을 위해 발전시켜야 할 인간 고유의 자연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인공지능 발달의 핵심은 정보의 연결성입니다.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인공지능은 이미 인간의 학습, 추론, 직관 등 그동안 인간의 고유한 기능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반면 비판적 사고나 성찰 없이 수동적으로 방대한 정보를 입력만 하는 인간의 뇌는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정보에 대한 종속성이 커집니다.

장래혁 교수는 뇌교육은 '정보처리 기술'로 불린다며, 정보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깨어 있는 의식 상태를 스스로 자각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그 방법으로 에너지 집중명상을 소개했습니다. 외부로 향하는 의식을 내면으로 바꾸는 동시에 인간이 정보 처리 기관으로서의 뇌의 상태를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너지 집중명상은 인체에 흐르는 에너지 감각에 집중함으로써, 외부로 향하는 의식을 내면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심신의 이완과 내면에 집중하는 훈련을 유도하는 것으로, 에너지 집중명상을 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뇌파(EEG)의 변화를 시연해 참석자들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뇌 관계의 권위자인 후지타 고이치로 도쿄의과치과대학 명예교수는 '행복한 뇌는 장이 만든다'를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그는 "장 내 미토콘드리아 활성화를 위해서 장의 온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뇌교육 훈련법으로 한국뇌과학연구원에서 개발한 배꼽힐링이 장의 온도를 높여 뇌 건강과 멘탈헬스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사례 발표로는 일본뇌교육협회 브레인트레이너가 뇌교육을 통해 멘탈헬스를 관리하는 현장 사례로 '임상심리사가 조사한 배꼽 자극이 중·고령자의 기분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와 장애인에게 뇌교육을 도입한 사례로 본 몸과 마음과 뇌의 변화', 'IT 기업의 뇌교육 도입 사례'로 사원을 대상으로 멘탈헬스 관리를 하며 본 스트레스 변화 등을 발표했습니다.

일본뇌교육협회 카와사키 사치코(川崎幸子) 브레인트레이너는 일본의 IT 기업 직원 159명을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방법으로 배꼽힐링을 포함한 뇌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사전, 사후 마음의 상태 변화 설문 조사와 브레인 컨디션을 테스트한 결과,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사람이 83.5%, 집중력이 향상된 사람이 90.5%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브레인트레이너 파견, 뇌교육 강의 및 워크숍 개최 여부 등을 문의했습니다. 기업 경영인은 "젊은이들이 자주 성과 의욕이 부족해 고민했는데, 벤자민 학생들의 발표를 보고 감동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2018년 제5회 글로벌 멘탈헬스 세미나

주제_ 체력, 심력, 뇌력을 잇는 뇌교육

일시_ 8.5 1pm~5pm | 장소_ 아크로스 후쿠오카 국제회의장

참가자_ 200명



일본의 학교교육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 변화에 맞춰 큰 변혁기를 맞고 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학습자 중심, 대화 중심의 지도로 전환해 좀 더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식보다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21년 1월부터 대학입학시험에 기술식 문제를 도입한 ‘대학입학 공통 테스트’가 시행됩니다.

바야흐로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학습하고 행동하는 능동성과 주체성이 청소년들에게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5회 세미나는 ‘체력, 심력, 뇌력을 잇는 뇌교육’이라는 주제로 학교교육에서 능동적 학습자를 기르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와 사례 발표가 이뤄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서울 신상계초등학교의 김진희 교사가 ‘초등학교에서의 뇌교육 적용의 성과: 아이의 체력, 심력, 뇌력의 힘’을 주제로 20여 년간의 뇌교육 도입과 학생들의 변화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김진희 교사는 ‘마음의 지능 지수/자기 조절 능력과 집중력이 향상됐다’는 연구 결과와 함께 자신이 가르친 학생의 체험담을 예로 많이 들면서 “뇌교육은 신체, 정서, 인지를 균형 있게 발달시키고 좋은 행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실천하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뇌교육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담긴 순수함을 발견했다는 스스로의 경험에 대해 언급하며 “모든 아이에게 그 순수함이 있다고 믿을 수 있게, 그것을 끌어내는 것이 교사로서 해야 할 일이다. 또한 교사로서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학생들의 감정 컨트롤과 자신감 향상을 지원하며 진정한 삶의 목적을 발견했다”라고 강조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일본뇌교육협회의 다나카 유카리(田中ゆかり) 씨는 후쿠오카현 이이즈카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진행한 해피브레인스쿨(Happy Brain School) 프로젝트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4학년 학생 35명이 3개월간, 60분의 뇌교육 수업을 총 4회 실시, 뇌체조와 명상을 하루 10분씩 훈련한 결과 체온, 집중력, 자기 긍정감이 향상됐습니다. 또 78%의 학생들이 스스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초조해 하지 않게 됐다고 보고했습니다. 다나카 씨는 “4학년 아동이 ‘나를 스스로 인정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5회 세미나는 큐슈 지방에서 처음 열렸는데 후쿠오카현과 후쿠오카시의 교육위원회가 후원하고 오카야마 등 인근 현에서도 학교 교육 관계들이 참석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성과 평가



뇌교육 전문 교육 시설, 학교 관련 시설, 기업, 문화센터, 고령자 시설 등 700여 곳에서 뇌교육이 실시됐고 지난 3년간 약 5만 명이 뇌교육을 체험했습니다.



학교, 기업, 마을 시설 등에서 뇌교육 체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뇌교육 전문 강사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강사 교육은 뇌교육에 대한 이론 교육과 브레인 체조, 브레인 명상의 실기 교육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장 실습을 통한 역량 강화를 거쳐 강사들이 자발적으로 브레인 체조 클럽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4회 글로벌 멘탈헬스 세미나 전후로 실제 활동하고 있는 강사들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피브레인스쿨 프로젝트 진행 상황

이이즈카시 초등학교에서 3개월간 실시한 해피브레인스쿨 프로젝트의 성과에 주목한 이이즈카시 교육위원회는 제5회 글로벌 멘탈헬스 세미나 이후 1개교에서 추가로 실시했으며, 또 다른 2개교에서 실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이즈카시에서는 시청 직원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뇌교육 연수를 활용하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피브레인시티(Happy Brain City) 만들기’ 포럼 실시

초등학교에서 해피브레인스쿨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을 계기로, IBREA Japan에서는 해당 시를 해피브레인시티로 인증하고 뇌교육을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기여한 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후현 기후시에서 어린이를 비롯해 주부, 고령자, 노인 시설 등 다양한 시민을 대상으로 브레인 체조를 지도하고 있는 강사들을 중심으로, 2018년 11



월 ‘해피브레인 시티 만들기 포럼’을 개최하고 강사들의 활동 발표와 시민들의 의견 청취를 통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를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포럼은 매년 실시하게 되며 나라현 이코마시, 카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등, 일본 15개 도시에서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 유럽: 뇌 활용을 통한 통합적 건강 관리 2018 뇌교육 국제 콘퍼런스

유럽 12개국에서 300여 명 참가, 영국 런던에서 개최
 비약물 치료에 대한 높은 관심, '제2의 뇌' 장 건강 변화에 주목
 장-뇌 커넥션 회복 이끄는 배꼽힐링명상 높은 관심
 이승헌 국제뇌교육협회 협회장 초청 특강 '뇌 활용을 통한 건강의 자급자족'



2002년 런던 외곽에 있는 서레이(Surrey)에 영국의 첫 바디앤브레인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영국에는 6개의 바디앤브레인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그 밖의 커뮤니티센터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아웃리치 클래스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영국에서 뇌교육을 접한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양한 형태로 뇌교육을 알리고 있습니다. 전문 뇌교육 센터를 열기도

하고 피트니스센터에 클래스를 개설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뇌교육을 보급해왔는데, 그 중심에 영국 런던이 있습니다.

센터에는 다양한 니즈를 갖고 방문하지만, 그중에서도 영국 사회의 전체적인 문제와 연결돼 있는 건 '멘탈헬스'입니다. 특히 우울증, 불안 장애, 치매 문제가 가장 큼니다. 영국 사람들은 전문의가 너무 빨리 약을 처방한다고 생각하며, 약에 의존하지 않는 치료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약에 의존하는 멘탈헬스 관리는 의료 복지비에도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러한 접근법이 국민 멘탈헬스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로자의 멘탈헬스 저하로 기업이 지불하는 비용이 매년 최소 330억 파운드, 그리고 멘탈헬스 악화로 직업을 잃는 사람이 매해 30만 명에 이릅니다. 또 하나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유럽 내 직장인들의 결근·휴직 사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유럽인의 20%는 만성 통증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사고로 인한 손상도 있지만 잘못된 자세, 특정한 근육만 지속적으로 사용하거나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는 등 나쁜 생활 습관으로 인한 손상도 많습니다.

영국에도 오래전부터 요가나 명상 수련법이 대중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뇌교육에서 사용하는 한국식 명상에는 장시간 정자세로 앉아 있기 힘들어 하는 현대인들에게 최적화된 동적인 명상법들이 많습니다. 2012년에 런던대와 한국뇌과학연구원이 공동으로 아이엔거 요가, 마인드풀니스명상, 뇌파진동명상의 효과를 비교·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저감 효과는 동일했지만 한국식 명상에서는 우울감과 수면 개선 효과가 탁월하게 높았습니다. 한국식 명상의 또 하나의 특징은 에너지 집중명상으로, 몸에서 느껴지는 열감이나 자력감을 매개로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고 조절하는 훈련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장-뇌 커넥션에 대한 최근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된 배꼽힐링은 2017년 영국에도 소개돼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이전부터 장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높았는데 주로 음식을 통한 건강법 위주여서, 운동으로 장 건강을 관리한다는 것이 아주 신선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자선단체인 체인지유어에너지재단(Change Your Energy Foundation)은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심신 건강의 셀프 케어에 대한 사람들의 자신감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주기적으로 배꼽힐링 워크숍을 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체인지유어에너지재단은 2018년 3월 17일 영국 런던 드럼 앳 웬블리(The Drum at Wembely)에서 '인간, 뇌, 지구'라는 주제로 뇌교육 국제 콘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폴란드, 러시아, 벨기에 등 유럽 12개국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콘퍼런스에는 이승헌 국제뇌교육협회장이 특별 강연자로 초청됐습니다.

배꼽힐링명상은 한국뇌과학연구원에서 개발한 명상법으로, 스스로 몸의 온도를 높이고 건강과 행복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아주 빠른 방법입니다. 국제뇌교육협회는 한국 브레인 트레이너협회와 함께 이 콘퍼런스에 실시간 뇌파 측정 시스템을 지원했습니다. 배꼽힐링명상을 하는 동안의 뇌파 변화를 실시간으로 보여줌으로써, 참가자들은 신체 운동을 통해서 상태에 스스로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승헌 회장은 '뇌 활용을 통한 건강의 자급자족'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뇌교육의 수많은 심신 건강 관리법들은 건강, 행복, 평화를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자신의 뇌에 있다는 것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특히 "과학기술의 발달로 120세 장수 시대를 바라보는 지금, 자신의 뇌가 가진 창조성을 소유와 지배가 아닌 가치 있는 삶을 위해 윤리적으로 활용하는 삶의 주인이 되어 인류의 삶과 자연이 극단적으로 피해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임팩트 평가

이 콘퍼런스에는 영국뿐만 아니라 폴란드, 벨기에, 슬로바키아 등 유럽 12개국에서 3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덴마크, 아일랜드, 라트비아 등 바디앤브레인센터가 없는 곳에서 아웃리치 클래스를 열어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고 있는 전문 강사들도 콘퍼런스 참가를 위해 유럽 뇌교육 확산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런던에 모여 센터 개설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이후 프랑스 파리와 벨기에 데인즈에서는 2018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바디앤브레인센터를 열었습니다. 또한 명상 수련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유럽 전역에 뇌교육 확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 '유럽브레인기공명상협회(Association Des Meditations de Brain Kigong en Europe)'라는 비영리 협회가 설립됐습니다.

유럽 국가별 건강 트렌드와 뇌교육

국제뇌교육협회는 콘퍼런스에 참가한 유럽의 바디앤브레인센터 대표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종합해 ‘멘탈 헬스 시대, 유럽에서의 건강 패러다임의 전환(The Era of Mental Health: A New Health Paradigm in Europe)’을 주제로 한-영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뇌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몸과 뇌가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는 있지만 ‘뇌 활용’의 의미는 낯선 개념이라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뇌 활용의 의미와 방법들을 소개하는 다양한 접근법을 공유하고자 했습니다.

폴란드

폴란드는 냉전 이후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성공적인 전환을 이루고 유럽연합 국가 중 여섯 번째로 큰 경제 규모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그 반면 과도한 산업화 결과 심각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국민 건강 상태도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폴란드에서는 일반적으로 웰빙을 위한 대체의학, 자연 요법, 에너지 힐링, 침 요법 등이 대중화돼 있습니다. 그러나 뇌와 몸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영국에서 뇌교육을 접한 저희는 2016년 폴란드 서부 리브니크시에 바디앤브레인센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방송을 통해 배꼽힐링명상을 소개하고, 장-뇌 커넥션에 대한 책을 폴란드어로 번역하는 등, 뇌교육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의식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폴란드 바디앤브레인센터 알렉산드리아와 피터 메이슨 부부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나라인 만큼 스트레스도 높아졌고, 특히 최근 몇 년간 번아웃(burnout) 현상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비만이나 심장 질환, 소화기 관련 질환 등이 많아졌습니다. 2000년 미국에서 처음 뇌교육을 알게 된 저는 이후 영국 런던에 머물면서 강사 양성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초 슬로바키아 북부 질리나시에 바디앤브레인센터를 열었습니다. 슬로바키아에서는 아직 명상이나 요가에 대해 종교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뇌교육을 ‘행복감이나 평화로움 같은 긍정적인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몸과 뇌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람들은 첫 클래스에 참석하고 나면 몸과 뇌가 서로 연결돼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을 통해 이해하게 됩니다.



슬로바키아 바디앤브레인센터의 안 슬라데크 원장과 회원들

벨기에

10년 전쯤 미국에서 처음 바디앤브레인센터를 통해 뇌교육을 알게 됐고, 뇌교육 강사 과정(Brain Management Training)을 이수하면서 고국으로 돌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뇌교육을 가르치고 싶은 꿈을 갖게 됐습니다. 이후 네덜란드에서 2년 6개월, 고국인 벨기에에서 4년 6개월 정도 아우리치 클래스를 운영하다 2018년에 데인즈 시에 바디앤브레인센터를 열었습니다. 벨기에에는 보편적 의료 시스템이 잘돼 있는 반면 '건강의 자기 관리'라는 개념이 대중화돼 있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뇌교육을 통해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에 대한 자각 능력과 자기 조절 능력을 회복하게 되면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바디앤브레인센터의 카트린 바우치크 원장

프랑스

프랑스는 틱낫한 스님이 설립한 세계적인 명상 공동체 플럼빌리지(Plum Village)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티베트 불교 센터만 140여 개로 이미 오래전부터 요가나 기공, 명상 등 동양에서 온 심신 수련이 좋다는 인식이 대중화돼 있습니다. 일반 서점에 가면 어린이를 위한 명상 관련 서적과 멀티미디어 제품을 위한 판매대가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프티병부(Petit BamBou) 등 명상 앱들도 인기가 많고, 에어프랑스에서도 마인드(Mind)라는 명상 앱과 제휴해 승객들에게 명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바디앤브레인센터의 경호진 원장과 회원들

파리의 바디앤브레인센터는 2018년 9월 문을 열었습니다. 파리에서 뇌교육의 명상에 대해 사람들이 느끼는 매력은 무엇보다 명상을 위한 '이완'의 방법입니다. 전신 조타나 털기 동작, 뇌파진동 등 단순한 진동 수련으로 신체를 빠르게 이완할 수 있어 도시 생활이 주는 스트레스로 인해 몸과 마음이 오랫동안 긴장돼 있던 사람들도 명상의 효과를 느끼기 쉽습니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 이완하기가 힘든데, 팔 털기 동작을 반복해서 하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풀리고, 기운이 느껴지는 명상의 시간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파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명상, 다양한 심신 수련법 등을 단순히 소비하던 소비자에서 이를 본인의 직업으로 삼고 싶어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명상 수련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유럽 전역에 뇌교육 확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 '유럽브레인기공명상협회(Association Des Meditations de Brain Kigong en Europe)'라는 비영리 협회가 설립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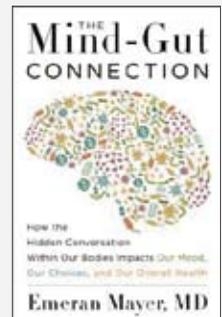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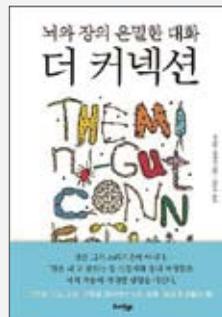
COLUMN



에머런 메이어 교수가 2017년 1월 뉴질랜드에서 열린 뇌교육 국제심포지엄에서 '장-뇌 커넥션이 마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장-뇌 커넥션이 현대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에머런 메이어 교수는 뇌와 장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지난 40년간 뇌와 몸의 상호작용을 연구해왔다. 오픈하이머센터의 스트레스 및 회복력 연구소장과 UCLA 소화기질병연구소의 공동 디렉터를 역임한 메이어 박사는 지난 25년간 미국 국립보건원의 지원을 받아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뇌와 장내 미생물군의 상호작용과 만성적인 내장 통증 분야의 개척자이자 세계적 권위자이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 《The Mind-Gut Connection》이 한국에서 2018년 《더 커넥션》의 제목으로 출간됐다.



“저는 장-뇌 상호작용을 40여 년간 연구해왔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분야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아왔습니다. 소화기 전문의들은 뇌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 그리고 정신과 의사와 신경과학자들은 장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 그런데 미생물학적 발견이 이 분야를 몸과 관련해 관심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제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의학계 최고의 이슈 중 하나가 됐습니다.

인류 사회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과학 연구 분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연결돼 있다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고, 뇌와 장의 연결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커넥톰’이라는 용어는 모든 것이 연결돼 있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장에는 매우 다양한 세포들이 있습니다. 면역세포, 신경세포 등 수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수백 조 개의 미생물이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가장 큰 면역세포는 장에 있으며,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대부분의 호르몬은 장으로부터 나와 뇌로 연결됩니다.

요점은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의 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입니다. 얼굴 표정으로 나타나는 감정들은 장에서도 일어납니다. 장내 세균들과 호르몬 분비, 면역 활성화가 여기에 관여합니다. 만약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것도 장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뇌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감정과 관련한 분야도 많은 연구가 이뤄질 것입니다.

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은 뇌로 보내집니다. 순환계로 가는 정보의 대부분이 장에서 뇌로 가는데, 그 중 90%가 감각적 정보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 미생물들이 왜 거기에 있고, 뇌와 커뮤니케이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입니다.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과 개수가 중요하데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식단과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생각보다 유전적인 요인은 크지 않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 유지가 중요하지만,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의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과 숫자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특정 질병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졌습니다. 똑같은 일이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아시아인들의 식단은 채식 비중이 높았습니다. 오늘날처럼 고기와 지방, 설탕을 많이 섭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감소시켰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도 아마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뇌-장 커넥션에 있어 미생물 간의 전체적인 상호작용은 우리의 웰빙과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미생물 간의 전체

적인 상호작용은 항상 중요했습니다. 다양하고 풍부하고 건강한 장내 미생물은 언제나 우리 건강에 중요했지만, 현대사회는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과 건강 유연성이 줄어들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70년간 계속 증가해온 많은 질병에 걸리는 것이 더 쉬워졌습니다. 예를 들면 1950년 이래로 염증성 장 질환이 증가했습니다. 서구에서는 물론 중국에서도 증가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비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당뇨는 나이가 든 사람들만 걸리는 병이었지만 이제는 아이들도 당뇨에 걸립니다. 이것은 건강한 장내 미생물을 보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아직 잘 모르는 한 가지가 있다면 뇌 질환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장내 미생물이 줄어들면 우울증이나 불안, 자폐증과 관련이 있는지의 문제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폐증은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울증도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체 모델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바로 공장 모델인데, 필요 없는 것을 떼어내고 교체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만성 질환에 관해서는 별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는 뇌와 몸을 연결하고 이를 주변 환경과 연결하는 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의 모든 것은 서로 다른 부분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이뤄져 있다는 것이 원칙이며, 이런 상호작용들은 생태계 전체의 건강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와 두 가지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뇌와 감각을 통한 환경과의 작용이고, 또 하나는 반작용입니다. 여기 미생물군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보다 더 크고 생태계와 연결돼 있습니다. 세상에는 생명체들보다 더 많은 미생물들이 존재해왔습니다.

이토록 많은 미생물들이 외부 환경과 우리를 어떻게 연결해왔는가입니다. 수십억 년간 지구의 바다에서 생존해왔고, 이미 소통의 기술을 가졌습니다. 5억 년 전에 그들은 원시적 해상동물과 공생하며 살아왔으며, 자연환경의 기본인 미생물과의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생존의 기본 원칙입니다.

장기의 다양한 신호 체계는 더욱 발전돼 뇌와 소통하는 단계로 발전했습니다. 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장내 미생물들에게도 직접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뇌교육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육의 대안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장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뇌와 장 커뮤니케이션 양방향이기 때문에, 우리의 장을 자극하고 훈련하는 모든 신호들을 뇌로 전달합니다. 우리가 미생물에게 해를 끼치면 반대로 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3. 뇌교육 미디어 액션

국제뇌교육협회는 한국 사회에서 인간 뇌의 올바른 활용과 계발에 대한 인식 전환과 인간 내적 역량을 높이는 혁신적인 교육 방법론의 가치 확산을 위한 방법으로 뇌교육 전문 매거진 발행, 디지털 잡지 제작 및 보급, 소셜미디어(페이스북, 유튜브 채널) 운영을 상시적으로 구축해 정보 확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뇌교육 다큐멘터리 제작 방영

2017~2018년은 국제사회에서의 뇌교육에 대한 다양한 성과들이 가시화된 시점으로, 국제뇌교육협회는 뇌교육의 글로벌 가치 확산을 위해 한국의 공영 교육방송인 EBS와 협력해 특집 다큐멘터리 <러브마이셀프>를 제작해 2019년 2월에 방영했습니다. 3개월 기획, 3개월 촬영까지 총 6개월에 걸쳐 제작했으며, 다큐멘터리 제작에는 국제뇌교육협회의 국내 및 해외 협력 파트너 기관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참여 파트너 기관

일본 일본뇌교육협회 / **미국** 뉴욕 브레인파워웬시스, 뉴멕시코주 / **한국** 벤자민인성영재학교, 대한국학기공협회

다큐멘터리 <러브마이셀프> 주요 기획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누구이고 싶은지 모두 포함해서 러브 마이셀프”

2028년 9월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 연설의 마지막 문장, 그 핵심은 ‘자존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자존감은 어떤가요? EBS 특집 다큐멘터리 <러브마이셀프>에서 정적·동적 명상의 특성을 통합시킨 한국식 명상으로 자존감을 회복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한국식 명상, 공교육에 접목되다

뉴욕시 등 미국 주요 도시의 초·중·고 공교육에 한국식 명상 프로그램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명상과 신체 활동을 접목한 한국식 명상은 학생들의 집중력과 학습 능력은 물론 대인관계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성과가 두드러진 곳이 중남미에 위치한 엘살바도르입니다. UN을 통해 한국식 명상 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된 후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한결같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자신감과 자존감이 향상됐다고 말합니다. 한국식 명상은 어떻게 학교를 변화시킨 것일까요?

트라우마 치유를 넘어 생활 속 명상 프로그램으로

일본에서는 한국식 명상 교육이 재난 복구 등 사회 공공 부문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식 명상으로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세토우 교수를 통해 명상이 어떻게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게 하고, 트라우마를 치유하는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명상으로 자존감을 회복하고 타인과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나카무라와 카이 이야기를 통해 명상의 힘을 확인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를 키우는 한국식 명상

‘학교’라는 20세기의 틀을 벗고 ‘지구’라는 확장된 사고로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호서남초등학교에서는 지난해부터 선생님과 아이들이 맨발로 운동장을 함께 걸으며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는 몸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두뇌를 활성화하는 활동으로 한국식 명상 교육의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논공중학교는 0교시에 전교생이 국학기공을 배운 후로 학교폭력 제로 학교, 기초 학력 미달 제로 학교가 된 데에는 국학기공이라는 단체 활동이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 외에도 한국식 명상 교육을 도입한 현장을 통해 명상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합니다.

성과 평가

EBS 다큐 방송 시청자수



84만 명 시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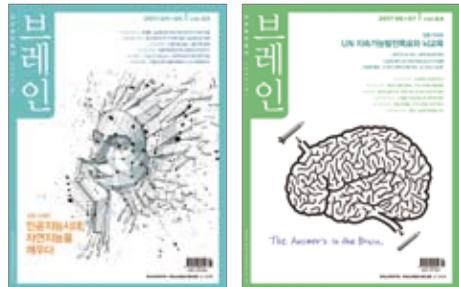
뇌교육 전문 매체 기반 정보 확산

국제뇌교육협회는 한국 사회에서 인간 뇌에 대한 과학적, 의학적 탐구를 넘어 올바른 활용과 계발에 대한 인식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 동시에 뇌교육 관련 정보 확산을 위해, 과학 기술 분야 자문기관인 한국뇌과학연구원과 공동으로 2006년부터 《브레인》 매거진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브레인》 매거진은 한국 내 유일의 뇌 전문 대중매체이자, 뇌교육 전문지입니다.

- 첫째** 《브레인》은 국제뇌교육협회 자문기관 및 국내외 협력 파트너, 후원 회원들에게 협회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둘째** 《브레인》 매거진을 디지털 잡지로 제작해 한국 내 650개 공공 도서관 및 대학 도서관에 제공해 미래 세대에게 글로벌 멘탈헬스 및 뇌교육 정보를 디지털 콘텐츠로 공급하고 있으며 모바일 잡지, eBook 서비스로도 제공합니다.
- 셋째** 온라인 웹사이트 <브레인미디어(www.brainmedia.co.kr)> 운영을 통해, 최신 뉴스와 국내외 파트너 기관 소식을 온라인 기사로 게재, 한국 내 3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다음, 구글 뉴스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브레인》 호별 집중 리포트 주제 (2017~2018)

- 《브레인》 63호 인공지능시대, 자연지능을 깨우다
- 《브레인》 64호 UN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뇌교육
- 《브레인》 65호 21세기 미래 자산 뇌, 腦교육
- 《브레인》 66호 인공지능시대, 휴먼 테크놀로지 뇌교육
- 《브레인》 67호 21세기 미래 자산 뇌, 뇌교육
- 《브레인》 68호 120세 프로젝트: 휴먼 브레인
- 《브레인》 69호 멘탈헬스 시대, 유럽에 부는 건강 패러다임의 변화
- 《브레인》 70호 제3차 뇌연구 촉진, 뇌 활용 시대 부상
- 《브레인》 71호 뇌운영시스템 B.O.S
- 《브레인》 72호 두뇌 강국 코리아, 한국궤 뇌교육
- 《브레인》 73호 21세기 휴먼 브레인 시대, 한국궤 뇌교육
- 《브레인》 74호 미래 인적자원 계발 나침반, 뇌교육



성과 평가

연간 포털 뉴스 기사 조회



100만 건

한국 공공·대학 도서관 디지털 잡지 공급



650 여 곳

전 세계 협력 파트너 기관 제공



10 개국

국가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및 파트너십 모델 발굴

韓-美 아동·청소년 분야 기관 교류

미국 교사 연수 및 강사 양성 전문 기관 브레인파워웬니스
뉴멕시코주, 뇌교육의 날 제정 및 학교 교육과정 도입
교사 교류 활성화를 위한 '韓-美 교사 국제 워크숍'
韓-美 미래 인재 양성, BR뇌교육-브레인파워웬니스 업무 협약

韓-中 뇌교육 전문가 교류

2017년 5월 중국 유다 방문
2017년 10월 연구 학술 기관 국제 교류 업무 협약
2018년 1월 韓-中 뇌교육 전문가 워크숍 개최

중등 뇌교육 컨설팅

2018 뇌교육 국제포럼: 한국식 명상 (K-Meditation)

2018 뇌교육 국제포럼
2018 뇌교육 국제포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국가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및 파트너십 모델 발굴

📍 주요 이해관계자

- 국내외 협력 파트너 기관
- 국내외 협력 파트너 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이해관계자

📍 국제뇌교육협회의 접근 방법

한국에서 시작된 뇌교육은 지난 20년간 미국, 일본, 중국, 카타르, 영국, 러시아, 뉴질랜드 등 18개국으로 확산돼 현재 약 500여 곳의 성인 및 아동·청소년 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인 대상 교육센터뿐만 아니라 교사 연수, 전문 강사 양성, 학술 연수, 시민사회기구, 생활 문화운동 비영리 단체 등 다양한 형태의 뇌교육 관련 기관들이 생겨났습니다.

뇌교육으로 건강과 교육 관련 사회적 이슈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들의 노력 덕에 각 나라의 사회·문화·경제적 환경의 차이가 반영된 다양한 운영 모델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의 이슈를 찾아내고 각자의 핵심 역량을 활용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효율적인 협력 시스템은 아직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국제뇌교육협회는 지난 2년간 해외 뇌교육 관계 기관들과 온·오프라인으로 정보 교류를 활성화해 각국의 현황과 파트너십이 요구되는 공통의 과제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기반해 새로운 파트너십을 만들어가기 위한 소규모 파일럿 프로젝트들을 개발하고 발전시켜나가고 있습니다.

📍 관리 프로세스

이 이슈에 대한 관리 범위는 국내외 뇌교육 관련 정보의 정기적 공유를 위한 실무자 중심 네트워크 구성, 각국의 이슈 파악 및 파트너십 프로젝트 발굴 등 국제뇌교육협회의 직접적 활동들입니다. 국내외 사례들과 전문 역량 교류를 통해 뇌교육 확산의 시너지를 얻고자 하는 노력들은 아래와 같이 4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단계 뇌교육이 소개된 각 나라의 핵심 이해관계자 파악 및 정보 교류 활성화 >>> **2단계** 파트너십이 요구되는 이슈와 상호 이해관계 파악 >>> **3단계** 효과적인 파트너십 프로젝트 발굴 및 파일럿 프로젝트 수행 >>> **4단계** 파트너십의 확장

이번 보고서에는 2년간 뇌교육 관계 기관 간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결과 5개국, 300여 명의 뇌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한 '뇌교육 국제포럼'과 보고 기간 내의 파일럿 프로젝트 수행까지의 성과를 담고 있습니다. 파일럿 프로젝트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2019년부터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단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 보고 이슈와 지속가능발전목표 연계





1. 韓-美 아동·청소년 분야 기관 교류

미국 교사 연수 및 강사 양성 전문 기관 브레인파워웰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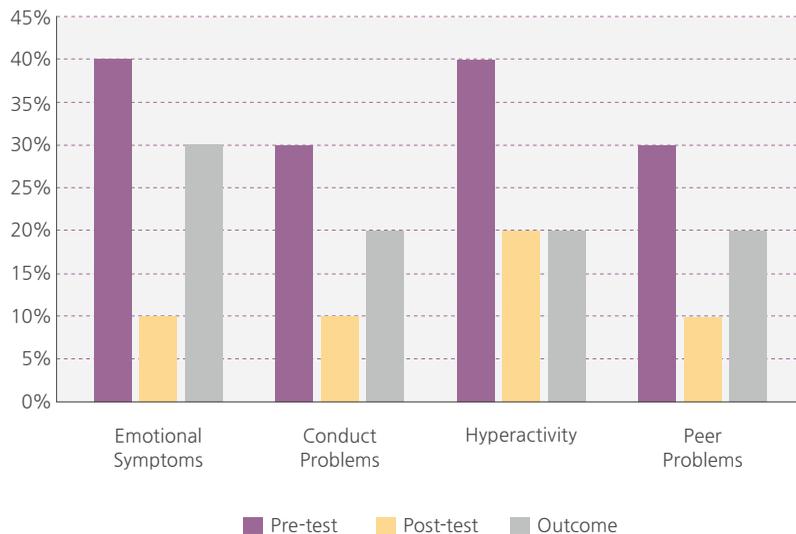
브레인파워웰니스(Brain Power Wellness)는 뉴욕주에 위치한 교사 연수 및 강사 양성 전문 기관입니다. 2007년부터 뉴욕시의 공교육 교사들을 대상으로 긍정적 교실 환경 조성을 위한 신체적·인지적 활동과 명상 수련, 사회·정서적 웰니스 전략들을 가르쳐왔습니다. 뉴욕시에 1800개의 공립학교가 있는데 이 중 400개교, 1만5000여 명의 교사가 브레인파워웰니스의 교원 연수를 받았고 25만 명의 학생이 뇌교육을 배웠습니다. 브레인파워웰니스는 학교에 뇌교육을 도입한 학교들을 대상으로 브레인파워스쿨네트워크를 운영하며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뇌체조와 명상 등 뇌교육을 잘 활용해 두뇌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Brain Power 10 시스템은 한국 (주)BR뇌교육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해 온 프로그램들을 바

탕으로 미국의 공교육 시스템에 맞게 개발했습니다. 팀워크, 건강, 집중력, 주의력, 기억력, 정서적 건강, 자신감, 창의력, 인성, 시민 의식 10개의 주제 아래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신체운동과 명상, 놀이 등의 활동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2015년 뉴욕시 사우스브롱크스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180명의 정서 조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험군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개월간 뇌교육 수업을 통해 과잉 행동 장애나 또래 문제 등 부정적인 사회 정서 지표에서 큰 변화를 보였고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뉴욕시 공립학교에 뇌교육이 빠르게 확산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Brain Power 10's Impact on Negative Emotional Indicators





2017년 2월 27일 뉴멕시코주 하원의회



린다 트루히로 뉴멕시코주 하원의원과 뇌교육 프로젝트팀

뉴멕시코주, 뇌교육의 날 제정 및 학교 교육과정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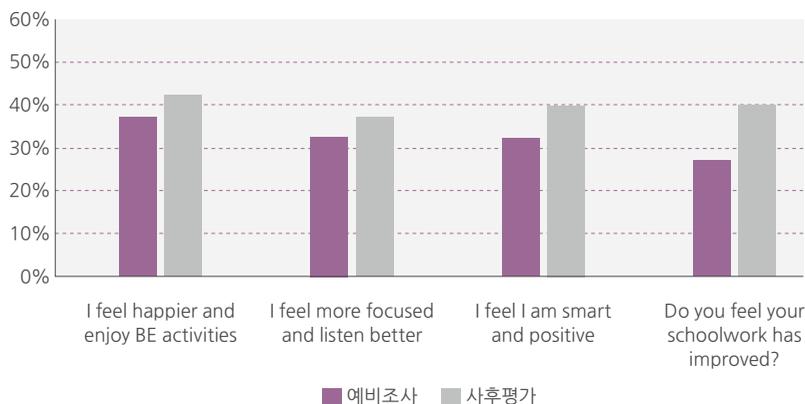
뉴멕시코주 바디앤브레인센터의 뇌교육 강사들은 지역사회 아동·청소년들에게 뇌교육을 알리기 위해 2012년부터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습니다. 2012년 산타페 소년소녀클럽(Boys & Girls Club)을 시작으로, 뉴멕시코주립대학 교육대학, 뉴멕시코대학 교육대학, 산타페 공립학교 교장단과 교사, 라티에라 몬테소리 예술과학학교(La Tierra Montessori School for the Arts and Sciences), 뉴멕시코 교육위원회 등 교사와 교육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뇌교육의 원리와 프로그램들을 소개했습니다.

2017년 2월 27일 뇌교육의 날 제정

5년간 뉴멕시코주에서의 뇌교육의 공헌을 기려 린다 트루히로(Linda Trujillo) 뉴멕시코주 하원의원이 2017년 2월 27일을 뇌교육의 날로 제정하자는 법안을 상정했고 이 법안은 만장일치로 뉴멕시코주 하원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 결과, 뉴멕시코주 고등교육국 및 공교육국(New Mexico Departments of Higher Education and Public Education)은 교사 직무교육과 학생 교과과정에 뇌교육을 포함시키는 안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2018년 2월 뇌교육 파일럿 프로젝트 시작

뉴멕시코주 공교육국은 2018년 2월 3개 학교(Pojoaque Intermediate School, Pojoaque Sixth Grade Academy, Ramirez Thomas Elementary School)를 선정해 뇌교육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뉴멕시코주의 바디앤브레인센터에 뇌교육 강사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뉴멕시코주 바디앤브레인센터는 뇌교육 전문 강사들로 구성된 '뉴멕시코 뇌교육 프로젝트'팀을 결성했습니다. 이 팀은 2월부터 5월까지 봄학기 동안 파일럿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학교를 방문해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했



습니다. 적용된 프로그램은 브레인파워웰니스가 뉴욕시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성공을 거둔 'Brain Power 10' 커리큘럼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완료 후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결과, 학생들의 학업 성취 능력에 대한 자신감 등이 향상됐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직원 대상 워크숍 외에 프로젝트팀은 매주 직접 교실을 방문해 학생들을 직접 지도해주었습니다. 4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보여지듯, 이 뇌교육 활동들은 학생들에게 효과가 좋았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덧붙여 저희 교직원들은 이 뇌교육 활동들이 자신이 학급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고, 학생들의 사회적 행동, 정서적 건강, 그리고 자신감을 향상시켜주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이 시범 프로젝트가 약 7주 반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됐음에도 학생들의 읽고 쓰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됐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 로레타 부커, 산타페시 라미레즈 토마스 초등학교 교장

뇌교육 활동들을 좀 더 오랜 기간 실행할 수 있다면, 사회·정서적 웰빙에 연관된 모든 영역에서 우리 학교의 모든 교사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학생들의 사회·정서적 웰빙과 학업 향상을 위해 뇌교육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 스테이시 마스카레나스, 포수와게 벨리 초등학교 교장

2019년 1월 공립학교 교원 직무교육 예산 승인

2019년 1월에는 공립학교 교원 대상 뇌교육 직무교육을 위한 예산안이 뉴멕시코주 주의회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됐고 뉴멕시코주 미셸 루안 그리샴(Michelle Lujan Grisham) 주지사가 승인했습니다. 2019~2020년 1년 동안 5개 학교를 선정해 뇌교육 활동 지도를 위한 교원 직무교육과 학부모 워크숍, 학교 방문 수업이 진행됩니다.

2018년 2월 뇌교육 파일럿 프로젝트 수업 모습





교사 교류 활성화를 위한 '韓-美 교사 국제 워크숍'

한국에는 한국뇌교육원이 교육청 특수 분야 교원연수 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매년 방학에 뇌교육 교원연수를 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뇌교육원에서 개설한 뇌교육 교원연수를 이수한 교사들이 9147명에 이릅니다. 또한 뇌교육 교원연수를 이수한 교사들을 중심으로 전국 23개 지역별 뇌교육교과연구회 및 교사 동아리가 만들어져 현장 교육에 적용,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회 활동은 교육청 공모에 선정되면 지원을 받고 운영됩니다.

미국에서 뇌교육을 도입하는 학교가 늘어남에 따라 국제뇌교육협회와 브레인파워웰니스는 지난 몇 년간 한국과 미국의 교사 교류가 교사 당사자들과 교육 환경 개선에 가져올 긍정적 영향에 대해 검토해왔습니다. 교류의 첫 단계로 2018년 10월 12일 한국뇌교육원 주최로 서울에서 브레인파워웰니스와 한국뇌교육원 관계자 및 뇌교육교과연구회를 운영하는 교사 10여 명이 참여하는 '韓-美 교사 국제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브레인파워웰니스 측에 의하면 미국 뉴욕시의 경우 학교장이 학생들의 정서적 건강을 위한 교육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쉬워 브레인파워웰니스가 안정적으로 교사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육이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학교 문화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학교 운영 책임자와 교사들의 개인적 체험과 신념이 중요하다는 한국에서 활성화돼 있는 교원 대상 심화 교육과 교사들의 동아리 활동 등에 대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뇌교육원은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뇌교육을 실천하는 교사 공동체가 형성돼왔고 인성교육 필요성에 대한 사회 전반적 인식은 높아진 반면 정부의 예산과 정책적 지원이 미흡한 것이 어려움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뇌교육원은 해외 공교육 분야에서의 뇌교육 활용 사례들이 한국에서 뇌교육을 실천하는 교사들에게 열정을 깨우는 계기가 된다면서 앞으로 韓-美 교사 공동체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좀 더 폭넓게 교류할 수 있는 채널을 발전시켜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뇌교육원은 2017년 초 일본뇌교육협회의 공교육 해피브레인스쿨(Happy Brain School)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컨설팅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韓-美 미래 인재 양성, BR뇌교육-브레인파워웰니스 업무 협약

한국 아동·청소년 뇌교육 대표 기업인 (주)BR뇌교육의 고민은 한국의 지나친 학업 성적 위주의 교육 풍토로 인해 인성교육에 대한 학부모 관심의 변화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뇌교육이 확산되고 있는 사례들을 미래 교육의 방향에 대한 학부모들의 시각 변화를 일으키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BR뇌교육은 브레인파워웰니스와의 좀 더 적극적으로 두 기관 간 교류 사업을 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브레인파워웰니스는 18년의 역사를 가진 (주)BR뇌교육이 보유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운영 노하우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국제뇌교육협회의 중재로 두 기관은 2017년 8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어 (주)BR뇌교육은 뉴욕 아너스헤이븐 리조트에서 열리고 있던 청소년 해외 캠프에 브레인파워웰니스 강사진을 초청했습니다. 이 강사들은 한국 학생들에게 미국에서 가르치고 있는 ‘브레인파워 10’의 활동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캠프를 지켜본 브레인파워웰니스의 데이브 빌 이사는 “10대 한국 청소년들에게서 본 저항감은 미국의 10대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뇌교육의 마술은 10대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과 방어벽을 가슴으로 녹여버린다는 것입니다. 뇌교육 강사들은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감 부족이나 부정적인 감정, 새로운 것들에 대한 저항감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고 캠프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후 두 기관은 청소년 교류 국제 캠프를 공동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2018년 10월에는 브레인파워웰니스에서 한국의 (주)BR뇌교육 지점들을 방문해 교육 프로그램들과 운영 형태 등에 대해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① ② (왼쪽 상단 사진부터 시계방향)
 ① 브레인파워웰니스 강사진 ② (주)BR뇌교육 청소년 해외 캠프
 ③ 한국 BR뇌교육을 방문한 브레인파워웰니스 운영진 ④ 브레인파워웰니스-(주)BR뇌교육 업무 협약





2. 韓-中 뇌교육 전문가 교류

유다(UDAP-Solution China)는 2014년 설립된 중국 뇌교육 기업입니다. 국제뇌교육협회는 韓-中 뇌교육 기관 간 교류를 위해 2017년 5월과 2018년 1월 상하이에 있는 유다 본사와 유다에서 운영하는 HSP바디앤브레인트레이닝센터를 방문했습니다. 1차 방문은 현황 파악과 정보 교류에 초점을 두었다면 2차 방문은 실질적인 韓-中 협력 방안 모색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2017년 5월 중국 유다 방문: 현황 파악과 정보 교류

유다는 설립 후 한국에서 기업 교육용으로 개발된 뇌교육 프로그램인 ‘유답’을 도입해 국영 보험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첫 번째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같은 해 8월에는 세계 최대 시계회사 스와치 그룹(Swatch Group)의 중국 현지 법인인 티쏘(Tissot)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뜨거운 호응을 받았고, 2018년 말까지 30여 개 기업에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유답’은 팀 내 긍정적 에너지의 고양과 확산, 자신감 향상, 동료 간 소통과 신뢰, 협력 관계 강화, 회사의 성장과 개인 성장의 동반 관계 형성을 목표로 체험형 워크숍으로 진행됩니다. 유다의 줄리 묘 대표는 중국에서의 뇌교육 기업 교육의 전망을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한참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에서 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과 지식 습득 위주의 교육을 선호합니다. 근로자의 내면 관리가 기업의 KPI 관리와 생산성 향상에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영업 분야를 중심으로 업무 스트레스와 감정 관리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유답 프로그램은 그런 면에서 ‘건강한 뇌’를 키워드로 직원 정신 건강 관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업 교육으로 시작한 유다는 2016년부터 상하이에 HSP바디앤브레인트레이닝센터를 열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뇌교육 사업을 확대해왔습니다. 중국은 성인의 자기 계발 시장이나 노년 건강 시장은 아직 활성화돼 있지 않은 반면 자녀 교육에 가계소득의 대부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이나 광저우, 상하이 등 대도시의 경우, 자녀 교육 관련 가계 지출 비율이 50%가 넘고 뇌 관련 교육 기업도 1만 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기억력이나 속독 등 학업 능력 향상을 위한 두뇌 계발 프로그램에만 집중돼 있습니다. 최근 정서와 인지의 균형적인 발달이나 개개인의 고유한 내적 역량을 계발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HSP바디앤브레인트레이닝센터의 뇌교육 프로그램들은 체력, 심력, 뇌력의 3가지 건강의 기초 위에서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줄리 묘 대표는 “한국 뇌교육은 아동·청소년의 두뇌 잠재력 계발뿐만 아니라 정서와 인성, 인지를 균형 있게 발달시키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교육법인 만큼 중국 내 확산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 한-중 뇌교육 전문가 워크숍

2017년 10월 연구 학술 기관 국제 교류 업무 협약

2017년 10월 줄리 묘 유다 대표와 직원 등 10명이 한국의 뇌교육 학술 연구 기관들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사이버대학교와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을 방문하고 국제 교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국에서는 19차 공산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발표한 5개년 개발계획에 교육의 계발과 보편적 건강 증진이 주요 과제로 포함되면서 뇌교육 확산의 기회가 높아진 시점이었습니다. 글로벌사이버대학교의 이을순 본부장은 “MOOC 등 교육 분야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중국 내 이러닝 기반 서비스 및 콘텐츠 협력을 통해 많은 시너지를 기대한다”라며 韓-中 국제 교류에 대한 기대를 밝혔습니다.

이 협약을 계기로 2018년 1월에는 국제뇌교육협회와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브레인트레이너협회가 함께 중국 유다를 방문해 뇌교육 전문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8년 1월 韓-中 뇌교육 전문가 워크숍 개최: 韓-中 협력 방안 모색

2018년 1월 유다의 초청으로 국제뇌교육협회는 글로벌사이버대학교와 브레인트레이너협회 담당자들과 함께 상하이를 방문, '韓-中 뇌교육 전문가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이 워크숍에서는 중국에서의 뇌교육 확산을 위한 韓-中 간 협력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참석자들은 강사 개인의 전달 방식이나 역량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양질의 교육을 전달하기 위한 뇌교육 전문가 양성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그 방안으로 한국에서 4년제 뇌교육 과정이 있는 글로벌사이버대학교를 비롯한 프로그램 연구 개발 인프라를 활용해 표준화된 뇌교육 전문가 온라인(이러닝) 교육을 지원하고, 중국에서는 현지 문화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실습 교육을 진행하는 협업 형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브레인트레이너협회 측은 그동안 한국의 국가 공인 브레인트레이너 전용 기기로 개발된 뇌파 측정 기기와 두뇌 활용 훈련기 콘텐츠의 중국어판을 업그레이드해 활용도를 높이자고 제안했습니다.

유다는 워크숍 기간 동안 100여 명의 중국 뇌교육 강사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뇌교육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인간 뇌의 특별함을 깨워라'를 주제로 글로벌사이버대학교의 장래혁 교수는 21세기 뇌융합 학문으로서 뇌교육의 미래 가치를 제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특히 한국에 4년제 뇌교육 사이버대학교와 석·박사 대학원이 있고, 국가에서 두뇌 활용 전문 자격증을 공인한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습니다. 이번 뇌교육 세미나는 유다가 세워진 이후 처음으로 뇌교육 종주국인 한국의 연구 학술 기관으로부터 뇌교육 강연을 들을 수 있었던 기회로, 앞으로도 학술 연구 기관뿐만 아니라 영역별 관련 기관들과의 교육 콘텐츠 및 운영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지기를 희망했습니다.

직원 교육으로 유담 워크숍을 개최한 상하이와우! 대표와 직원들





3. 중동 뇌교육 컨설팅

BE-ME 대표 모하메드 아부 자이나브와 그의 뇌교육 강연 모습



중동 뇌교육(Brain Education Middle East, 이하 BE-ME)은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 본사가 있습니다. 레바논과 두바이 등지에서 강연을 통해 이슬람 사회에 뇌교육을 소개해오던 모하메드 아부 자이나브(Mohammed Abu Zeinab) 씨는 2016년 11월 본격적으로 뇌교육을 보급할 거점으로 BE-ME를 설립했습니다.

국제뇌교육협회는 BE-ME 설립 후 중동 지역에서의 뇌교육 확산을 위한 컨설팅을 정기적으로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매월 화상 콘퍼런스를 열고 있고, 2018년 8월과 12월에는 BE-ME가 한국을 방문해 중·장기 계획과 방향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인 대상 뇌교육

모하메드 아부 자이나브 대표는 뇌교육이 이슬람 사회에 어필하는 이유에 대해 “뇌교육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소망하는 것, 자신이 되고 싶은 것, 변화하고 싶은 모습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게 도와준다. 그리고 삶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해준다”라고 설명합니다.

BE-ME 회원의 80% 이상이 21세~45세의 여성들입니다. 평균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높고 기업가 정신이 강한 반면, 여성의 사회 참여와 자기 표현이 제한돼 있는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여성의 스트레스가 높습니다. 이들에게 뇌교육이 매력적인 이유는 스스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창조할 수 있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자신감을 심어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인 대상 뇌교육 수업은 주로 스파나 리조트 같은 웰니스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제공합니다. 휴식과 힐링을 찾아 방문한 사람들에게 휴식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창조할 수 있는 삶의 기술을 익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멘탈헬스 문제도 심각해서 성인의 20%는 우울 증상이 있고 청소년의 25% 정도가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20년 넘게 한국과 미국에서 브레인트레이너로 활동해온 BE-ME의 김다애 수석 트레이너는 “뇌교육이 특히 뇌와 뇌파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삶에서 사실 자기가 원하는 걸 돌아보게 하는 게 쉽지 않은데 뇌를 활용해서 자기 삶의 주인이 된다는 원리를 체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뇌교육

아동·청소년 영역에서는 14세~25세의 청소년들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카타르에서 이 연령대의 청소년들은 공부에 대한 압박이 심한 반면 공부 외에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나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할 다양한 삶의 기술들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실



정입니다. BE-ME는 이들에게 뇌교육을 통해 자신 삶의 방향과 정체성을 찾고 꿈을 향한 열정과 자신감을 찾도록 돕고 있습니다. 동양의 심신 수련법 중 한국에서는 생활 스포츠로 자리 잡은 국학기공을 결합해 신체 단련을 통해 정서 조절 능력과 긍정적 사고에 영향을 주는 전인적 훈련으로 참가 청소년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BE-ME의 청소년 뇌교육 대표 프로그램은 한국 벤자민인성영재학교의 인성영재캠프와 미국의 리더십 프로그램인 HEROES를 결합한 'HEROES 워크숍'입니다. 청소년들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스스로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BE-ME는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벤자민인성영재학교와 같은 과정을 카타르에서 발전시켜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의 뇌교육 확산을 위한 과제

중국과 마찬가지로 BE-ME도 중동 지역에서의 뇌교육 확산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표준화된 강사 과정과 자격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꼽았습니다. 또한 BE-ME는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을 위해 한국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 | | | |
|----|---|------------------------------------------------------------------|
| ① | ② | (왼쪽 상단 사진부터 시계방향) |
| ①② | | HEROES 워크숍 참가자들 |
| ③ | ④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견학 중인 BE-ME 강사와 회원들 ④ 벤자민인성영재학교를 방문한 BE-ME 강사와 회원들 |

5. 2018 뇌교육 국제포럼: 한국식 명상(K-Meditation)

국내외 뇌교육 관계 기관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한 지난 2년간의 노력들은 2018년 서울에서의 뇌교육 국제포럼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주최국인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일본, 중국의 뇌교육 기관 대표 및 발표자를 비롯해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포럼의 핵심 주제는 인간의 내적 역량을 이끌어내는 뇌교육의 주요 방법론인 한국식 명상(K-Meditation)의 영역별 활용과 미래 가치 모색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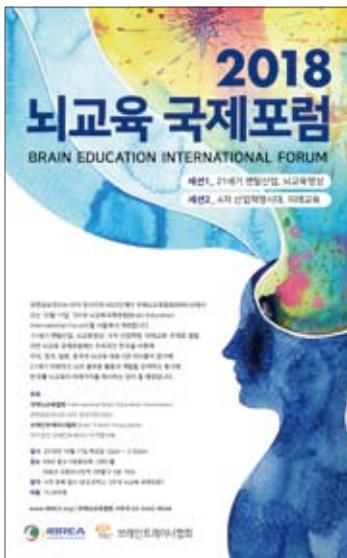


2018 뇌교육 국제포럼

2018 뇌교육 국제포럼에서는 ‘21세기 멘탈산업, 뇌교육 명상’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교육’을 주제로 한 두 개의 세션을 통해, 각 나라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뇌교육이 갖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세션 I 21세기 멘탈산업, 뇌교육 명상

- [한국]** 글로벌 명상 트렌드와 뇌파진동명상 국제 연구 성과 (양현정, 한국뇌과학연구원 부원장)
- [한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국의 대표 명상(김순중, 단월드 운영실장)
- [영국]** 멘탈헬스 시대, 유럽에 부는 건강 패러다임의 변화 (루시 린치, 파워브레인웰빙 이사)
- [일본]** 한국식 명상의 일본에서의 전개(남지영, 일지브레인요가 교육팀장)



세션 II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교육

- [미국]** 21세기 글로벌 리더십, 뇌교육의 미래 가치(스티브 김, ECO 이사)
- [미국]** 뇌교육 도입 10년, 뉴욕 학교의 변화 (데이브 빌, 브레인파워웰니스 프로그램 디렉터)
- [한국]** 4차 산업혁명 시대, 세상을 바꾸는 아이들(이현정, (주)BR뇌교육 운영이사)
- [중국]** 중국 아동·청소년 교육 시장에서 뇌교육의 가치(줄리 묘, 유다 CEO)
- [영국]** 영국에서의 뇌교육 강사 활동과 비전 (세레네이드 노먼, 파워브레인웰빙 강사)

세션 I에서는 ‘21세기 멘탈산업, 뇌교육 명상’을 주제로 한국뇌과학연구원 양현정 부원장, 한국 단월드 김순중 운영실장, 영국 파워브레인웰빙 루시 린치 이사, 일본 일지브레인요가 남지영 교육팀장이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명상 트렌드와 뇌파진동명상 국제 연구 성과

양현정 부원장은 국제 학술 저널에 발표된 뇌파진동명상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 12편을 소개하면서 동적 명상과 정적 명상이 혼합된 형태의 뇌파진동명상이 멘탈헬스와 건강에 상호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메커니즘을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메커니즘을 볼 수 있는데, 상향(Top-down)과 하향(Bottom-up) 방식이다. Top-down은 명상에 의해 먼저 뇌의 변화를 일으키고 신체 시스템의 변화를 일으키는 방식이고, Bottom-up은 움직임에 의해 신체 시스템의 변화를 일으킨 다음 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식 고유 명상의 가치와 보급 현황

국내 명상 시장 점유율 1위인 단월드 김순중 운영실장은 “명상이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신체적 유연함이 떨어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한국식 명상은 한국의 선도 수련 원리에 기반한 훈련법으로 쉽고 단순한 신체 움직임과 몸의 에너지를 느끼는 감각을 활용해 누구나 쉽게 자신의 내면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한국식 명상의 중요한 특징은 한민족 정신문화의 근간이 되는 홍익 철학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원들이 단월드에 처음 올 때는 건강이 안 좋아서 옵니다. 하지만 수련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과 이 수련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이 한국식 명상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전국 230여 개의 직영센터를 거점으로 3000여 명의 회원과 직원들이 지역사회에서 공원이나 노인복지센터 등에서 명상 지도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멘탈헬스 시대, 유럽에 부는 건강 패러다임의 변화

영국 파워브레인웰빙 루시 린치 이사는 뇌교육 명상의 핵심 메시지와 변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혹은 몸이 안 좋아서 센터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수련을 하는 과정 중에 자신의 몸과 마음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 몸은 내가 아니라 내 것이다. 내 감정은 내가 아니라 내 것이다’라는 뇌교육의 원리를 체험을 통해 익히고 스스로 힐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자연스럽게 이웃과 사회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발현됩니다”라며 뇌교육을 통해 회원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식 명상의 일본에서의 전개

일본 남지영 팀장은 “일본은 명상에 관한 오랜 전통이 있으며 ‘젠’을 개발해 전 세계에 알릴 만큼 명상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동작이나 호흡법 등이 매우 복잡한 반면 한국의 뇌교육 명상은 효과와 간단함에 일본인들이 감동합니다. 생명의 근본인 기(氣) 에너지를 체험하고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자기 인식 능력을 길러주고 타인을 돌보는 이타심을 키워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의 멘탈헬스 케어 정책과 관련해 뇌교육 확산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현재 일지브레인요가는 일본 후생노동성이 운영하는 스마트 라이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일본 사회가 직면한 스트레스와 불안 등 사회적 과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션 II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교육’을 주제로 미국 ECO 스티브 김 이사, 미국 브레인파워웬니스프로그램 디렉터 데이브 빌 이사, 한국 (주)BR뇌교육 이현정 운영이사, 중국 유다의 줄리 묘 CEO, 영국 파워브레인웰빙의 세레네이드 노먼 강사가 발표했습니다.

21세기 글로벌 리더십, 뇌교육의 미래 가치

미국 ECO(지구시민연합) 스티브 김 이사는 거북이의 코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빼내는 3분짜리 유튜브 영상을 사례로 들며 “지구 환경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이 짧은 영상이 국제적인 캠페인을 전개하는 기폭제가 돼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게 했다”라고 예시했습니다. 그는 “누구나 지속가능한 지구의 미래를 염려하지만 어느 나라, 어느 정치가, 어느 기업이 이익이나 정치적 성향을 포기하고 지구 환경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지구 환경을 회복하는 데에는 정책이나 지식적인 정보가 아니라 인간 뇌가 가진 가장 중요한 자질인 공감 능력을 되살려야 자신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뇌교육을 통해 공감 능력을 회복하고 삶의 지표를 바꾸고 행동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건강하며 행복한 지구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 지구시민운동의 방향”이라고 전했습니다.

뇌교육 도입 10년, 뉴욕 학교의 변화

미국의 아동·청소년 교육 및 교원 연수 전문 기관인 브레인파워웬니스의 데이브 빌 이사는 마인드풀니스가 미국 교육계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주제라면서 ‘브레인파워 10’ 프로그램과 타 마인드풀니스 프로그램을 적용해 비교 연구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두 수업 모두 행동 문제에 있어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지만, 마인드풀니스 수업으로 인한 행동 개선 효과가 26%인데 반해 뇌교육 수업은 52%의 개선 효과를 나타냈다”면서 두 배 이상의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이유로 뇌교육 프로그램은 학생이 스스로 자기 내면의 인성을 발견하고 친구들과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적 교육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세상을 바꾸는 아이들

한국의 아동·청소년 뇌교육 대표 기관인 ㈜BR뇌교육 이현정 운영이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세상을 바꾸는 아이들’을 주제로 국내 뇌교육 청소년의 변화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 이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혁명이 인간의 가치를 실현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나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BR뇌교육 수업에서 활용하는 것은 브레인 체조와 브레인 명상인데, 이것으로 신체를 활성화하고 뇌 감각을 일깨워 뇌의 주인으로서 정보를 선택하고 창조할 수 있는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아동·청소년 교육 시장에서 뇌교육의 가치

중국 유다의 줄리 모 대표는 중국 교육의 현실과 문제점, 중국 정부가 제시하는 새로운 교육 정책 등을 설명하고, 중국 내 뇌교육 시장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현재 중국 또한 지나친 지식 습득 위주의 교육열에 학생과 학부모 모두 고통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려를 중국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18년 9월 전국교육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인성 완성과 개인의 재능 개발 등을 골자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등 중국 사회에서 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전했습니다. 이제 설립 5년 차인 중국 유다는 상하이에 2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기 조절력과 인내력, 학습에 대한 자발성, 부모와의 소통 측면에서 많은 학생들이 효과를 나타내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참가 기관 실무자급의 심도 깊은 정보 교류를 위해 마련된 2부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참가 기관들의 교육 시스템과 비즈니스 모델을 공유하고 미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2018 뇌교육 국제 포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참가 기관 실무자급의 심도 깊은 정보 교류를 위해 마련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참가 기관들의 교육 시스템과 사업 모델을 공유하고 미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참가 기관들의 현황 발표에 이어, 표준화된 전문가 양성 및 인증 시스템, 콘텐츠 공급 플랫폼 구축, 정기적인 국제대회 및 콘퍼런스로 뇌교육의 가치 창출 등이 미래 협력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세션 I 유아·아동·청소년 분야 참가 기관

- [미국] Brain Power Wellness, Honor's Haven
- [중국] U-DAP Solution China
- [한국] (주)키즈뇌교육
- [한국] (주)BR뇌교육

세션 II 성인 분야 참가 기관

- [유럽] Body & Brain, Power Brain Wellbeing
- [일본] IBREA Japan
- [한국] (주)단월드
- [한국] (주)HSP컨설팅 유답
- [한국]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임팩트 평가

2018 뇌교육 국제포럼은 국내외 뇌교육 기관들의 발의에 의해 실무자급 교류를 위해 마련된 첫 행사로, 참가자들은 영역이나 사업 형태를 넘어서 뇌교육이 추구하는 공동의 가치와 비전, 미래 과제에 대해 상호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타국의 사례를 당면한 이슈나 과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주제를 세분화하고 실무자 간의 토론이 가능한 형태로 발전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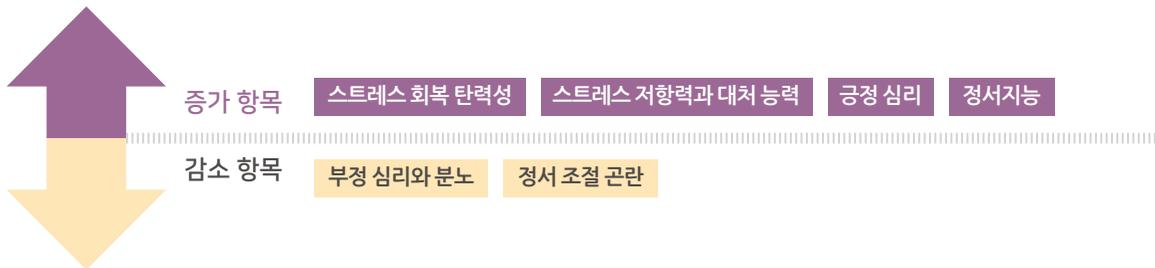
글로벌사이버대학교 감정노동 힐링365 프로젝트

2018 뇌교육 국제포럼의 부대행사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발표 사례 중 글로벌사이버대학교의 ‘감정노동 힐링365 프로젝트’는 이러닝 온라인 학습과 오프라인 체험 교육을 병행해 근로자들이 직무 스트레스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뇌교육 프로그램으로 확장성과 접근성이 높아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프로그램의 연구 성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한 《감정노동 근로자를 위한 심신힐링 프로그램 개발》 연구 보고서와 국제 학술지 《PLOS ONE》에 게재된 ‘The Effects of an Online Mind-body Training Program on Stress, Coping strategies, Emotional Intelligence, Resilience and Psychological State’는 각각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해당 뇌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해 보고했습니다.



2년간 감정노동 힐링365 프로젝트 참여 통계(2017~2018)

글로벌사이버대학교의 ‘감정노동 힐링365 프로젝트’는 2016년 안전보건공단 지원 사업으로 4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심신힐링 오프라인 체험교육의 경우 2017년 4725명, 2018년 2537명이 참가했으며, 일반 시민 참여 캠페인에는 온라인 3만848명, 오프라인 2만9950명 등 대중적 확산 추세가 매우 높았습니다.

감정노동자보호법 통과 및 향후 전망

한국에서는 2018년 10월, 감정노동자의 인권과 건강권 보호 등 사업주의 예방 조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감정노동자보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으로 직무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는 지구시민임을 선언합니다

I declare that I am an Earth Citizen

하나, 나는 모든 학문과 제도가 지구와 인간을 위해 공헌할 수 있도록
융합적인 사고로 판단하고 활용할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 나는 무한경쟁을 부르는 물질중심의 가치관을 극복하고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홍익정신을
지구경영의 중심철학으로 세울 것을 선언합니다.

지구시민선언문 중 (2001년 제 1회 휴머니티컨퍼런스 지구시민선언문 10개 조항 채택)

I declare that I will judge and utilize all academic disciplines
and systems with integrative thinking
so that they can make contributions for the earth and for human beings.

I declare that I will overcome materialistic value systems
that induce unlimited competition
and establish the Hongik spirit, which widely benefits the world,
as the central philosophy of Earth Management.

From the Earth Citizen Declaration,
(Selected from 10 clauses in the Earth Citizen Declaration adopted
during the First Humanity Conference in 2001)

<출처=일지아트홀>

뇌교육 표준화를 위한 협력 체제 구축

📍 주요 이해관계자

- 국내 및 해외 영리·비영리 협력 파트너 기관 및 해당 기관이 영향을 미치는 뇌교육 전문 강사
- 자문기관(과학 기술, 학문화, 인재 양성 분야별)
- 뇌교육 자격 관리 기관

📍 국제뇌교육협회의 접근 방법

2004년 국제뇌교육협회 설립 이후 뇌교육의 국제사회 보급이 지난 10여 년간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국가 간 교류 역시 지속적으로 증대했습니다. 그리고 뇌교육 세계화의 진전과 국제 교류의 증진은 국내외 파트너 기관들로부터 뇌교육 표준화에 대한 필요성을 높이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20세기 인류 사회를 변화시킨 자동차, 컴퓨터, 조선, 항공기 등은 물질적 제품이나 상품이 중심이었지만, 뇌교육은 그러한 변화를 만든 창조성의 원천인 뇌의 올바른 활용과 계발에 주목합니다. 즉, '제품'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고, 그것을 전달하는 인적 자원 역량과 콘텐츠 표준화가 지속가능한 사업 수행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이 됩니다.

'뇌교육 표준화'의 범위는 뇌교육에 대한 이론, 영역별 콘텐츠, 전문가 교육 훈련 체계, 자격 인증 체계에 관해 전 세계적으로 통용 가능한 표준화 마련, 그리고 뇌교육 전문가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사업 모델 개발을 포함합니다. 뇌교육 표준화 수행을 위해 국제뇌교육협회는 지난 40여 년간 뇌교육의 학문화, 과학화, 대중화 영역 전문 기관들의 협력 체제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관리 프로세스

국제뇌교육협회는 2017년 4월 발족한 '국제뇌교육융합센터'를 통해 국내외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력 체제를 중심으로 이슈를 관리해왔습니다. 지난 2년여간, 국내외 파트너 기관 간 오프라인 미팅, 화상회의,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글로벌 뇌교육 표준화의 필요성과 과제에 관해 의견 수렴과 협의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뇌교육 표준화위원회'가 발족되면서 뇌교육 표준화를 위한 본격적인 액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 보고 이슈와 지속가능발전목표 연계





1. 국제뇌교육융합센터 발족: 뇌교육 표준화의 필요성과 과제 검토

2017년 4월, 국제뇌교육협회는 뇌교육 분야 학술 연구 기관, 자격 운영 기관, 기업, 시민사회 기구 등 뇌교육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 대표 및 핵심 실무자로 구성된 국제뇌교육융합센터를 발족했습니다. 국제뇌교육융합센터 체제를 통해 지난 40여 년간 뇌교육의 학문화, 과학화, 대중화를 위해 만들어진 국내외의 다양한 교육 훈련 콘텐츠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동시에 영역별 뇌교육 기관의 고유 목적을 재정립해 기관 간에 융합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력과 상생의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지향점은 '뇌교육 표준화'를 위한 협력 체제 구축에 두었습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글로벌 정보 네트워크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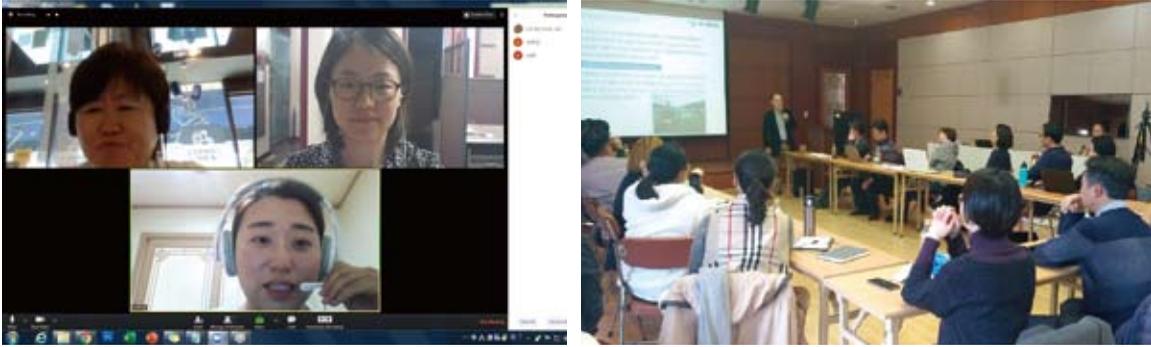
기간: 2017년 4월~2017년 6월(3개월)

2017년 4월 국제뇌교육협회는 미국, 일본, 중국, 영국, 한국의 5개국 뇌교육 관련 영리·비영리 기관을 아우르는 '뇌교육 글로벌 정보 네트워크' 실무 그룹을 구성했습니다. 이 실무 그룹은 영상 컨퍼런스와 이메일을 통해 각국의 뇌교육 사업 모델과 교육 훈련 콘텐츠를 공유해 상호 이해와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물로 총 10회의 《뇌교육 보고서》를 발행해 참여 기관의 대표와 실무자들에게 공유했습니다.

[2단계] 국가별·영역별·연령별 정보 수집 및 콘텐츠 검토

기간: 2017년 7월~2018년 9월(1년 5개월)

전 세계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유아 두뇌 발달, 아동·청소년 두뇌 훈련, 성인 스트레스 관리, 중·장년 치매 예방 등 연령별·영역별 현장에서 요구되는 뇌교육 교육 프로그램과 전문가 훈련 과정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동일 영역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활동 충돌에 따른 상호 협의, 양질의 콘텐츠 개발 역량에 대한 기업과 학술 연구 기관 간 융합 시너지, 해외 주요 기관별 특성



에 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1년 5개월간 온·오프라인 회의를 갖는 과정에서 국가별로 다양한 정보를 수집, 정리했습니다. 또한 뇌교육의 미래 발전과 확산을 위해서는 뇌교육 전문가 양성 및 인증 시스템, 교육 콘텐츠의 표준화가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3단계] 뇌교육 표준화 위원회 발족 및 시행

기간: 2018년 10월~2019년 2월(5개월)

국제뇌교육융합센터 발족 이후 1년 6개월간 지속된 협의의 결과, 전 세계 주요 이해관계자가 자리하는 국제포럼 개최 필요성이 제기돼 2018년 10월 한국의 서울에서 유럽,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이해관계자 대표 및 핵심 실무자가 참석한 ‘뇌교육 국제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부대행사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표준화된 전문가 양성 및 인증 시스템, 콘텐츠 공급 플랫폼 구축, 정기적인 국제대회 및 콘퍼런스 개최로 뇌교육의 가치 창출 등 뇌교육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조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그 결과 2018년 12월 뇌교육 표준화 위원회가 발족됐으며, 2019년 들어 글로벌 표준화를 위한 실무 그룹을 본격 가동했습니다.



2. 뇌교육 표준화 위원회 가동

2019년 1월 실무 그룹을 발족시키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뇌교육 표준화 위원회'는 뇌교육에 대한 이론, 영역별 콘텐츠, 전문가 역량 개발 체계, 자격 인증 체계 그리고 비즈니스 상품화 개발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통용 가능한 기준과 이를 수행할 글로벌 프로세스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뇌교육은 인간이 가진 내재적 역량을 이끌어내 의식의 실제적 변화를 이끄는 체험적 방법론이 핵심인 만큼 표준화 위원회에는 뇌교육의 과학적, 학문적 체계화를 연구하는 한국 뇌과학연구원,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등 국제뇌교육협회 자문기관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돼 있으며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표준화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뇌교육 이론적 체계화 • 뇌교육 영역별 교육 콘텐츠 • 뇌교육 전문가 훈련 체계 • 뇌교육 자격 인증 체계 • 뇌교육 영역별 사업 모델 개발 기준 및 프로세스
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뇌교육 연구 학술 기관 전문가 • 뇌교육 영역별·연령별 현장 전문가 • 관련 분야의 국제적 석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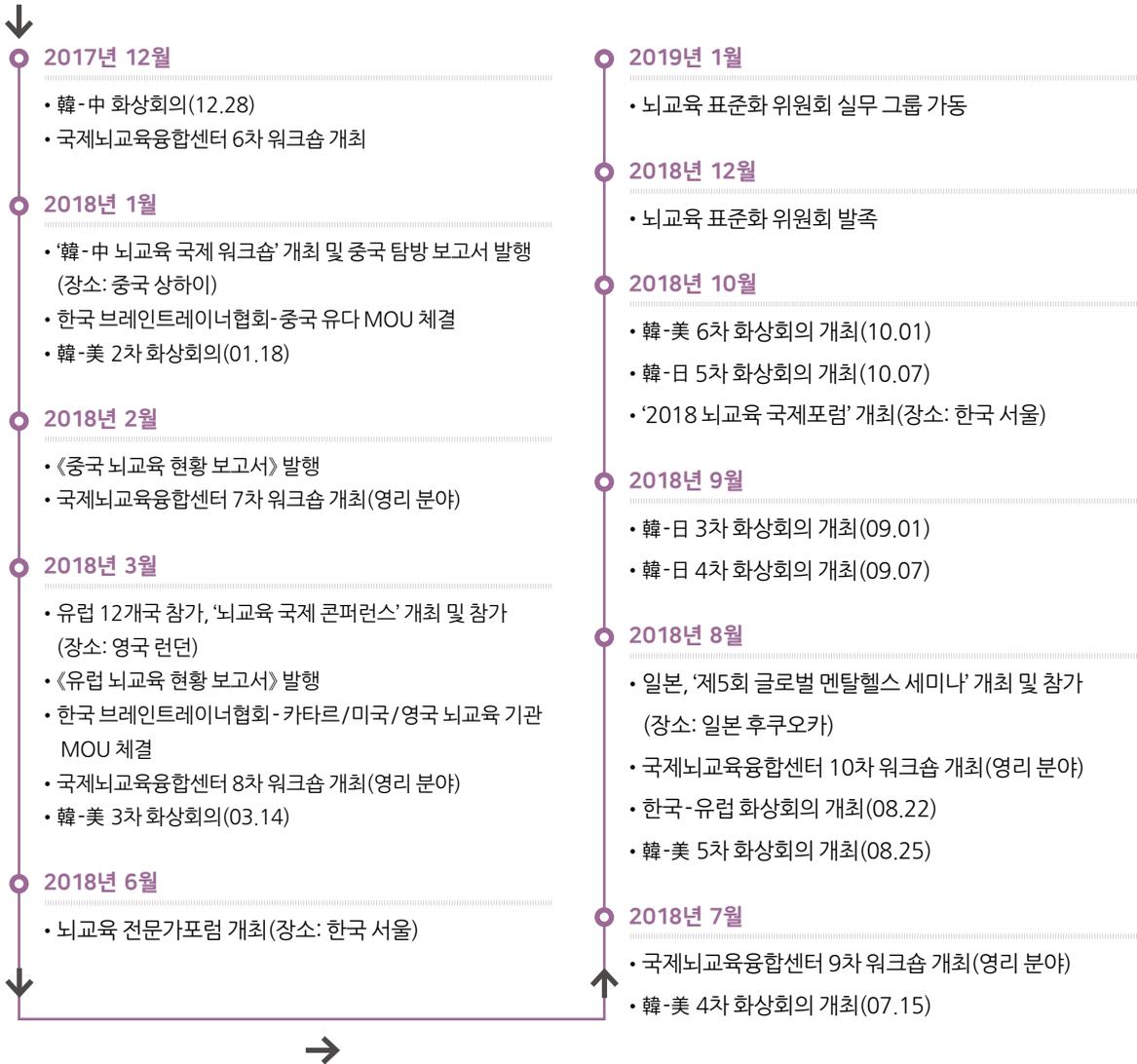
[‘뇌교육 표준화’ 범위와 위원회 구성 방향]

뇌교육 표준화 추진 TIMELINE

2017년 4월 국제뇌교육융합센터 발족부터 2018년 12월 뇌교육 표준화 위원회 설립까지의 과정을 담았습니다.

- **2017년 4월**
 - 국제뇌교육융합센터 발족
 - ‘글로벌 정보네트워크’ 실무 그룹 발족, 국가별 정보 수집 시작
- **2017년 5월**
 - 국제뇌교육융합센터 1차 워크숍 개최: 공교육 분야
 - 국제뇌교육협회 담당자, 중국 유다 방문(장소: 중국 상하이)
 - 《뇌교육 보고서》 1차 발행
 - 韓-日 1차 화상회의(05.25)
- **2017년 6월**
 - 자문기관, 국제뇌교육융합센터 전문가 그룹 발족
 - 국제뇌교육융합센터 2차 워크숍 개최(운영 프로세스)
- **2017년 7월**
 - 韓-日 2차 화상회의(07.29)
 - 국제뇌교육융합센터 3차 워크숍 개최(자격 관리 분야)
- **2017년 8월**
 - 일본, ‘제4회 글로벌 멘탈헬스 세미나’ 개최 및 참가 (장소: 일본 교토)
 - 韓-日 뇌교육 국제 교류 연수(장소: 일본 교토·오사카)
 - 한국-뉴질랜드 1차 화상회의(08.27)
- **2017년 9월**
 - 국제뇌교육융합센터 4차 워크숍 개최(강사 분야)
- **2017년 10월**
 - 국제뇌교육협회 담당자, 일본 방문(10.01~10.03)
 - 중국 유다-글로벌사이버대학교/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MOU 체결(10.25)
 - 국제뇌교육융합센터 5차 워크숍 개최(NGO 분야)
- **2017년 11월**
 - 韓-美 1차 화상회의 (11.12)





임팩트 평가

국제뇌교육협회는 뇌교육 표준화를 위해 연구·학술 기관과 현장 전문가들의 협력 체계를 수립하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온·오프라인으로 다음과 같이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뇌교육 표준화 위원회 발족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국제뇌교육융합센터
총 10차 워크숍 진행



유럽, 일본, 중국 등 해외 기관 3곳 방문,
오프라인 회의 개최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해외 파트너 기관
총 12차례 화상회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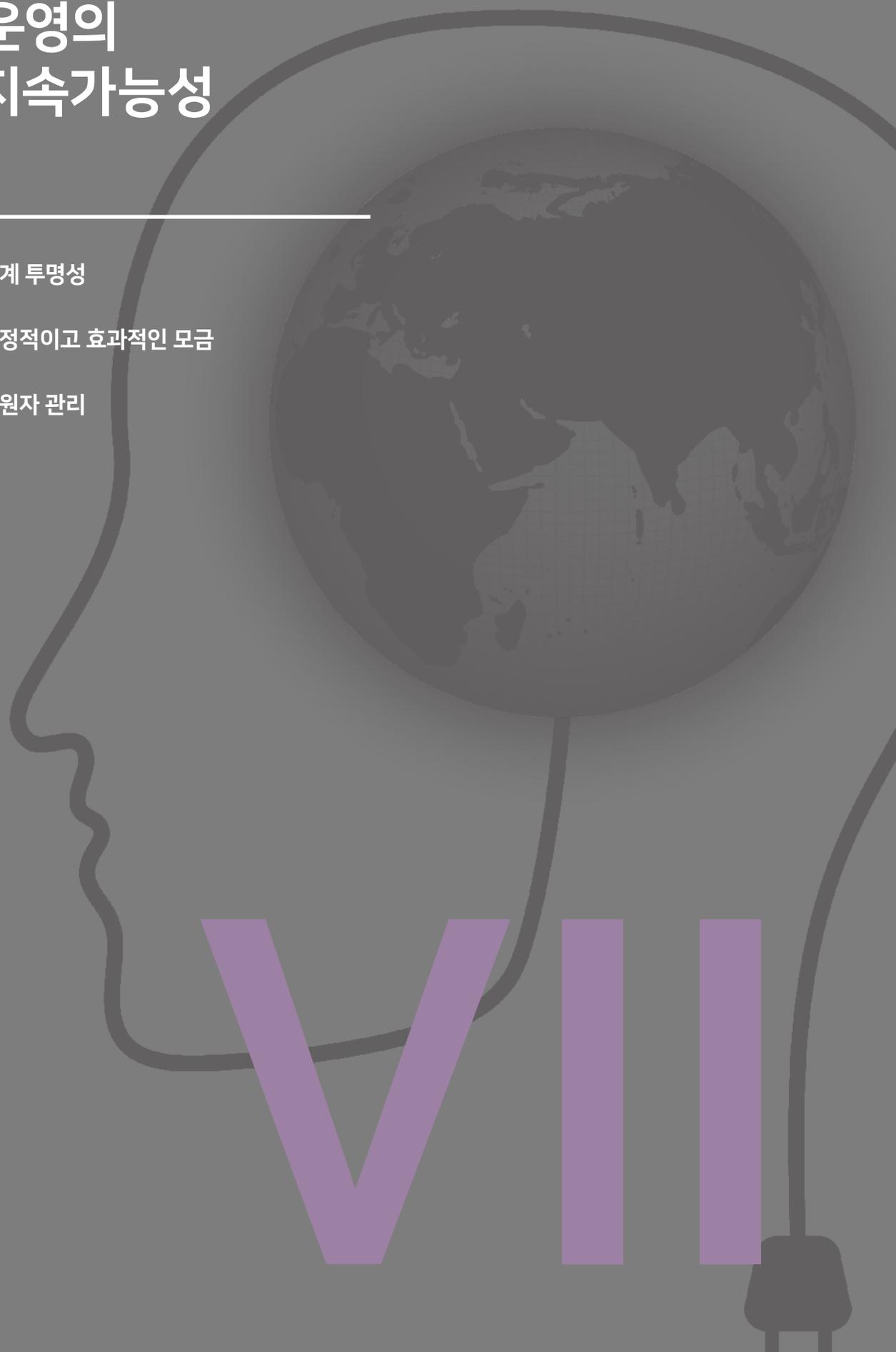
뇌교육 표준화 위원회 발족

운영의 지속가능성

회계 투명성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모금

후원자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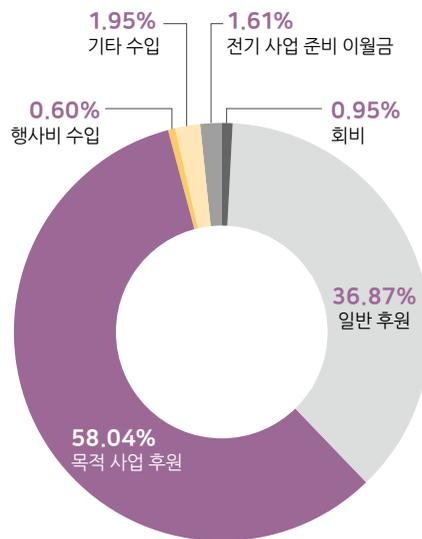
VVI

운영의 지속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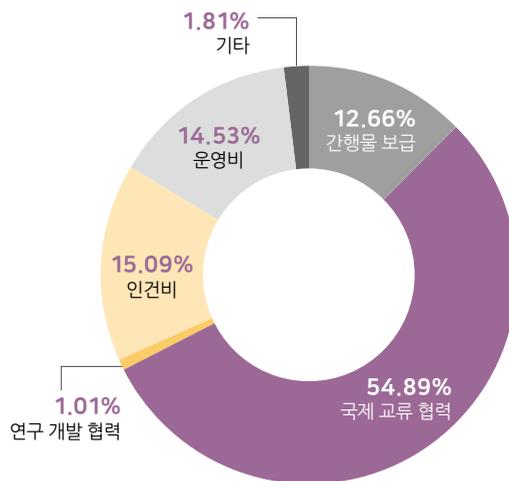
1. 회계 투명성

2017년 결산

수입 내역	2017년 결산(원)	비율(%)
회비	1,420,000	0.95
일반 후원	55,392,000	36.87
목적 사업 후원	87,205,281	58.04
행사비 수입	900,000	0.60
기타 수입	2,923,301	1.95
전기 사업 준비 이월금	2,415,187	1.61
합계	150,255,769	100.0



지출 내역	2017년 결산(원)	비율(%)	
목적 사업	간행물 보급	20,155,950	12.66
	국제 교류 협력	87,366,396	54.89
	연구 개발 협력	1,612,239	1.01
인건비	24,014,930	15.09	
운영비	23,126,449	14.53	
기타	2,884,167	1.81	
합계	159,160,131	100.0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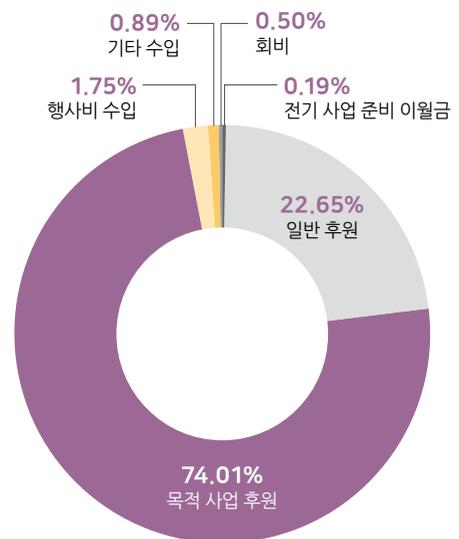
국제뇌교육협회는 뇌교육의 가치를 공감하고 확산을 위해 동참하고자 하는 개인 및 기관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❶ 예산은 해당 년도 주요 사업에 대해 자문 협력 위원회와의 논의를 거쳐 안건을 채택하고, 연초에 개최되는 이사회와 총회에서 사업 및 예산안에 대해 최종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 ❷ 연 1회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 감사 및 정산 보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❸ 기획재정부 지정 지정기부금 단체로서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 실적을 국세청 홈택스와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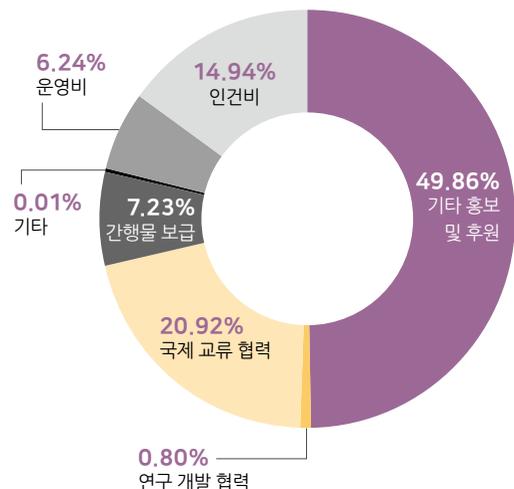
※ 2018년에는 '기타 홍보 및 후원'이 사업 항목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뇌교육의 대중적 인식 제고를 위해 통합적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글로벌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제기되었고, 자문 협력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2018년 뇌교육 다큐멘터리 방송제작으로 이어졌습니다.

2018년 결산

수입 내역	2018년 결산(원)	비율(%)
회비	1,090,000	0.50
일반 후원	49,066,555	22.65
목적 사업 후원	160,300,000	74.01
행사비 수입	3,798,650	1.75
기타 수입	1,930,187	0.89
전기 사업 준비 이월금	420,409	0.19
합계	216,605,801	100.0



지출 내역	2018년 결산(원)	비율(%)
목적 사업	간행물 보급	15,945,016 (7.23)
	국제 교류 협력	46,159,859 (20.92)
	연구 개발 협력	1,769,084 (0.80)
	기타 홍보 및 후원	110,000,000 (49.86)
인건비	32,970,109 (14.94)	
운영비	13,765,593 (6.24)	
기타	26,460 (0.01)	
합계	220,636,121	100.0



손 익 계 산 서

제 13(당)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12(전)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사)국제뇌교육협회

(단위 : 원)

과 목	제 13 (당)기		제 12 (전)기	
	금	액	금	액
I. 매출액		214,255,205		144,917,281
기부금수익	209,366,555		142,597,281	
협회비	1,090,000		1,420,000	
행사비수입	3,798,650		900,000	
II. 매출원가		0		0
III. 매출총이익		214,255,205		144,917,281
IV. 판매비와관리비		220,609,661		156,275,964
직원급여	29,436,719		21,440,000	
복리후생비	1,707,930		899,920	
여비교통비	47,300		679,700	
통신비	459,291		957,782	
세금과공과금	793,270		926,200	
지급임차료	0		5,778,729	
보험료	688,540		633,990	
교육훈련비	20,000		200,000	
회의비	0		85,400	
소모품비	924,659		484,500	
지급수수료	7,475,240		10,179,487	
건물관리비	2,453,093		2,296,461	
무형고정자산상각	904,200		904,200	
퇴직연금	1,825,460		1,675,010	
간행물발행보급	15,945,016		20,155,950	
국제교류협력	46,159,859		87,366,396	
연구개발협력	1,769,084		1,612,239	
기타홍보및후원	110,000,000		0	
V. 영업손실		6,354,456		11,358,683
VI. 영업외수익		2,350,596		5,338,488
이자수익	15,430		2,853,697	
고유목적준비금수입	420,409		2,415,187	
잡이익	1,914,757		69,604	
VII. 영업외비용		26,460		2,884,167
고유목적준비금전입	15,430		2,853,697	
잡손실	11,030		30,470	
VIII. 법인세차감전손실		4,030,320		8,904,362
IX. 법인세등		0		0
X. 당기순손실		4,030,320		8,904,362

내부 감사보고서

사단법인 국제뇌교육협회 이사회 귀중

본 감사는 사단법인 국제뇌교육협회의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회계 및 행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였습니다. 회계 감사는 법인에서 제시한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이 일반적인 회계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회계 처리되었는지를 검토하는 수준으로 이뤄졌으며, 행정 감사는 법인이 제시한 관련 장부 및 행정 서류 등에 대한 검토 및 이사회 및 기타 회의에 참석하여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회계 감사 결과, 특별한 이견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감사 시 발견된 회계적 오류 사항은 재무재표에 수정 반영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추후 회계적 개선 사항은 별도로 회계 담당자 및 관리자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상기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단법인 국제뇌교육협회의 재무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이뤄졌음이 확인되었으며, 사업 활동 및 행정 처리 등은 법인의 정관에 의거하여 안정적으로 이뤄졌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2019년 4월 11일

국제뇌교육협회 감사 유병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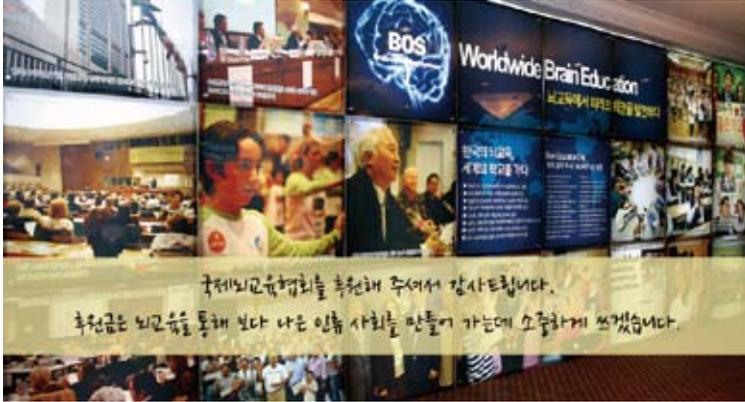
(인)

국제뇌교육협회 감사 유성모



(인)

2.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모금



국제뇌교육협회는 2016년부터 안정적인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재정적 지원과 사업 수행 전문성을 교환하는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습니다. 한편, 목적 사업을 위한 후원 채널 개발 외에도 회원 제도를 재정비해 사무국 운영비의 안정적 조달이 필요합니다.

2017~2018년 주요 목적 사업 모금 성과

1. 뇌교육 다큐멘터리 <러브마이셀프> 제작 지원

후원금_ ₩110,000,000

목적_ 아동·청소년의 자존감 향상 및 멘탈헬스 증진을 위한 뇌교육의 대중적 인식 제고

후원 참여 기관_ (재)일지인성문화재단 외 3개 기관

 110,000,000

2. 2018 뇌교육 국제포럼 개최

후원금_ ₩4,612,000

목적_ 국내외 뇌교육 관계 기관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및 뇌교육의 미래 가치 모색

후원 참여 기관_ 2018 뇌교육 국제포럼 참가 기관

 4,612,000

3. 《지속가능성보고서》한영판 발행 사업 지원

후원금_ ₩12,012,000

목적_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통한 국내외 뇌교육 관계 기관 간의 상호 이해 증진

후원 참여 기관_ (주)BR뇌교육 외 4개 기관 및 개인 후원

 12,012,000

4. 일본 뇌교육 국제연수 사업 지원

후원금_ ₩4,200,000

목적_ 국내 뇌교육 전공자 대상 일본 뇌교육 현장 견학 기회 제공

후원 참여 기관_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브레인트레이너협회

 4,200,000

3. 후원자 관리

지정기부금 단체 의무 이행

국제뇌교육협회는 2014년부터 기획재정부 지정 지정기부금 단체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후원 회원 대상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전산 시스템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일괄 제출해 후원 회원의 연말 정산 편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후원자 정보 관리

1. 후원 회원의 개인 정보 보호 및 투명한 후원금 납부 관리를 위해 아름다운재단, 그린피스, 유엔난민기구, 대법원 등 700여 개가 넘는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후원·회원 관리 전문 솔루션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2. 국제뇌교육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회원 정보와 기부금 내역을 상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후원을 중단한 회원의 개인 정보는 5년 후 폐기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해 후원자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며,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 처리해 보관합니다.



평화

평화의 기도

신은 지구를 만드셨지만
그것을 번영케 하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떤 나라의 국민이거나
어떤 인종이거나 종교인이기 전에
지구인임을 깨달아야하며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유산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당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언젠가 당신 앞에 하나의 인류로서
자랑스럽게 설 수 있게 하소서

나는 이 평화의 기도를
모든 지구인들과 함께
지구의 영원한 평화를 위해 드립니다.

홍익인간 이화세계

2000년 유엔밀레니엄세계평화회의
개막연설 <평화의 기도>중

Prayer of Peace

God made the earth
We humans have to make it prosper
By realizing that we are of the earth
And not of any nation, race, or religion.
By knowing that we are truly one
In our spiritual heritage.

I offer this prayer of peace To you the almighty
To help us find you within all of us
So that we may stand proudly one day before you
As one humanity.

I offer this prayer of peace
With all my fellow earth people
For a lasting peace on earth.

Hongik Ingan Ehwa Segye
(Human beings serve the benefit
of all for a harmonious world)

From the "Prayer of Peace" offered
during the opening message
at the UN Millennium World Peace Summit in 2000

부록

유엔글로벌컴팩트 참여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제3자 검토 의견

지속가능성보고서 보고 지표

References

부록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참여

국제뇌교육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에 2009년 2월에 가입했으며, 그해 3월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UNGC-Korea)에도 가입해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에 대한 10대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참여 보고서(Communication on Engagement, COE)를 제출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NPO 지속가능성 보고서 가이드라인'에 맞춰 《지속가능성 보고서》로 작성해 유엔글로벌콤팩트의 '보고를 통한 SDG 리더십' 실행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분류	원칙	국제뇌교육협회의 노력	보고 지면
인권	1. 우리는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연령층의 건강에 대한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 사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46-92
	2. 우리는 인권 침해에 가담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보호 의무 준수 	95
노동	4. 우리는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배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 휴일 또는 야간 근로 시 노사 합의하에 실시 	취업규칙 제5장 제30조 [시간외 근로]
	5. 우리는 아동 노동을 효과적으로 폐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 미만 사원 없음 	취업규칙 제2장 제8조 [채용제한]
	6. 우리는 고용 및 업무상 차별을 근절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 전후 및 육아기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 수급을 위해 적극 협조 	취업규칙 제7장 [모성보호]
반부패	10. 우리는 부당 취득 및 뇌물 등 모든 형태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 활용 실적 홈페이지 및 기관 홈페이지 공시 	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 회계법인의 회계 자문 	매년 세무조정계산서 발행 및 사무국 비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밀레니엄개발목표에 이어 2015년 10월 70회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 2030 의제'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국제사회가 추구할 새로운 미래의 모습과 이를 성취하기 위한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국제뇌교육협회는 인간의 내적 역량 계발을 위한 훈련법인 뇌교육을 국제사회에 확산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UN SDGs	국제뇌교육협회의 SDGs 이행 방향	보고 지면
	<p>목표 3 건강과 웰빙 모든 연령의 사람들을 위한 건강한 삶의 보장과 웰빙 증진</p>	국제뇌교육협회는 일본뇌교육협회 및 유럽의 핵심 이해관계자 기관들과 함께 멘탈헬스 증진을 이끄는 실제적인 방법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그 활용법을 통해 멘탈헬스 증진에 기여한 다양한 사례들을 확산해왔습니다.	46-62
	<p>목표 4 양질의 교육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평생 학습 기회 증진</p>	국제뇌교육협회는 국내외 핵심 이해관계자들과 연계해 학습자의 자기 주도성을 회복할 수 있는 내적·외적 교육 환경의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65-80, 85-88
	<p>목표 17 글로벌 파트너십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행 수단 강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p>	SDGs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핵심 역량을 활용하는 협력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국제뇌교육협회는 현재 18개국에 설립된 뇌교육 관련 민간 영역, 시민사회 기구, 학술 연구 기관, 전문가 양성 기관 등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효과적인 파트너십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5-80, 85-88

제3자 검토 의견

제3자 검토의견

alt.lab은 《국제뇌교육협회 지속가능성보고서 2019》(이하 ‘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 받아 다음과 같이 검토 의견을 제출합니다.

목적

본 검토 의견서는 국제뇌교육협회가 보고서를 통하여 밝힌 활동의 지속가능성 이슈 및 관련 정보가 중대한 오류나 편견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고서의 품질 향상을 위해 어떠한 개선노력이 필요한지 객관적인 검토절차를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검토기준 및 제한사항

alt.lab은 AA1000AS(2008) 검증표준을 참고하여 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 보고 원칙의 4대 항목(이해관계자 포괄성, 지속가능성 맥락, 중대성, 완전성)을 중심으로 보고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검토 업무의 범위는 2017~2018년 성과를 중심으로 한 보고서 상의 내용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보고서 세부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검토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검토방법

보고서에 대한 검토는 국제뇌교육협회가 제공한 관련 문서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NPO 지속가능성보고 가이드라인의 내용 및 품질에 대한 작성 원칙 적용 여부
- 보고서 정보 수집 및 내용 작성 전반에 관한 프로세스 확인
- 보고서 내에 기술된 내용의 적합성과 표현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 지속가능성 이슈의 선정과 관련 정보 기술의 적절성 검토

검토 의견

alt.lab은 검토 의견서에 기술된 절차대로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보고서 수정과정을 거쳤습니다. 수행한 검토 활동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최종 검토 의견을 밝힙니다.

이해관계자 포괄성: 조직의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조직이 그들의 합리적인 기대와 관심사항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설명하고 있는가?

- 국제뇌교육협회는 지난 첫 번째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이후 글로벌 협의체라는 조직의 방향에 맞춰 이해관계자를 후원회원 및 시민, 자책 관리 기관, 자문기관, 국내/해외 협력 파트너, 정부기관, 유엔 관련 기구 등으로 재분류하고 각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별로 주고 받는 영향력, 커뮤니케이션 채널, 주요 관심사를 보고하였습니다.

- 국제뇌교육협회는 이해관계자 그룹별 주요 관심사를 각 커뮤니케이션 채널에서 빈도를 분석하여 이해관계자의 기대와 관심 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주요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직의 핵심 이슈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속가능성 맥락: 보다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맥락하에서 조직의 성과를 보고하고 있는가?

- 국제뇌교육협회는 UNGC 10대 원칙의 준수를 위해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측면에서의 노력과 근거 자료, 그리고 UN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중 특히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한 지속가능성 관련 활동과 성과를 보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국제뇌교육협회는 NPO 지속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의 보고 지표에 따라 운영의 건강성, 고유목적의 체계성, 사업의 효과성, 이해관계자 참여 전반의 지속가능성 관련 활동과 성과를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중대성: 조직의 중요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반영하는 측면 또는 이해관계자들의 평가와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측면을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가?

- 국제뇌교육협회는 중요성 분석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성 주요 이슈를 선정하였고, 분석과정에 이해관계자 관심 이슈 빈도분석 및 인터뷰를 통한 의견을 포함하였습니다.
- 국제뇌교육협회는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여 보고기간 동안의 성과들을 공개하였습니다.

완전성: 중요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반영하고 보고기간 동안 조직의 성과를 이해관계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보고서에 중대 측면과 그 경계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는가?

- 국제뇌교육협회는 조직의 영향력 범위를 고려하여 보고 내용을 정하였으며, 보고 기간 내의 주요 활동 성과 및 사회적 영향에 관한 정보를 보고하였습니다.

권고사항

alt.lab은 검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의 권고사항을 제시합니다.

- 국제뇌교육협회가 금번 보고서에서 중대 이슈별로 파악된 이해관계자, 조직의 접근방법, 관리 프로세스, SDG 연계 목표를 보고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이는 GRI 가이드라인에서도 강조되는 부분으로 보고서의 완전성 측면에서 개선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연속보고를 하는 만큼 이전 보고서와 달라진 부분이 무엇이고 개선사항이 무엇인지 중대한 측면에서의 변화를 이해관계자에 보고하고 나아가 전반적으로 향후 계획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포함할 것을 권고합니다.
- 국제뇌교육협회는 조직의 중대 이슈 도출을 위해 조직 상황에 맞춘 중요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별 채널에서 관심 이슈를 빈도분석하고 조직 구성원의 평가를 실시한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관심 이슈를 구성하는 과정에 있어 이슈풀이 지속가능성 맥락 차원에서 균형 있게 구성되고 이슈별 상위 체계를 정리하는 등의 단계가 선행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향후 협회의 지속가능성 이슈리스트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의 중요 이슈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다음 보고서에 포함하길 권고합니다.
- 조직 운영에 있어 가장 큰 자원은 사람입니다. 국제뇌교육협회의 중대 이슈 중 '조직 운영 안정성' 이슈에서 조직 구성원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지지 않은 점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UNGC 10대 원칙과 관련하여 부록에서 관련 이슈를 보고하고 있으나 관련 이슈가 중대 이슈로 도출된 만큼 이를 포괄하는 세부 이슈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노력과 성과 등을 보고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 보고서에는 조직운영의 건강성 측면의 지표들이 보다 공개되길 기대합니다.

NPO 지속가능성 보고서 가이드라인 보고 지표

● 모두 보고 ◐ 일부 보고 ○ 보고 안함 — 해당 없음

영역	주제	지표명	보고여부	페이지
조직 프로파일	조직 개요	조직의 일반 사항 소개	●	4-9, 14-15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	조직의 미션과 비전	●	16
		조직의 핵심 가치	◐	16
	지속가능성 지향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과 조직의 연관성	●	3, 10-11, 24-36, 98-99
	이사회/운영위원회 및 의사 결정	이사회/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현황	●	17-19
		의사 결정 체계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위한 노력	○	
	이해관계자	조직의 주요 이해관계자 구성	●	38-39
		이해관계자 참여와 소통	●	40-44
보고의 조건 및 특성	보고서 개요 및 보고 범위	●	앞표지 뒤	
	보고서 신뢰도 증진 노력	●	98-102	
조직의 지속가능성	재정 운영의 건전성	재정 운영 및 재무적 건전성 현황	●	90-92
		재정 관리를 위한 시스템과 활동	◐	93-95
	윤리적인 조직 운영	재정 및 운영의 투명성과 관련된 노력	◐	91
		윤리 경영/반부패 정책과 활동	◐	98
	환경보호	환경오염 저감 및 생태계 보호 노력	○	
		자원 절약 및 에너지 저감 활동	○	
	인권 노동	기본적인 노동 권리 준수 현황	◐	98
		직원/활동가들의 보건 안전을 위한 활동	○	
		성 인지, 차별 금지, 다양성 존중 노력	◐	98
		직원의 만족도와 고충 처리를 위한 절차	○	
		일과 삶의 조화와 자기 계발 지원	○	
	정보 보호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현황	●	95
	가치 사슬/영향권	가치사슬/영향권에서 지속가능성 노력	◐	23-36
프로그램 효과성	프로그램 계획 및 관리	프로그램의 선정, 목표 및 계획 수립 절차	◐	46, 64, 84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성과 측정 절차	●	46-88
		위험관리 프로세스와 노력	○	
	조직 가치와의 연계성	프로그램의 임팩트를 관리하는 방법과 절차	◐	80, 88
	파트너십 관계	파트너십 관리 현황, 기대 효과 및 성과	●	18, 64-80, 85-88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의 고려와 참여	프로그램별로 파악된 이해관계자	●	46, 64, 84
		주요 이해관계자와 소통 현황 및 결과	●	55, 68-74, 80
	인권에 기반한 접근	프로그램별 이해관계자 고충 처리 절차	○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 관점		◐	46	
	인권에 기반한 프로그램 및 활동 수행 노력	◐	47-54, 59-60	

[References]

1. United Nations (201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15*, United Nations, pp.4.
2. OECD (2017), *How's Life? 2017: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how_life-2017-en, pp.24-26.
3. Ibid., pp.66.
4. Sheehy-Skeffington., J. and J. Rea (2017), *How poverty affects people's decision-making processes*, Joseph Rowntree Foundation, pp.39-44.
5. UN General Assembly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1 October 2015, A/RES/70/1, www.refworld.org/docid/57b6e3e44.html.
6.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8), *World Health Statistics 2018: Monitoring health for the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pp.7.
7. WHO Homepage, https://www.who.int/mental_health/SDGs/en/ (accessed on 7 March 2019).
8.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8), *Mental Health Action Plan 2013-2020*, World Health Organization, pp.16, 29
9. UNESCO/Netexplo Advisory Board (2018), *Human Learning in the Digital Era*, UNESCO Publishing, pp.97-98.
10. 유네스코 21세기 세계교육위원회 (1997), 《21세기 교육을 위한 새로운 관점과 전망 (Learning: the treasure within)》: 유네스코 21세기 세계교육위원회 종합 보고서, 오름, 서울, p.107
11. UNESCO/Netexplo Advisory Board (2018), *Human Decisions Thoughts on AI*, UNESCO Publishing, pp.11.
12. World Economic Forum (2018), *Values, Ethics and Innovation: Rethinking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orld Economic Forum.
13. OECD (2019),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Concept Note*, https://www.oecd.org/education/2030-project/teaching-and-learning/learning/student-agency/Student_Agency_for_2030_concept_note.pdf (accessed on 17 August 2019).



Love MYSELF 뇌교육

Love MYSELF Brain Education

뇌교육은 양심을 밝히고 인성을 회복하는 인간완성학입니다.
뇌의 감각이 깨어날 때 비로소 자신의 가치를 꽃피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뇌를 활용하는 사람,
당신이 바로 브레인아티스트입니다.

2009년 뉴욕라디오시티홀 (브레인아트페스티벌) 강연 중

Brain Education is the study of human completion,
which empowers you to brighten your conscience
and recover your humanity.

It is when your brain senses awaken,
that you can finally let your value blossom.

You are someone who knows your value
and utilizes your brain.

You are a Brain Artist.
From the lecture at the Brain Art Festival,
Radio City Music Hall, New York 2009

<출처=일지아트홀>



국제뇌교육협회 IBREA, International Brain Education Association

국제뇌교육협회(IBREA)는 인간 뇌의 올바른 활용과 계발을 위한 뇌교육 관련 학제 간 학술 활동 및 교육학 발전에 앞장서며, 지속 가능한 인류와 지구촌 문명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국제단체입니다. 2009년 2월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가입, 2010년 6월 유엔공보국(UN-DPI) 정식지위 NGO로 등록되었습니다.

발행일 2019년 9월 5일 | **전화** +82-2-3452-9046 | **팩스** +82-2-3452-5894 | **웹사이트** www.ibrea.org